

길 따라 찾아가는 익암 주논개익 발자취



(사)익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발 간 사 ◆

끊임없이 대륙 침략의 야욕을 키워왔던 섬나라 일본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처참한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위태로운 전장에서 조국을 지킨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있다면, 한 여자로서 애뜻한 사랑과 호국정신을 지켜낸 사람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있다.



회장 양해도

그동안 장수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숭앙받아 온 의암 주논개는 장수(長水)가 고향이며, 이곳에서 최경회 장군을 만났고, 사랑을 키웠다. 최경회 장군이 2차 진주성 싸움에서 목숨을 잃자, 당시의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남강(南江)에 투신 순절한 실존인물이다. 세력가도 아니었으며, 장군도 아니었지만, 한 여성으로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業績)을 남겼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記錄)은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서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있지만, 이 기록은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이 아닌 문헌설화(文獻說話)여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생애(生涯)에 관한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후세(後世)들에게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提供)하기도 했다. 즉 논개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출생과 이름, 출생지(出生地)와 성장지(成長地), 신분(身分)등에 관하여 이설(異說)들이 많이 있으며, 이 이설들 때문에 또 다른 이설들이 있게 되었다. 이에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와 장수문화원 및 장수군청에서는 논개의 사적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립코자 각종

학술세미나와 논문집 및 서적을 발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일관(一貫)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는 그동안의 관련 기록과 발표문들을 종합하여 논개의 생애와 발자취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장수와 함양, 진주까지의 논개사적들을 소개하였으며, 논개정신의 선양사업들을 소개하였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논개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후대에 길이 전할 수 있는 선양사업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이 책이 발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최용득군수님 그리고 군의회 오재만 의장님과 관계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9월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양 해 도

차 례

1. 의암 주논개의 생애	7
2. 의암 주논개 표준영정 공동제작	55
3. 의암 주논개 사적지와 추모 및 선양행사	61
4. 지역별 의암 주논개관련 유적지	97
○ 장 수 지 역	99
○ 함 양 지 역	141
○ 진 주 지 역	147
○ 화 순 지 역	167
5. 문헌(文獻)에 주논개(朱論介)에 관한 기록들	173
6. 주논개(朱論介)에 관한 시문(詩文)	203

의암 주논개의 생애

— 태어나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 의암 주논개 연보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 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 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에 와서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 의암 주논개의 생애

1. 주논개의 가계

논개(論介)는 이름, 호는 의암(義巖)¹⁾, 성은 신안(新安)주(朱)씨이며 출생지는 현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이다. 그의 선대(先代)는 중국(中國) 송(宋)나라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손(後孫)이 된다. 고려 시대(高麗時代)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인 인장(印長)이 가문(家門)을 빛냈으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를 역임한 공(絳)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通德郎)을 증직(贈職)받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논개의 조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마을”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마을 서당훈장(書堂訓長)이었다. 논개의 모친은 밀양 박씨(密陽 朴氏)로서 그의 선조는 팔도병사(八道兵使)로 황석산성(黃石山城) 싸움에 공적을 남긴 박명박 장군이다.

조부인 용일에게는 달문(達文)과 달무(達武)의 두 형제가 있었다. 달문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學文)과 도덕(道德)을 배워 문장과 덕행(德行)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용일의 학식과 덕망은 산등성이를 넘어 대곡리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결국은 함

1) 축석루 바위에 정대룡(鄭大隆) 쓴 것으로 알려진 ‘의암(義菴)’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양군 서상면 금당리에서 대곡리로 초빙(招聘)되어 이사(移徙)까지 하게 되었다.²⁾

2. 주논개의 출생

주달문은 일찍이 안의현 서하면(西下面)봉정리 밀양 박씨집 규수(閨秀)에게 장가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오던 가운데 남아(男兒)를 얻으니 대룡(大龍)이라 이름 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15세에 괴질(怪疾)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³⁾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⁴⁾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주씨 가문(朱氏家門)의 대(代)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를 얻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女兒)를 분만(分娩)하였다.⁵⁾

논개의 탄생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주(四柱)로 따지면 사갑술(四甲戌)이 된다. 곧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이다. “술(戌)”은 지지(支持)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사갑술에 태어난 논개의 사주를 보고 놀란 주달문은 논개의 앞날을 걱정했으나, 조선의 왕 중에 영조가 사갑탄생인지라 위안하고, 천한 이름은 오히려 길한 운명을 부른다는 관습에 따라 ‘놓은 개’라는 뜻을 가진 논개(論介)라 이름 지었다.⁶⁾

3. 장수현감 최경희(崔慶會)와의 만남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2)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연구, 신지서원, 1996, 48-49쪽.

3) 장차 난을 일으킬 아이라 하여 방죽에 빠뜨려 죽였다는 전설도 있다.

4) 덕유산 영각사에서 기도했다는 조사도 있으나 주촌과 가까운 장안산일 가능성이 높다.

5) 장수문화원, 앞의 책 1997, 28쪽.

6)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앞의 책, 50-52쪽.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⁷⁾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논개 어머니 박씨 부인은 외동딸 논개를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 나가던 중 시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박씨 부인과 논개 모녀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시동생 주달무와 한집에서 지내자는 것이었다. 살림살이를 합치면 농사와 다른 고된 일은 남자인 달무 자신이 맡아서 할 테니 박씨 부인은 그저 집안 살림이나 돌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여러 날 궁리 끝에 박씨 부인은 시동생 달무의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살림을 합쳤다.⁸⁾

한편 달무는 형님 달문이 죽고 난 뒤 이웃에 사는 김풍헌으로부터 은밀하게 묘한 제의를 받았다. 김풍헌은 동네에서 끼니 걱정 않고 부유하게 사는 자였다. 그런 그에게 나이가 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 이었다. 비록 살림살이는 흠족하다 하지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해 그의 아들은 장가를 들지

7) 논개의 나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논개가 의암에서 목숨을 잃을 때를 기준으로 역 추산한 나이이다.

8) 남존여비 사상이 아닌, 여성의 판단에 자유롭게 맡기는 전통적인 관례가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 그때 김풍헌은 마침 달문이 죽고 홀로된 박씨 부인의 외동딸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달문이 살아 있다면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 박씨 부인의 가정 형편은 웅색하기 그지없었고, 더구나 달무라는 위인은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축내며 사는데다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음모였다.

김풍헌은 달무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달무의 조카 논개를 김풍헌 집의 민며느리로 들여보내주면 그동안 달무가 시달려온 채무 전액을 갚아주는 것은 물론 상담으로 다섯 마지기를 얹어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달무는 다른 생각 할 겨를도 없이 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리하여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박씨 부인과 살림을 합치자는 제의를 했고,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쉴 새 없이 채근질을 했다. 끝내 살림살이를 합치게 되자 달무는 김풍헌과 은밀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논개를 김풍헌 집의 민며느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땅문서는 그 즉시 넘겨준다는 약속도 함께 받았다.

달무는 손에 큰돈을 쥐게 되자 그 길로 노름판에 뛰어들어 집을 잇고 지냈다. 나쁜 소문은 걸음이 빨랐다. 박씨 부인이 시동생 달무가 저지른 비행을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시동생 달무가 그토록 살림을 합치자고 종용했던 이유를 알았다. 살림을 합친 이상 논개에 대하여 달무도 친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서둘렀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고서 후회했다.

박씨 부인은 궁리 끝에 논개를 데리고 도망을 치기로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논개를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다. 그것도 돈과 토지를 받고 논개를 인신매매한다는 세상의 비난을 듣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재를⁹⁾ 넘어 경상도로 도망쳤다. 우선 박씨 부인 친정 마을인 안의현 봉정마을(지금의 함양군 서하면 봉정)로 피신했다.

박씨 부인이 논개를 데리고 달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김풍헌은 달무를 찾았지만 달무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김풍헌은 장수 현감에게 주달무와 박씨 부인

9) 장계지역에서 서상으로 넘나들던 고개.



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혼인하기로 약속하면서 건네준 혼인 예물을 장만하기 위한 돈을 횡령한 채 도망쳤다는 내용이였다. 그때 장수 현감인 최경희는 즉시 박씨 부인과 주달무를 체포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달무는 행방불명이었고, 친정 마을에 숨어 있던 박씨 부인과 논개는 장수 현감 최경희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박씨 부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제 겨우 네댓 살 밖에 안 된 어린이를 민며느리로 데려갈 생각을 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김풍헌은 인륜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며, 처음부터 반인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주달무와의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주달무에게 지급한 금품은 김풍헌 스스로의 책임일 뿐 논개 모녀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김풍헌도 오히려 곤장을 맞고 재판은 끝이 났다. 그러나 논개 모녀의 사정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어린 딸을 껴안고 울던 박씨 부인이 최경희 현감에게 호소했다. 원래 살던 주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곳은 이미 시동생 식구들의 원망과 저주가 그

들을 기다릴 뿐이며, 설혹 주촌으로 돌아가 살게 된다 하더라도 김풍현이 장차 무슨 보복을 해올지 두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디 살 만한 곳이 생길 동안만이라도 장수현 관아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했다.

최경회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인 논개 모녀를 며칠 동안만 관아에서 지내다가 떠나라고 했다. 돌아갈 곳이 없게 된 논개 모녀의 소식을 들은 최경회의 아내 김씨는 그들을 내아로 불렀다.

박씨 부인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김씨는 우선 박씨 부인의 덕성스러움과 예절에 호감이 갔고, 무엇보다 어린 논개의 총명함에 마음이 끌렸다. 그리하여 김씨의 보호 아래 논개 모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김씨는 논개 모녀를 친척처럼 여기게 되었다.

최경회는 1579년 무장현감으로¹⁰⁾ 옮기게 되었다. 이때 김씨가 최경회에게 논개 모녀도 함께 데려가자고 권했다. 박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와 부엌살림 솜씨를 무엇보다도 높이 샀다. 그러자 최경회는 논개 모녀를 불러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박씨 부인은 노비로 삼아도 좋으니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최경회는 김씨와 의논한 끝에 관아의 침방(針房) 관비(官婢)로 논개 모녀를 등재시킨 뒤 정식 수행원으로 삼아 무장으로 데려갔다. 그때부터 논개 모녀는 김씨의 보살핌을 받았다. 특히 논개의 총명함은 김씨의 가르침에 의해 경이롭게 빛을 더해갔다.

박씨 부인은 논개에게 일찍부터 몇 가지 일에 대한 반복 교육을 시켰다. 첫째는 최경회 현감과 김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경회는 논개 모녀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박씨는 믿었다. 끝없는 가난과 궁핍에서 모녀를 건져내주었고, 달무와 김풍현이 모의한 인신매매의 함정에서 구원해주었다고 믿었다.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논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최경회는 계속 변방으로만 옮겨 다녔다. 1583년 영암 군수에서 1584년 영해 부사로 영전했다. 영해 부사로 있던 중에 사도시정(司導寺正)이란 중앙관직을 임명받았

10) 지금의 고창군 무장면 일대.

다. 사도시정이란 궁중의 미곡과 간장 등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최경회는 혼자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부인 김씨는 벌써 여러 해째 지병을 앓고 있어서 서울로 따라가기 어려웠다. 최경회는 56세였다. 누구든 따라가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 책임은 나주 김씨에게 있었다. 김씨는 논개를 유심히 살폈다. 2년 전에 어머니 박씨를 여의고 혼자가 된 논개는 그때 열네 살에 불과했지만 웬만한 살림은 능히 보살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주 김씨가 가르쳐온 덕분이기도 했다. 김씨는 최경회에게 논개를 데려가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받으라고 권했다.

논개는 최경회를 따라서 서울로 갔다. 1590년 초봄 최경회는 다시 담양 부사에 임명되어 돌아왔다. 그때 최경회 나이 쉰아홉 살이었고 논개는 열일곱 살이었다. 담양 부사로 부임하면서 최경회는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논개는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최경회의 소실이 되었다. 논개가 최씨 문중 사람이 된지 9개월 뒤인 1590년 12월에 최경회는 어머니 순창임씨(淳昌林氏)의 상을 당했다. 담양 부사를 사직하고 고향 화순으로 떠날 때 최경회는 논개에게 장수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권했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첩실을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개는 공손하게 이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미 최경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논개도 자신이 무섭게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최경회도 그런 논개의 변신을 느꼈다.¹¹⁾

4. 최경회의 의병활동과 진주성 전투

1) 최경회의 의병활동

1592년(임진년)에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 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

11) 정동주, 논개,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0, 59-84쪽.

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8월에 남원으로 옮겨 군사를 증원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만큼 군사 증원은 쉽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본거지를 장수로 옮길 결심을 했다. 지난날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베푼 여러 가지 선정의 결과도 있어 의병 모집이 다른 지역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에는 논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병 동원과 왜군에 대한 공격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장수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내는 데는 논개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다.

기대한 만큼 장수 사람들은 협력해주었다. 장계 월강평야에다 의병청을 세우고 장수는 물론 인근의 무주, 진안, 금산에까지 의병 모집을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 논개는 눈에 띄지 않게 의병모집과 훈련 중인 의병들의 뒷일을 도왔다. 논개는 마을 여성들을 동원하여 의병 훈련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함께 해냈다.

조국수호 의지로 불타는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훈련을 거쳐 정예병 800명을 선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의병 지원자들이 집결했다. 한 달여의 맹렬한 훈련 끝에 마침내 최경회의 의병대는 정식으로 부대의 이름과 깃발까지 갖추었다. 조정으로부터 공인된 부대 명칭은 ‘골(鵲)자부대’였고, ‘골’자가 찍힌 깃발도 만들었다. 부대 명칭은 최경회가 만든 것인데, ‘골입아군’(鵲入鵲郡), 즉 ‘송골매가 날아들면 갈까마귀 떼가 놀라 흩어진다.’는 뜻이었다.

1592년 9월 중순 최경회의 골자부대는 맨 첫 번째 전투인 무주 전투를 저 유명한 고바야카와 부대와 벌였다. 최경회는 적을 속이기 위한 전술을 폈다. 벧짚을 묶어 말 위에다 싣고 사람은 그 뒤에 앉아 고함을 지르게 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밤이 지새도록 그렇게 맞섰다. 왜적들은 조총을 쏘거나 화살을 퍼부었다. 대부분의 탄환과 화살은 벧짚에 꽂힐 뿐이었다. 골자부대는 왜적의 탄환과 화살이 바닥나기를 기다렸다. 새벽 먼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골자부대는 칼과 창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왜적들은 탄환과 화살이 부족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적들의 참담한 패배였다. 이때부터 왜적들 사이에서 골자부대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금산전투에서 승리한 왜적들은 일단 무주까지 압박해 들어왔다가 전투에서 패하자

다시 금산 방향으로 퇴각한 후 경상도 지역인 김천, 개령, 성주 방향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최경회는 왜적들의 퇴로로 예측되는 곳에다 골자부대를 매복시켰다. 지형이 험악하고 좁은 길이 외가닥으로 나 있는 곳으로 밖에는 적들이 퇴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퇴각하던 왜적들은 곳곳에서 매복해 있던 골자부대의 기습을 받아 괴멸되어 갔다. 사력을 다한 탈주와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최경회 눈앞에 흰 말을 탄 왜장 한 명이 수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가오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른바 ‘우지치(牛旨峙)’에서였다.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계지점인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 2리 주치(走峙)고개다. 최경회는 화살을 겨누었다. 그의 활숨씨는 일찍이 소문난 것이었다. 활은 왜장을 명중시켰다. 죽은 왜장한테서 그림 한 점과 칼 한자루를 노획하자 골자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림은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였고 칼은 여덟 자나 되는 큰 칼이었다.

현재 전남 화순의 ‘해주 최씨’ 문중에서 보관해오고 있는 칼이 바로 1592년 9월 중순 고바야카와 부대와 우지치전투에서 최경회가 왜장으로부터 빼앗았던 바로 그것이다. 칼의 손잡이 세 군데에 오동나뭇잎 문양이 새겨져 있다. 손잡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상·중·하단으로 나뉘어 오동나뭇잎 문양이 7-5-5형식으로 된 것(七五桐 : 상단의 오동나뭇잎은 7개의 무늬로, 중단과 하단의 오동나뭇잎은 각각 5개의 무늬로 되어 있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소지했던 칼을 뜻한다. 그보다 한 급 낮은 것은 5-3-3형식(五三桐 : 상단의 오동나뭇잎은 5개의 무늬로, 중단과 하단은 각각 3개의 무늬로 되어 있다)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다이묘(大名)급 장군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사한 칼이다. 전남 화순의 해주 최씨 문중에서 보관해오는 칼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칼은 무로마치 막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서 기마부대에서 사용하는 나카마키(長券)형식의 칼이다. 단검(短劍), 중검(中劍), 장검(長劍) 가운데 약 2미터 길이의 이 장검은 말에 탄 사람이 상대방 말의 발목을 자르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약 30년간 유행되었던 칼이다.

또한 이 칼을 만든 사람인 '모루미치'(盛道)는 일명 '미노(美濃)칼'의 한 분과였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고향이자 그의 무기고 역할을 했던 미노 지방의 모루미치가문은 1532년(天文 1)경부터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여 무로마치 시대(1394~1595)에 전성기를 맞았던 일본 칼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이 시기는 제철 기술이 발달하고 무사들의 영토 확장 욕구가 강해진 나머지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졌던 전국시대로, 칼은 외형상의 멋보다는 실용성과 견고함이 특별히 중시되던 시대였다.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닌 칼이 '해주 최씨' 문중으로 들어온 뒤 그 칼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금산, 무주 지방에서 패한 고바야카와 부대와 다른 왜적들은 일단 성주와 개령 방면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경상우도 지역이 다시 위험에 빠졌다.

경상우도 순찰사 조종도는 최경회의 전라우의병에게 속히 도와달라는 원군 요청을 해왔다. 최경회는 그의 끝자부대 의병들에게 경상도 구원을 위한 출정을 명령했다. 그러자 대원들은 경상도 방어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완곡하게 거부했다. 왜적의 기세가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어째서 호남지방을 버리고 먼 영남지방을 구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경회가 그들을 꾸짖었다.

“호남지방도 우리나라 땅이요 영남지방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의(義)를 위해 장수가 된 사람들이 어찌 지역의 멀고 가까운 것을 따져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 최경회는 지역적 차별성 때문에 국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전쟁 시기인데도 당쟁과 지방색의 폐단으로 국가의 시련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

최경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후 그의 행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그는 1592년 7월 26일 의병을 일으켜 1592년 10월 경상도로 들어온 후 죽을 때까지 9개월 동안을 줄곧 경상도에서만 지낸 유일한 호남 의병장이었다. 불평하는 장수들을

회유하여 남원을 출발한 최경회의 군은 운봉, 함양을 지나 산음(山陰)으로 향했다.

한편 1592년 10월 초, 왜장 도요토미는 호소카와(細川忠興), 가토(加藤光泰), 하세가와(長谷川香), 기무라(木村重尙)등에게 명령하여 5만 명의 왜군을 이끌고 부산에서 진주로 진격하도록 했다. 10월 3일 적병은 길을 나누어서 진주로 진격해 왔다. 한 부대는 말티고개(馬峴)를, 다른 한 부대는 불천(佛遷)에서 진주를 바로 공격했다.

이때 병사 유승인이 나아가 막다가 진주성으로 물러났으나, 진주성에 영주(領主)가 들어 오면 명령이 통일되지 못한다고 하여 유승인의 진주성 진입이 거부당했다. 성 안에서는 김시민을 수장으로 하여 항전을 준비했다. 이때 성 안에는 3,700여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에게도 모두 남장을 시키고 성문 위에는 용대기(龍大旗)를 꽂고 일렬로 대오를 지었다.

6일 아침 1천 여 명의 왜병 총수가 일제히 성 안을 향하여 총을 쏘아댔다. 천지를 뒤흔드는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왜병 3만 명이 일시에 성안으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때 김시민은 악공을 시켜 일부러 누대 위에 올라가서 피리를 불게 하고 궁시(弓矢)와 탄환은 되도록 아꼈다. 그리고 도끼, 낫, 물 끓이는 가마솥을 준비시켰다.

10일 밤 사경(四更) 무렵, 왜병은 퇴각하는듯하다가 모든 횃불을 끈 채 동문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적은 사다리를 놓고 개미떼같이 성벽을 타고 올라왔다. 김시민의 군은 성 위에서 탄환과 화살과 불덩이, 끓는 물과 돌맹이를 폭포같이 쏟아 부었다. 적의 시체는 산처럼 쌓였다. 이때 김시민은 적이 쏜 탄환에 왼쪽 겨드랑이를 맞고 쓰러졌다. 이것을 본 곤양 군수 이광악(李光岳)이 대신하여 적장을 쏘아 쓰러트렸다. 다음날 오전 8시경 적은 퇴각했다.

이 싸움에서 광재우는 진주성 북쪽 비봉산에 진을 쳤고, 의병장 최강과 이달은 남강 건너편 두골평(頭骨坪)에 진을 치고 적의 후면을 위협했다. 의병장 김준민의 군대는 사천에서 응원하고, 최경회의 군은 어숙령(魚束嶺)에서 맹공을 가했다. 제1차 진주성전투는 안팎의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제1차 진주성 전투 때 최경회의 군은 직접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진주 인근

에서 적의 후방지원을 차단시키면서 진주성 안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들은 진주 외곽으로 후퇴하여 성주와 개령을 다시 점령하였다. 제1차 진주성 전투 이후 최경회 군의 전투는 주로 진주 외곽 지역에 산재해 있는 왜군을 격파하는데 주력했다. 최경회 군은 산음에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김면 군과 합세하여 개령을 공격했다. 그러나 개령에서 패배했다. 다시 전라도 관군과 전라도 의병 및 경상도 여러 군사가 합세하여 성주로 진격하였으나 또 실패했다. 군량미와 무기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경상도 의병장들은 지역 유지들에게 통문을 띄워 원조를 요청하였다.

10월 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라좌우 의병과 김면 군이 연합전선을 이루어 개령 공격전을 펼쳤으나, 왜적의 기세가 치열하여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중순 이후 전라좌우 의병이 분리되어 최경회의 우의병은 김면 군과 함께 개령에서, 임계영의 좌의병은 정인홍 군과 더불어 12월 중순까지 성주성 수복전을 주도하였다. 임계영 군은 정인홍 군과 연합하여 12월 14일 총공세를 펴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인홍 군은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임계영 군 단독으로 성주성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부장 장윤이 앞장서서 적과 접전을 벌였다. 전투는 해가 저물고 나서야 적의 패배로 끝났다. 이처럼 진주성과 경상도 일대에서 전라도 의병장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이처럼 전라도 좌우 의병들의 활약상이 크게 두드러지자 비변사에서는 “각 도의 의병 가운데 곽재우, 최경회, 임계영이 거느린 군사는 쓸 만해 보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으니 급히 군사를 정돈하여 근왕(勤王 :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하게” 하도록 왕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영남지역 유생들이 비변사의 제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생들의 논리는 단호했다. 진주성 전투에서 경상도 의병만으로는 왜적을 물리치기가 불가능하여 전라도 의병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했다. 제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로 전라도가 안전해졌고, 전라도의 안전은 다시 경상도의

안전을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안전으로 왜적은 경성지역에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왜적을 몰아내기는 쉬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리하여 경상도를 수호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므로 비변사의 제안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성일 또한 의병장들의 근왕을 중지할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 『난중잡록』 기사년 1월 8일자는 김성일의 건의문을 전하고 있다.

고을이 함락된 뒤로 겨우 대여섯 개의 빈약한 고을만이 남았는데, 그나마 흉악한 왜적이 사면에 들끓어 기어코 삼키려 하는 형세입니다. 이런 때는 호남 의병이 머물러 있으면서 대처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하루아침에 군사와 무기를 거두어 물러간다면 왜적들은 후원군이 없음을 알고는 마구 몰려와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근거지조차 남지 않게 될까 염려됩니다.

결국 왕은 지역 유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병장들의 근왕을 중지케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1차 진주성 전투 기간 중 의병장들의 전과가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경상우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해 준 것이 제1차 진주성 전투다.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왜적들이 지름길을 택하여 곡창지역 호남평야를 장악하여 조선에서 직접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전투였다. 이 같은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우도의 방어 거점인 진주성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기에 앞서 경상우도에서 전라도 의병장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오자, 대부분의 전라도 의병들이 가까운 전라도를 두고 어찌서 멀리 있는 경상도까지 가서 방어전을 펼쳐야 하느냐고 드센 반대를 했을 때, 최경희가 그들을 달래고 설득시켰던 논리도 바로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임진왜란 때 왜군의 군사 행동은 조선의 주요 거점만을 연결하는 점선에

불과했을 뿐 결코 조선과의 전면전 양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활동은 승패를 떠나 우선 왜적에게 그들의 후방 기지 사수를 위한 수비병 증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현상은 곧 전방과 후방 사이의 연락 두절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보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왜군들은 해로를 통한 보급품 운송을 계획했지만 이순신의 수군에게 저지당하자 보급품의 안전한 공급이 불가능해져 평양에서 더 이상의 북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왜적은 이미 점령한 경상좌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호남평야까지 장악하려고 했다. 의병장들도 이 같은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철저한 방어를 위해서는 호남의 곡식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임진왜란 동안 진주 사람들의 결사 항전태세는 계속되었고, 왜군에 대한 저항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호남을 공격하는 길은 크게 세 갈래로 잡을 수 있다.

첫째는 창원→함안→정암진→의령→삼가→거창→안의→육십령→옹치 또는 거창→함양→팔랑치.

둘째는 창원→진주→단성→산청→함양→팔랑치 또는 함양→거창→안의→육십령→장수.

셋째는 진주→하동→섬진강→광양→구례.

이밖에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영산→창녕→낙동강→초계→합천→거창, 또는 낙동강→고령→성주→거창, 또는 지례→우지→거창. 또는 낙동강→고령→성주→거창. 또는 지례→부항현→대덕현을 넘어가는 길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영·호남의 경계는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뻗은 소백산맥의 준령들인데, 이 준령을 넘나들 수 있는 목은 섬진강, 팔랑치, 육십령, 부항현뿐이다. 또한 이들 목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외곽지대 요충이 창녕의 정암진, 초계의 적포, 고령의 무계, 성주, 지례, 우지현이다.

왜군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갈래의 접근로가 의령에서 광재우 군에게 막히자, 이번에는 우회로를 이용하여 호남 진출을 획책했다. 따라서 우회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

했다.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같은 요충지를 사수해야만 했다. 이 중요성을 해결해준 것이 의병들이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진주성은 언젠가 되었든 또 다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호남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적 거점이 진주였기 때문이다.¹²⁾

2) 최경회의 경상우병사(右兵使) 임명

제1차 진주성 전투 이후 최경회는 조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19일자 기록은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적이 물러나지 않고 일로에 진을 연이어 치고 있으니 한쪽에서 몇대로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경회는 의병장으로서 정예병을 이끌고 지레, 거창 두 지역 사이의 요충지대를 차단하였으니, 호남 한도와 영남우도가 여태까지 보존된 것은 모두 그의 힘입니다.

이제 남원 부사를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군사를 철수하고 먼 곳으로 부임하게 한다면 보장(堡障)이 걸히게 되어 방어가 염려스럽습니다. 피차 가고 머무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최경회를 남원 부사에 체직하여 일이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의병을 거느리고 유방(留防)하게 하소서, 상(上)이 따랐다.

조정에서는 최경회의 공로에 대해 충분한 상훈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그 상훈 뒤에 닥쳐올 적의 방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로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경회를 다른 지역의 관리로 보내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형태의 관직을 내림으로써 최경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의중을 드러냈다.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21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전에 이광악을 경상우병사에 제수했는데(1593년 1월 15일 성주에 주둔하고 있던

12) 정동주, 앞의 책.

적이 남으로 내려오자 영·호남의 모든 군사가 진주성으로 들어가 지켰는데, 이때 경상우병사 김면이 죽자 광양 현감 이광악으로 하여금 이 직을 대신하게 했다), 이제 서울에 있던 적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청도 이상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만 영남이 가장 긴요하니 장수를 뽑아 임무를 맡길 때 심분 면밀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대 광악은 재기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군중(軍中)에 등용되었으므로 위엄과 명망이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병장 최경회는 무신은 아니지만 여러 번 전공을 세워서 명성이 크게 드러났고, 재능도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호남의 의병은 이미 그와 친숙해 있으니 사변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직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전공과 재능이 경상우병사직을 맡을 만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다 적의 남하에 따라 경상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경회는 다시없이 필요한 인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선조실록』 권38, 26년 5월 16일에는 최경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경상감사 김늑은 인물이 온화하여 평시에는 한 지방의 임무를 맡는 것이 관찮으나, 지금은 군무의 조치가 평시보다 열 배는 되므로, 진실로 재주와 명망이 특이하고 지모와 사려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면 이 중임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최경회는 새로 병사(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지략이 있어 감사에 합당하니,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소서, 그 다음으로는 이시언과 곽재우도 임명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최경회를 경상우병사에 임명한 지 한달 여 만에 경상 감사로 승진시켜 경상도 방어 전략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고 김늑이 그대로 경상 감사직을 유지했다.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직에 임명된 사실이나 경상 감사에 천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특히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사람이 호남 출신의 최경희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시 경상도의 군사적 위기와 동시에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더더욱 그렇다. 최경희가 임명되기 전 경상우병사는 이광악이었지만 그는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아 최경희로 바뀌었다. 이광악보다 앞선 경상우병사는 김면이었는데, 남명 조식의 제자로서 영남의 세도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광악의 뒤를 잇는 경상우병사는 당연히 정인홍이나 곽재우 두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우병사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직책이 영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에게 주어지지 않고, 놀랍게도 최경희가 1593년 4월 21일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것이다. 군사적·정치적 능력으로 볼 때 최경희보다 뛰어난 경상도 출신 의병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배제시키면서 전라도 출신 의병장을 임명한 데는 그 나름의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말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동서분당(東西分黨)으로 동인 세력과 서인세력이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아온 조선정치는 급기야 임진왜란의 침략전쟁 중에도 소모적인 내분과 망국적인 질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파적인 정치세력끼리의 대립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의병이 일어날 때에도 서로간의 정파 소속 문제 때문에 의병의 참여형태나 운용방법에서 갈등이 생겼다.

최경희는 엄밀히 따진다면 서인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경희는 전쟁 시기인 그 시점에 당색과 지방색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기색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영남 의병장들과 화합하여 왜적을 격멸시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사실 김면이 경상우병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관과의 대립을 피하고 관군과 의병군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력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조정에서도 당파와 지방색이야말로 왜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셈이다.

영남 사람이라는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인홍이 경상우병사 임명에서 배제된 이유는 그가 의병을 사병화하여 향촌에서의 사소한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 데 이용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절의를 숭상하는 남명 학문을 계승한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나치게 원칙론에 머물며 상대 세력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 결과 그는 민심으로부터 원망을 들으면서 시대적인 소명과 진실에서 멀어져 있었다.

거기에 비해 최경회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임진년 9월 경상도 원군요청 때 부하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기어코 제때에 지원했다. 부하들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그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일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왜 옳은지를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의병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부하들에 대한 그의 이 같은 세심한 배려와 억압적이지 않은 인간적 태도는 곧 그의 의병군이 강해질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기도 했다. 의병들은 그런 최경회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최경회는 부하들의 신뢰에 대하여 전투에서의 승리로 답했다. 최경회와 의병들 간의 굳건한 신뢰와 그로 인한 단결력은 다른 의병군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는 교훈이었다. 전라도 출신 의병들을 이끌고 경상도로 온 최경회와 그의 의병군들은 경상도 의병장들과 잘 융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상우병사 임명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계열을 강조하는 인물을 선택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려 했다. 전쟁터에서 당리당략만 따르면서 사사로운 이익만을 챙기는 저 술한 정치적 인물보다는 국가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찾던 중 최경회가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이러한 목적은 결국 실패했다. 최경회를 경상우병사로 천거하자 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시기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걸고로 드러낸 정파도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 전투는 시작

도 하기 전에 이미 참담한 패배가 예견되어 있었다. 지방색의 모순과 폐해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처럼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슬픈 일이다.

논개는 부군이 의병장으로서 왜적과의 전투에 참여한 뒤부터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전쟁 전의 생각이 주로 최경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전쟁 이후로는 최경희의 의병 활동과 의병들의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도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최경희의 나이는 벌써 62세였다. 그런데도 피가 끓는 청년들과 함께 밤낮을 안 가리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의병들을 지휘했다. 의병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내걸고 적과의 전투에 나선 의에 살고 의에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의 의로운 마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것은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도덕적 품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던 최경희를 떠올릴 때마다 논개는 새삼 경외감이 커졌다.

그리고 최경희의 몸을 돌보지 않는 그 같은 큰 행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지, 왜 그토록 자신과 가문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하고 힘든 전쟁터에서 앞장을 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일 때마다 논개는 골똘히 그 생각에만 매달리곤 했다.

그러면서 최경희와 함께 살아온 지난 15년 동안 논개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해 온 최경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되었다. 크나큰 은혜를 베푼 은인, 변방의 현감이나 군수 혹은 부사로만 전전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부임지마다 최선을 다해 백성을 위하던 정직하고 청빈한 삶의 태도, 부인 나주 김씨에 대한 정중하고 자상한 예의,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는 남다른 인간애의 표현을 볼 때마다 논개는 그저 최경희의 그늘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없는 행복으로 알았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만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15년 전의 그 운명적인 재판이 있는 뒤로 최경희의 은총 아래서 살아나 철이 들고 인간의 길을 깨닫기까지 그 숭한 날들이 어떤 간곡한 인연의 힘으로 오갔는지를 새롭 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되물을수록 점점 더 알 수 없는 의심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쩌면 그 같은 의심은 논개 자신으로서 깨닫기 불가능한 차원의 문제인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였다.

하지만 최경희가 그토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예순이 넘은 몸으로도 전쟁터의 위기와 극한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유와, 논개 자신의 서럽고 구차한 육신과 운명을 최경희의 삶 속으로 이끌어 지켜주고 키워준 까닭이 모두 크고 깊은 알 수 없는 차원에 속하는 한 가지 능력에서 나왔으리라는 어렴풋한 예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예감은 차츰 확신으로 바뀌었다. 의병들에게서도 격조 높고 단호한 의지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신념과 전장에서 결연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논개는 그 저 한 사내를 흠모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며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병들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인지를 불쑥불쑥 상상해 보기도 했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모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지배계급의 당쟁은 국론을 분열시켰고, 정치와 관료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여 조선 사회는 붕괴되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20여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것은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는가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관료들의 민중에 대한 수탈과 오랜 가렴주구로 민심은 정부를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런 중에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된 조선 정부는 왜적을 막기 위해 군대를 급히 정돈하고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려 했지만 군사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서울이 왜적에게 함락당하고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민중들은 왕의 피난길을 막고 옥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왕이 서울을 떠나자 노비들은 그들의 노비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장례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고 이 때문에 궁궐이 모두 불타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의병이다. 국가를 책임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징병에는 결연히 반대했던 민중들이었지만, 민중의 지도자가 나서서 나라와 민

중을 구하지는 절규에는 마치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과 같이 기꺼이 응했던 것이 의병이다.

논개는 최경희가 장수 월강평야에서 장대(將臺)를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 시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경희의 '골자부대'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논개는 전신을 휘감고 도는 묘한 감동의 전류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정신적인 변신을 향하여 눈뜨기 시작했다.

최경희는 무주 적산산성전투 이후로 줄곧 경상도 지역에만 머물렀다. 장수에서 백릿길 또는 그보다 약간 먼 곳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논개는 거의 빠짐없이 최경희의 건강과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있는 후 겨울로 접어들었다. 최경희의 골자부대가 겨울을 나야 하는 지역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동쪽과 북쪽이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 눈보라와의 싸움만 해도 이미 목숨을 내걸다시피 해야만 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마냥 부족할 따름이었고, 더구나 최경희는 예순을 넘긴 노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앓아누운 적은 없었다. 만사를 인내 하나로 넉넉하게 다스려냈다. 논개는 의병의 아내들과 함께 겨울 내내 솜을 넣어 누빈 갑옷을 지어 전선으로 보냈고, 전사한 의병의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했다. 겨울을 나는 동안 최경희의 골자부대는 추위와 불리한 전투 상황으로 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엄청난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전선을 내놓지 않는 의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논개의 정신적 변화는 차츰 또렷해지는 목적의식으로 몸을 바꾸어갔다. 그러던 중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최경희의 부장한테서 논개는 매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것은 1593년 2월 12일부터 벌어진 행주산성전투에 관한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논개를 감동시킨 것은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에게 패한 왜군이 다름 아닌 고바야카와 부대였다는 사실이었다. 고바야카와 부대라면 이미 1592년 9월 중순에 있었던 무주전투에서 최경희의 골자부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던 그 부대였다.

또한 논개를 더욱 흥분시킨 것은 고바야카와 부대와의 최후의 혈전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행주산성전투가 막바지에 돌입했을 때 왜군으로서는 마지막 남아 있던 제7대 대장 고바야카와는 행주산성 서북쪽 자성(子城)을 지키던 승군(僧軍)을 돌파하고 성을 공략하기 위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승군은 동요했다. 행주산성이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때 권율도 총공격으로 맞서 왜적과의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조선관군도 화살이 다했다. 그때부터 투석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성 안에 있던 부녀자들이 총동원되었다. 부녀자들은 입고 있던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치마 앞쪽으로 돌맹이를 날라 오기 시작했다. 돌맹이가 유일한 무기로 변한 전쟁터에서 여성들이 치마로 날라다 준 돌맹이는 곧 승전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논개는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에 눈을 빛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때까지 모호한 빛깔과 모습으로만 맴돌던 그 신비한 차원의 내용들이 보다 또렷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최경희가 지닌 그 놀라운 세계, 의병들이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자신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과 기회가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때 최경희는 논개에게 간략한 소식을 전한 뒤 곧장 창원에 있는 경상우병영으로 옮겨갔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날 약속을 했지만 논개는 그 약속만 믿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조선 사회의 윤리와 인습의 질긴 껍질과 끈으로 칭칭 묶여버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차원을 논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계속된 뜨겁고 처절한 정신적 변신을 위한 몸부림 끝에 가까스로 깨닫게 된 자아완성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최경희는 1593년 6월 15일 진주성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병영 소재지인 창원에서 주로 지냈다. 왜군의 총공격설이 난무하던 어느 날 충정병사 황진(黃進)이 병영으로 찾아왔다. 황진은 뜻밖에도 논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 느닷없는 광경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최경희에게 논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지난 4월 최경희가 보낸 소식을

들은 후 아무래도 장수에서 가만히 앉아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했다. 더구나 왜적들이 부산 쪽으로 집결한 다음 총력을 기울여 진주성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최경희가 경상우병사만 아니어도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어느 것 하나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찌면 지금의 이별은 영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장수를 떠나왔다고 했다. 남자 모습으로 변장하고서 결국 최경희가 머무는 창원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것이다.

논개가 육십령을 넘을 때 덕유산 산자락엔 원추리 꽃이 풀숲에 숨어서 논개의 위험한 여행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오다가 산청군 오부면에서 왜적의 척후병에게 붙들렸다. 왜적들은 논개를 함안 쪽으로 압송했다. 왜군의 포로가 된 논개가 함안 양곡 부근을 지날 때 마침 충청병사 황진이 최경희와 진주성 방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그 곳을 지나고 있었다. 황진의 군사들은 왜적을 발견하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여 간단히 왜적 소부대를 소탕했다. 그 과정에서 남자로 변복한 논개를 발견했다. 논개는 최경희와의 관계와 최경희에게 가던 중임을 말했고, 황진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최경희에게로 논개를 데려갔다. 최경희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논개를 더 이상 떼어놓지 못하고 남장을 시켜 진주성으로 함께 들어갔다.

한편 왜병이 서울에서 철수하게 되자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 이빈은 각 도의 장수들을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남하한 다음, 김명원은 선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6월 7일 감사 권율과 도원수직을 교대한 뒤 의령현 등 여러 읍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이때 도원수 권율, 의병장 곽재우, 경기방어사 고언백 등 관군과 의병 사이에 전술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동래 등에 주둔해 있던 왜병 20여만 명이 김해, 창원을 거쳐 함안의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해에서는 육로로, 창녕에서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수륙으로 병진하여 함안, 의령, 반성을 차례로 점령했다.

왜군이 함안 일대를 분탕질하자 순변사 이빈은 급히 의령으로 와서 각 도의 장수들에게 말했다. 왜적들의 계획은 필시 진주를 함락시키는데 있으며, 지금 진주성에 있는 군사로는 성을 지키는 것이 무리이므로, 각 도의 의병을 진주로 보내어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각 도의 장수들은 이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도원수 권율이 지강(枝江)을 건너 왜적을 공격하려고 하자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수성론(守城論)과 진주성을 비워버린 채 외곽에서 적의 기세를 꺾자는 공성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수성론자들은 만약 진주성을 포기하면 적은 내지(內地) 깊숙이 쳐들어와 그 환난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니 당장 진주성으로 들어가 적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성과들의 주장이 더 강했다. 『난중잡록』, 『선조수정실록』에는 공성과의 한 사람이었던 곽재우의 주장을 적고 있다.

“왜적의 세력이 강성하고 아군은 오합지졸이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군량미도 없으니 경솔하게 전진하지 못한다……. 오직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군사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적을 헤아릴 수 있다. 지금 적병의 성대한 세력으로 보아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들을 3리 밖에 안 되는 외로운 성으로 어떻게 방어하겠는가? 나는 차라리 밖에서 원조할 지언정 성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죽히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군졸들을 어떻게 차마 버릴 수 있겠는가?”

곽재우는 진주성을 사수하기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의 예봉을 꺾는 게 더 좋은 전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수성론과 공성론의 대립이 험악해지자 순변사 이빈은 곽재우에게 의령 정암진의 수비를 요구했다. 그리고 최경희, 황진, 고종후, 선거이, 홍계남은 차례로 진주성에 들어갔다.

도원수 권율은 전라병사 선거이에게 전령을 보내어 성에서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성을 나가 일시에 산청방면으로 퇴각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다. 최경회, 김천일, 황진은 동요하는 군사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진주성으로 몰려든 3만 여명의 민간인들에게 질서를 유지하라며 위로와 진정 책을 함께 사용했다. 그 엄청난 민간인들 중에는 멀리 울산이나 경주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 중순에 이르는 15개월 남짓 남해안을 낀 경상도 지역, 즉 경주, 울산, 부산, 마산, 거제, 함안, 고성, 충무, 남해, 사천, 하동 등지의 주민들은 참혹할 지경으로 왜군들에게 짓밟혔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의병이나 관군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집에는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들뿐이었다. 부녀자들이 겪은 수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 진주성을 몰려들었다. 그들은 비록 숫자로는 3만 여명이라 했지만 왜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했다.

이들 피난민들의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였다. 이때 논개와 젊은 부녀자들이 나섰다. 좁은 성 안에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행주산성전투에서처럼 각자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자는 결의를 하고 즉시 조직에 나섰다. 물을 끓일 사람, 끓는 물을 성벽 아래로 쏟아 부을 사람, 돌맹이를 주워 모을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켰다.

공성론자들의 진주성 입성 거부는 다른 의병장들에게 여파를 미쳤다. 특히 진주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빈 조차도 산청 쪽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미묘한 분위기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경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또한 정파가 다른 김천일 계열의 서인에 대응하는 동안 계열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경상우병사직까지 전라도 의병장 최경회에게 넘겨준 점이 정파적 대결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결국 공성론자들이 주장했던 전술, 즉 분산 작전으로 왜적에 대항하면서 적의 예봉을 꺾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술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왜군이 다시 의령 일대를 분탕하자 도원수 권율과 이빈 등이 모두 쫓겨 함양을 거쳐 남원으로 도망하고, 정암진을 지키던

경상도 의병들도 이곳을 포기한 채 퇴군하고 말았다.

한편 이같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둔 진주성 안의 형편은 몹시 어지러웠다. 진주 목사 서례원(徐禮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장 김천일이 성 안을 지휘했다. 얼핏 보기에는 지휘 계통이 문란이자 난맥상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일이었다.¹³⁾

3) 진주성의 최후

왜군이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왜군은 치밀한 작전계획에 따라 병력을 여섯 부대로 나누어 각각 책임 구역을 할당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성의 북쪽은 가토 기요마사의 지휘 아래 2만5,600명이 포진했다. 이 부대 안에는 24명의 부장(副將)이 용맹을 떨치는 병사들을 지휘했는데 그 중에 저 유명한 스모의 제2인자이자 괴력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져 이 부대를 상징하는 천하무적 기다 마코베도 있었다. 성의 서쪽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지휘를 받는 2만6천명, 성의 동쪽은 우키타의 부대 1만8,800명, 모리가 책임자인 제4부대 2만2,300명은 예비대로 대기시켰다. 고바야카와가 지휘하는 제5부대는 가토를 지원하게 했고, 요시카와의 제6부대 약 1천여 명은 남강 오른쪽의 언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응원군을 차단시키기 위해 매복했다.

진주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만약 적절한 응원군이 외곽에서 지원하고, 상호 연락만 된다면 웬만한 공격에는 견딜 수 있는 훌륭한 성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외곽지대와 연락이 두절되고 응원과 보급이 없다면 흡사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곳이기도 했다.

제2차 진주성전투는 경상우도 관찰사의 절제를 받으면서 진주목사가 통솔하는 본주군(本州軍)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었던 제1차 전투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랐

13) 정동주, 앞의 책.

다. 우선 적군이 총력전을 펼치고 나오는 만큼 아군도 총력전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적이 함안으로 진출하자 관군과 의병들은 모두 갖가지 구실을 붙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

한편 명나라군은 대구, 남원, 상주에 머물면서도 조선 정부의 거듭되는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원병을 파견하지 않은 채 방관만 했다. 따라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간 군사들은 성이 완전히 포위된 채 성 밖 백 리 안에는 수성군을 후원하기 위한 단 한 명의 아군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립 속에 놓였다. 거기에서 진주성 안의 군사는 겨우 3천명 남짓했다. 왜군이 정예병 9만 3천명으로 총공격을 펼치는데 아군은 겨우 3천 여 명의 혼성 군으로 맞섰다.

나머지 수 만 명은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전투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계속된 왜군들의 약탈과 방화로 양식은 모두 바닥이 났고,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자 양식은 더욱 귀해졌다. 진주성 안에 모여든 수 만 명의 피난민들은 참담하게 굶주리는 중이었고, 군사들도 군량미가 바닥나서 절망적인 상태였다. 거기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모두 차단되고 일체의 응원과 물자 원조가 없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지 않고 왜군들이 포위망을 고수하기만 해도 성안 사람들은 머지않아 굶어 죽거나 투항할 것이란 유언비어가 나돌아 벌써 패색이 짙었다.

왜적들은 진주성을 지원하는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 진주성을 중심으로 모든 인근 마을 곳곳에다 군대를 중첩적으로 분산하여 주둔시켰는데, 그 병력들은 진주성 사방 백 리 안에 꼭 들어차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날의 전투상황을 놓고 지휘관들 사이에는 다시 갈등이 표출되었다. 표의병(彪義兵 :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희복은 그의 고향 순천에서 아무 벼슬도 없이 살다가 아우인 희열과 함께 의병으로 참전, 진주성 함락 때 전사했다. 두 형제의 의로운 정신을 칭송하는 뜻) 부장(副將) 강희복은 적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므로 관군의 구원요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천일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임우화를 구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임우화는 특사로 가던 도중

체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왜적은 포로가 된 임우화를 공격 때마다 역이용했다. 결박당한 임우화를 공격진 맨 앞줄에다 세워놓음으로써 성 안의 병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적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동료인 임우화 때문에 활을 쏘지도 못했다. 그런 틈을 이용하여 왜적들은 공세를 취했다.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게 된 성 안의 장병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왜적들의 간교한 술책에 이끌려 다닐 수만은 없었다.

첫날 전투 이후 적은 다시 작전을 바꾸었다. 진주성은 서쪽과 남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나머지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북쪽은 인공적인 성벽을 쌓아올렸고, 성 바깥에는 깊고 넓은 인공 호수를 파서 성벽을 에워싸도록 해놓았다. 왜냐하면 동쪽과 북쪽은 성보다 훨씬 높은 산이 빙 둘러쳐져 있어서 성벽 접근이 비교적 쉬웠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어 둔 것이다.

왜적은 그 호수를 끊고 물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물이 빠져 나가자 흙을 퍼붓고 돌우어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 밑에 땅굴을 파서 장대석을 뽑아버림으로써 성벽을 붕괴시켜 성을 함락시키려 했다. 워낙 수가 많았기 때문에 위협은 점점 커졌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왜적의 희생 못지않게 아군의 피해도 컸다. 사흘째 되는 날 최경희와 김천일은 성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흡사 구원병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김천일이 구원병이 온다고 소리쳤고, 성 안 장병들은 큰북을 치면서 기뻐했다. 그리고는 성루에 올라와 구원병이 온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원병은 어디에도 없었다. 앞에는 적병들뿐이었다. 김천일의 눈에 환시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만큼 구원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그 무렵 고성 의병장 최강(崔綱)은 진주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손을 쓰지 못하고 다시 고성으로 돌아갔다. 이 와중에 최강을 따라왔던 함안의 피난민들 300여명이 왜군에게 포위당해 위기를 맞았다. 최강은 왜적과 싸워 피난



민들을 구출했다. 하지만 광재우에 의해 제의되었던 그 게릴라식 유격전이나 측면 또는 배후 공격 같은 것은 어디서도 시도되지 않았고, 명나라 장군의 명령으로 진주를 구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명나라 장수들은 모두 싸우기를 거부했다. 아군들은 관군, 의병 할 것 없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진주성이 서서히 함락되어가는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는 형상이었다.

전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성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비에 젖은 채 여기저기 뒹굴었고, 성 밖의 왜적들의 시체도 늘어났다.

전투는 격렬해지고, 군량미 부족이 가져온 심리적 위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갔다. 왜군은 귀갑차(龜甲車)라는 것을 만들어 전투에 배치했다. 귀갑차는 나무궤짝을 바퀴가 네 개 달린 차 위에 올려놓고 군사가 안에 들어가 작동하는 신무기였다. 이는 침투에 적합한 무기인데 가토 기요마사가 발명해낸 것이었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수성군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왜적들은 줄어든 만큼만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수보다 증강시켜 공격에 나섰다. 성 안과 성 밖의 세력

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거기에다 왜군들은 진주성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아낸 다음 그 부분에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취약한 부분은 토성을 쌓아올린 동쪽이었다. 왜병들은 동문 밖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었다. 성벽보다 높게 만든 언덕 위에 올라가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총포를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다. 분명 왜적들의 작전 변화였다.

그러자 성 안의 수성군도 황진이 직접 이 구역을 책임지고 나서서 성 밖과의 대좌 지점에 토산을 쌓아 올려 응전했다. 흙을 쌓아올릴 때 옷과 모자를 벗어 던져 버리고 황진 자신이 몸소 흙과 돌을 져 날랐다. 이 광경을 본 성 안의 피난민들은 감격했다. 모든 피난민들이 달려들었다. 참으로 무서운 힘이었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은 밤을 새우며 흙과 돌을 날랐다. 부슬비를 맞으면서 사력을 다해 흙을 나르는 피난민들의 모습엔 독기가 뻗었다. 새벽녘이 될 무렵 커다란 산 하나가 불쑥 솟아났다.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성 안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싸우자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쌓아올린 현자총통(玄字銃筒)을 발사하여 왜적들이 쌓아올린 흙더미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왜적들도 보라는 듯이 수천 명을 동원하여 다시 흙더미를 쌓아 올렸다.

이날 낮에만 삼진삼퇴, 야간에는 사진 사퇴하는 사이에 김천일은 명나라군과 관군 측에 구원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끝끝내 단한명의 원군도 보내오지 않았다.

왜적은 목궤(木櫃)를 만들어 생피로 덮어 싸고, 이를 각자의 머리에 인 채 탄환과 화살을 막으면서 다가와 성을 허물기 시작했다. 귀갑차도 동원되었다. 귀갑차를 성벽에 바짝 갖다 붙여놓고 그 안에서 성벽을 허물었다.

그러자 성 안에서는 큰 돌을 굴러 내렸다. 목궤와 귀갑차가 큰 돌에 맞아 찌그러지거나 박살이 났다. 목궤나 귀갑차 안에 있던 왜적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화살을 퍼부으니 적은 또다시 퇴각했다. 적은 다시 작전을 바꾸었다. 이번엔 동쪽 성문 밖에다 큰 기둥을 두 개 세우고 그 위에 판자를 설치한 후 올라가 성 안을 향하여 불붙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들을 성 안의 초가들을 겨냥했고 초가는 일시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에 맞선 황진도 기둥을 세우고 판자를 칸 위에 올라가서 총포를 쏘아 적의 판자 기둥을 쓰러뜨렸다.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다. 진주 목사 서레윈은 겁에 질려 당황해했다. 목사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피난민들에게 당장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러자 최경희가 당장 서레윈 대신 사천 현감 장윤으로 임시 진주 목사를 삼아 성 안의 동요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장병들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격전에다가 먹지도 자지도 못해 피로가 가중되어 제풀에 지쳐가고 있었다. 거기에다 연일 퍼붓는 폭우로 주 무기인 활이 모두 풀어져 버려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전세는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위급한 지경으로 치달았다. 그때 왜적은 항복을 종용하는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다. 한문으로 쓴, 항복을 유도하는 전단의 효과는 뜻밖으로 컸다. 피난민들 가운데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동쪽의 성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왜적들은 이 틈을 타서 성벽을 넘으려 했고 김준민은 이를 막다가 전사했다. 왜적들은 동서 양쪽 성문 밖에다 다섯 개의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엮어서 방책을 만들어 놓고 성 안을 굽어보면서 총탄을 쏟아 부었다. 성 안에서 순식간에 300여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일대 혼란이 일었다. 왜적의 공격은 다른 날과 달리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었다. 커다란 나무 궤짝으로 사륜차를 만들어 그 위에 수 십 명을 싣고, 각자 철모를 쓴 왜군들이 궤짝을 밀어 성벽 아래에서 접근해서는 철추(鐵椎)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 성 바깥에서의 공격만으로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성 안으로 적병을 들여보낼 계획이었다. 또한 성의 기층을 굴착하여 성벽을 붕괴시킬 공작도 병행했다. 따라서 성벽 곳곳에 구멍이 뚫리거나 기층이 파헤쳐졌다.

전투를 시작한 지 여드레째가 되는 날 진주 목사 서레윈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책임구역이 야간을 틈탄 적병에 의해 거의 뚫린 상태가 되었다. 적병이 그 곳을 집중 공격해왔으나, 황진·이종인을 선두로 한 성 안 사람들이 사력을 쏟아 부은 끝에 겨우 격퇴시킬 수 있었다. 이날 성 아래 잠복해 있던 적병에 의해 황진이 전사했다. 갑

자기 성 안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성군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반전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성 안에 있던 피난민들이 성을 뛰어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자들은 남강에 뛰어들어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계속된 장마로 불어난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목소리가 자욱했다. 달아나던 피난민들은 대부분 왜병들에게 살해되었지만 탈출하려는 사람들 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최경희와 김천일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끝내 관군과 의병들은 진주성 안의 수성군들과 수 만 명의 피난민들을 외면하고 말 것인가 싶어 분한 기분으로 또 울먹거렸다. 그때 논개는 피난민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패전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최경희는 진주 목사 서레원으로 하여금 충청병사 황진을 대신하여 순성장(巡城將)으로 삼았다. 그러나 서레원이 그 직책을 감당해낼 수 없어 사천 현감 장윤으로 대체시켰지만 장윤 또한 전사하고 말았다. 이제 성 안에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후 1시경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부터 문제로 등장했던 동쪽 성문과 성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허물어진 성벽을 쌓을 사람도, 그것을 지휘할 사람도 없었다. 돌이 아닌 흙벽이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비에 젖은 나머지 힘없이 무너졌고,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는 폭우는 흙벽의 복원을 가로막았다.

왜적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무너진 성문 앞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김해 부사이종인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창으로 육박전을 벌여서 간신히 적병을 물리쳤다. 그러자 적병은 서북문을 공격했다. 서북문은 김천일의 책임구역이었다. 그러나 김천일은 물밑 듯이 밀려드는 적병을 끝내 저지하지 못한 채 축석루 쪽으로 후퇴했다. 적병은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진주 목사 서레원은 도망쳤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군사들도 더는 대항하여 싸울 기력이 없었다. 적병을 피하여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피난민들도 살아남기 위해 성 밖으로 달아났다. 논개는 썰물처럼 무서운

기세로 밀려 나가는 피난민 대열에 떠밀려서 성 밖으로 나왔다. 왜병들은 피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기 시작했다. 피난민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다. 논개는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난민 대열에 섞였다.

마침내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사방에서 적병이 몰려들었고 폭우는 계속되었다. 남강은 붉은 황톳물로 넘쳐 흘렀다.

성이 함락되자 최경희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즉시 조카 홍우(弘宇)를 불렀다. 홍우는 최경희의 중형 경장(慶長)의 큰 아들이자 최경희 군대 군관이자 막하 장수였다. 홍우에게 유언을 할 참이었다. 먼저 1592년 9월 우지치전투 때 왜장에게서 빼앗은 그 칼과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 그리고 입고 있던 관복(官服)을 벗어주면서 그 물건들을 고향 화순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조카 홍우가 떠나고 나자 김천일이 달려왔다. 성이 함락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종인, 이잠, 강희복, 오유는 최후까지 왜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결국 김천일, 최경희, 고종후는 성 함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자결하기로 맹세했다. 세 사람은 시빨건 황톳물이 범람하는 남강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성을 완전히 장악한 왜병들의 광란이 시작되었다. 성 안에 살아 있는 것은 모조리 도륙 당했다. 성 안 곳곳에 시체가 뒹굴었고, 축석루에서 남강 북안에 이르기까지는 쌓인 시체들이 서로 겹치거나 헝클어진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청천강에서 옥봉에 이르는 5리 사이에는 시체들이 쌓여 강물을 막았다. 강바닥부터 쌓인 시체들이 강둑 높이까지 차오르자 강물은 핏물로 변해 강기슭에 있는 집들의 안마당까지 질퍽거렸다. 군인 복장을 한 시체보다는 피난민들 시체가 훨씬 많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 시체 곁에는 역시 뼈가 앙상한 젓먹이들과 어린아이들 시체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왜적들의 광란은 좀체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성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죽은 시체들을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찌르고 토막 냈다. 가축도 예외는 아니었다.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죽였다. 이제 살아 있는 것은 왜적 자신들뿐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도끼를 들고 성 안에 서서 있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 베어버렸고 우물마다 독을 풀었다. 이제 서 있는 것도 모조리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진주성을 철저히 파괴하여 평지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진주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런 다음 다시 군대를 두 갈래로 재편성하여 진주성 외곽지대의 초토화에 나섰다. 제1대는 단성, 산청 등지로 나갔고, 제2대는 섬진강을 따라 구례, 곡성까지 진출하여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다가 7월 9일 모두 진주로 복귀했다.

7월초였다. 가토 휘하의 여러 부장들은 제1대에 배속되어 단성, 산청 등지를 유린하고 전라도로 떠난 부대들보다 일찍 진주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그들은 전승 축하연을 준비했다. 워낙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났고, 병사들의 사기도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질탕하게 한판 노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다들 알고 있었다.

전승 축하연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려면 술과 여자가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진주 관기들을 모조리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진주 관기는 옛날부터 유명했다. 제2차 진주성전투가 계속되던 중에도 진주 관기를 대표하는 한 나이든 기생이 김천일을 찾아와 격렬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진주성 안에 들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던 관군 중 몇몇이 기생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와서 기생들을 겁탈하는가 하면, 밤낮을 안 가리고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기생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 대표가 김천일을 찾아가 항의한 것이었다. 그러자 김천일은 그 기생을 건방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기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병사들이 군율에 따르지 않고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군율이 없기 때문이며, 이런 문란한 자세로 어찌 왜적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묻자 김천일이 그 기생의 목을 베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전투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관기들은 왜적들의 소집에 전율했다. 그때 진주성 밖의 작은 암자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논개는 성 함락 이후의 소식을 날낱이 듣고 있었다. 최경희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논개는 깊은 생각에 잠

졌다. 은혜와 사랑 모두를 승화시킬 묘책을 찾고 있던 중 진주 관기들을 소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전승 축하연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 사람은 진주 관기들뿐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논개는 마침내 그토록 오래 꿈꾸어오던 자아완성의 기회가 왔음을 깨달으면서 한층 더 냉철해졌다.

은밀한 수소문 끝에 진주 관기들이 7월 초순의 어느 날 오후에 축석루로 집결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논개는 관기들 틈에 끼여 축석루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장 한 놈은 죽이고 자신도 죽을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다. 자신이 기생 신분으로 가장하여 왜장을 죽인 다음 생기게 될 세상의 오해와 능멸 따위로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망설여졌다. 최경희의 부실로서 최경희를 따라 자결해 버린다면 한결 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결해 버린다면 정절을 지킨 열녀가 되어 해주 최씨 가문과 신안 주씨 가문의 영예가 될 것이고, 논개 자신은 열녀 반열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손쉬운 삶이 주는 명예보다는 더 높고 큰 삶을 살고 싶었다. 진주성 싸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문제는 관기들 틈에 끼여서 축석루까지 가는 과정이었다. 고심하던 끝에 논개는 장수를 떠날 때 몸에 지녔던 약간의 금붙이로 모시를 구해 치마 적삼 한 벌을 급히 만들었다. 관기로 가장하기 위한 극단적 모험이었다.

일부러 머리도 감았다.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를 다시 찌르고, 새 모시옷을 입었다. 죽음과의 입맞춤을 위해 정신적 변신으로 거듭난 논개는 이제 갓 스무 살의 눈부신 여인이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희고 부드러워 향기 나는 피부였지만 죽음을 속이기 위해 마지막 화장을 했다.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서기 시작할 때 논개는 저만치 뒤쳐져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그들을 따라 걸었다. 지난 전쟁 중에 여러 명의 관기가 죽거나 달아났고 더러는 중상을 입거나 해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었다. 관기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무거워 보였다. 어찌면 이번 걸음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

기 때문에 관기들은 저마다 수심이 컸다. 그런데 그날의 축석루 가는 길에는 살아남은 진주 관기 외에도 적잖은 여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쟁에서 죽지 않은 일반 여인들이 왜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발악하거나 울고 있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논개는 차라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축석루에는 주로 왜장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축석루 아래 땅바닥엔 왜병들이 모여 앉아 있다가 관기들과 일반 여인들이 들어서면 모양을 보고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논개는 축석루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위를 살폈다. 관기들 속에 섞여서 축석루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축석루에 올라가면 노래와 춤 그리고 술잔 시중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논개는 한 번 더 자신의 위장 잠입 목적을 떠올렸다. 먼저 자결한 최경희의 직위만큼 높은 계급을 지닌 왜장을 죽일 수만 있다면 다시없는 기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누가 직위가 높은지를 짐작으로 가려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때 축석루 아래 강가에 작은 바위 하나가 보였다. 순간 논개는 그 바위가 자신의 목적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직감했다. 유인책을 쓰자는 생각이었다. 미끼를 향해 달려들도록 꾀를 짜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탓에 그 바위 면은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드러나 있었다. 남강은 범람을 그치긴 했으나 아직도 시뻘건 황톳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무섭게 흐르고 있었다. 논개는 매우 위험한 모험에 도전했다. 자신이 바위 위에 올라가 미끼 노릇을 할 때 어떤 왜장이 걸려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떠한 도리어 능멸을 당할지도 모른다.

왜장들은 벌써 거나하게 술기가 올라 있었고, 병사들도 술에 취한 모습들이었다. 논개는 아주 천천히 마치 산보하듯이 강가를 거닐기 시작했다. 축석루에 올라간 관기들은 몹시 두려워서 주저하다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논개는 강가를 거닐다 말고 강물 저만치 안쪽에 끝부분만 드러나 있는 바위를 바라보았다. 위암(危巖)이란 바위였다. 물에서 위암까지는 어

른 팔로 한 발은 뒹직한 거리였다. 그때 축석루 위 남쪽 난간에 기대어 앉아서 술을 마시던 왜장 하나가 아래쪽 강기슭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고 거닐고 있는 논개를 발견하고는 저 여자를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지 내기를 걸자고 했다. 그러자 축석루 위에 있던 왜장들은 일제히 강가에 서 있는 흰 모시옷을 입은 여인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다른 관기들도 그쪽으로 눈길을 주었지만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논개는 자신의 계획이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이제 남은 것은 왜장을 유인하는 일이었다. 논개는 물속의 위암에 다시 눈길을 주었다. 좋은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다. 위암 사방은 물길이 무섭게 휘감고 돌아 다시없는 죽음의 자리였다.

논개는 신을 벗어 들고 힘껏 뛰어 위암 위로 올라섰다. 그러자 축석루 위에 왜장들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다. 논개는 짐짓 축석루 쪽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띤 채 서 있다가 다시 옆모습을 보이면서 우수에 찬 얼굴로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최경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나간 19년의 세월 모두가 최경희의 사랑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 여겨졌다.

그때 왜장 하나가 어느새 달려 내려와 논개를 향해 뭐라고 지껄었다. 논개는 사내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왜장은 당당한 체구였다. 계속 뭐라고 지껄였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건장한 체구의 왜장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짓을 해대는 것으로 보서는 논개더러 물으로 나오라는 시늉 같았다. 그러자 논개가 조금 더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도리어 왜장 더러 위암 쪽으로 건너오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축석루 위에서는 왜장들이 함성을 지르며 웃어댔다. 왜장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논개는 계속 손짓을 했다. 강아지를 부르는 시늉의 손짓이었다. 마침내 왜장이 성큼 위암으로 건너뛰었다. 한쪽 발이 바위에 닿자마자 논개를 덥석 껴안았다. 왜장은 논개를 다시 껴안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논개는 왜장에게 안긴 채 왜장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왜장은 싱글벙글 웃었다. 논개의 두 팔이 왜장의 허리를 살며시 휘감았다. 왜장은 몹시 만족한 듯 논개에게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논개는 왜장의 허리



뒤로 돌려진 손끝으로 양손에 끼워진 옥가락지를 확인한 다음 각지를 딱 꺾다. 앞으로 슬쩍 왜장을 잡아 당겨 보았다. 왜장의 몸이 기우뚱거렸다. 왜장은 몹시 기분이 좋은 모양으로 논개가 잡아끄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축석루 위에서는 계속하여 함성이 터져 나왔다.

논개는 숨을 몰아쉬면서 위암 끝에 섰다. 한 번 더 최경회를 떠올렸다. 살아서 함께 못다 한 사랑이 목을 찢렸다. 또한 폭우 아래 무너지는 흙 담처럼 죽어 가던 민중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다. 순간 두 손에 혼신의 힘을 주면서 왜장을 껴안고 강물 쪽으로 힘껏 떠밀었다. 왜장의 비명과 축석루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던 왜장들의 비명이 들린 것은 같은 순간이었다. 남강 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흘렀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게야무라 로쿠스케였다.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죽음은 뜻밖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왜군들은 그동안 진주성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그로 인한 전력의 약화로 사실상 호남 공략이라는 최대 목적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만 셈이었다. 결국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

시켜야만 한다는 호남 의병들의 당찬 의지는 수많은 죽으로써 달성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진주성전투가 있었기에 왜적의 침략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남방의 보급기지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다.

죽음에 입 맞춘 논개의 의거는 민족적 결단이었다. 그의 죽음은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깊은 울분과 회한에 싸여 있던 모든 민중들의 강렬한 저항의식을 드높였다. 논개가 왜장을 살해한 행위는 민족의 울분을 가시게 한 순국의 여인에 대한 민족적 감정으로 확산·승화되었다. 그리하여 진주 사람들은 논개의 의거 현장이자 순국의 성소(聖所)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의 성지(聖地)인 '위암'에 '의암'(義巖)이라 새겨, 시간을 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 곁에 '의암사적비'를 세워 논개를 가슴속의 영원한 애인으로 삼았다.

스스로가 창기(娼妓)로서 받아야 할 수모와 모멸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반외세 조국 전쟁의 신성한 목적에 복무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한 근대적·혁명적인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논개'라 부른다.¹⁴⁾

5. 주논개의 묘소

한편 진주성 함락을 전후로 성을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전라도 의병들의 수는 이 전투의 참담함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최경희와 함께 진주성으로 들어온 의병은 800명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0명 정도밖에 안되었다. 최경희와 함께 온 의병들은 대부분 화순과 능주, 그리고 장수가 고향인 청년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최경희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최후까지 그의 곁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가장 큰 희생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그의 의병들은 다른 의병장 휘하의 의병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히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최경희가 자결하

14) 정동주, 앞의 책.

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의병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으로 최후를 맞았다. 그 의병 가운데 장수 출신들은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가 지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최경희가 자결하던 날의 남강은 열흘이 넘게 계속된 폭우로 범람했다. 수많은 시체들이 격랑 치는 강물에 떠밀려 갔다. 살아남은 80여명의 의병들은 경계심이 다소 늦춰질 때까지 몸을 숨겨야만 했다. 왜적들은 성 함락 후 다시 진주 외곽지대의 초토화에 나섰고 그 며칠 후인 7월 초순 논개가 왜장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진주는 물론 진주에서 100여리 밖에까지 순식간에 퍼졌다.

다시 그 며칠 후 왜적들은 울산과 부산 쪽으로 완전히 철수했다. 논개의 죽음은 물러가는 왜적들을 숨어서 지켜보는 진주 사람들 가슴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논개가 조선을 건졌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진주 외곽지대에서 숨어 지내던 최경희의 의병들은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진주에서 동쪽으로 3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남강의 한 물굽이에 수백구도 넘는 시체들이 떠밀려와 쌓여 있다는 소문이었다.

의병들은 서둘렀다. 진주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남강 기슭을 따라 내려가면서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강을 따라가면서 소문으로 들은 그 시체가 쌓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계속 묻다가 문산에서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냈다. ‘지수(智水)목’이라는 곳이라고 했다. 의병들이 지수목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은 시체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남강이 굽이쳐 흘러 내려오다가 지수목이라는 곳에 이르러 직각으로 휘어졌다. 남강은 지수목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이거나 짧지만 직선으로도 흐르면서 들관과 계곡을 지나다가 지수목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각을 이루었다. 바로 그 직각을 이루면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꼭지점 부분이 안쪽으로 넓게 열려 있었다.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거대한 자루의 아가리를 그 꼭지점 부근에다 갖다 대고, 자루 안에는 물고기가 꼭 차 있는 형상이었다. 그 곳을 지수목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가로 세로가 2킬로미터 되는 높이였다. 그 높은 남강보다 지면이 낮았

다. 따라서 지수목에 이르기 전 남강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직선으로 흐르는데, 범람한 남강이 직선으로 곧장 흘러오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물길이 꺾이는 곳에서 오른쪽의 거대한 늪 쪽으로 물길이 쏠리게 되어 있었다.

지수목은 대곡면·진성면·사봉면 세 지역의 경계지점이기도 했다. 특히 시체나 통나무 등 무게를 지닌 물체들은 직각으로 꺾이는 그 지점에서는 예외 없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지수목의 늪으로 빨려드는 것이었다.

의병들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부터 떠내려 오기 시작한 시체들은 밀리고 쌓이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진동했다. 호남 의병들은 후회했다. 빨리 이곳으로 와서 최경희와 논개의 시신을 수습해야 도리였다는 것을 아프게 뉘우쳤다. 두 사람의 시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주었다. 진주성이 함락된 이틀 뒤 호남 의병 몇 명이 이곳으로 와서 한 의병장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기슭에다 무덤을 짓지 않고 평장(平葬)을 해 두었다던데 그 시신이 진주병사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진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여자의 시신을 건져 역시 평장을 했다는 것이었다.

의병들은 평장을 해둔 두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먼저 가 매장해둔 것은 최경희였고, 뒤의 것은 논개임이 확인되었다. 의병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관 두개를 맞추어 짚다. 의병들은 서둘렀다. 일단 장수까지 운구해 가자는 목표를 세웠다. 지수에서 의령쪽으로 건너 안의까지는 약 80킬로미터 거리였다. 관을 메고 걷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 밤낮이나 이틀 가량 걸리는 길이다. 뛰지 않고 가면서 묘소 문제를 의논했다. 최경희의 시신을 떠메고 화순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그리하여 우선 논개와 한곳에 매장해 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 이장을 해도 좋으리라는 데 뜻이 모아졌다.

그러자 논개의 묘지도 문제가 되었다. 장수에는 묘소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의논하던 끝에 논개의 묘지로 최종 결론이 난 곳은 논개의 선조들이 살았고 지금

도 일족들이 많은 함양군 서상면 방지 부근이었다. 안의에서 서상까지는 다시 16킬로미터 거리다. 의병들은 함양 서상까지 와서 방지마을이 바다다 보이는 양지쪽 산비탈에다 두 사람의 묘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¹⁵⁾

6. 주논개 순국(殉國)의 역사적 평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숭한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죽음이 자발적이었던지, 아니면 타율적이었던지 간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임진왜란 당시 그 많은 죽음 중에서도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인물은 해전의 영웅 이순신과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장을 꺼안고 죽은 논개(論介)일 것이다.

우리가 논개의 죽음을 의·열(義·烈)로 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논개가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여러 장수들이 죽음을 택한 것은 그들이 국은(國恩)을 두터이 입어 왔던 사대부들이었으므로 국난을 당하여 살신보국(殺身保國)함은 봉건사회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논개는 6만여 성민의 학살 현장에서 가녀린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던졌을 뿐 아니라 이웃과 겨레의 원수였던 왜장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죽음을 기릴 수 있는 것이다.

계사년 칠월칠석 축석루에서 승전에 도취한 왜장들이 아리뭇고 가냘프기만 했던 한 여인에 의하여 왜군이 가장 용맹한 선봉장을 잃어버린 왜군은 사기가 꺾이어 전의를 잃어 버린데다 2차 진주성을 지킨 장수들이 한결같이 호남 출신 장수이므로 호남 지방민의 투철한 호국정신에 미리 겁을 먹고 호남지방 침공을 포기하고 부산진으로 병력을 후퇴시키고 임진왜란이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국난을 당하여 살신보국(殺身保國)함은 봉건사회의 신하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

15) 정동주, 앞의 책.

이다. 하지만 논개는 6만여 성민의 학살 현장에서 선봉에선 관군이나 의병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전쟁에 깊이 관여 하였고,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죽음에 초연하여 왜장을 살해하였다. 임금이나 아버지 혹은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여 그냥 따라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살아남은 사람을 위한 최대한의 적극적인 인간적 노력이 부과될 때,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가치 있는 삶이 될 뿐 아니라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다.

물론 천하에 가장 흉한 일로서 자살 하는 것 보다 더 큰 일이 없으며, 또한 자살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의리에 입각한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 자신의 몸을 죽여야 한다면 당연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호랑이나 도적에게 핍박당할 무렵 아내가 뒤따라 호위하다가 죽으면 열부(烈婦)이다. 또한 흉악한 사람이 음탕한 사람에게 핍박당하여 억지로 몸이 더러워질 경우에 굴복하지 않고 죽어도 열부이다. 하지만 삶에 대한 지식 없이 죽음을 너무 가벼이 여겨 쉽게 생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리정신(義理情神)에 투철한 행위야말로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개의 죽음이야말로 의리정신에 투철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죽음에 초연했기 때문에 자살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장을 죽임으로서 복수할 것을 마음에 품었을 것이다. 이것이 삶에 대한 투철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신의 최선의 행위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유몽인(柳夢寅)은 어우야담(於于野談)의 인륜편(人倫篇)에서 논개를 관기의 신분인데도 효열(孝烈)의 항목에다 기록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정을 기리고 있다.

논개의 의리정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불의에 철저히 죽음으로 대항하여 임의적인 폭력성에 저항함으로써 그러한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 좋은 본보기이다.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왜장과 함께 몸을 바쳐 순국한 의리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민족정기의 회복과 국민정신교육의 계도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논개는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오히려 죽지 않고 역사 속에

다시 부활하여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족의 혼을 드높인 충절(忠節)의 표상(表象)으로 많은 국민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논개야 말로 죽었으되 죽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버렸으되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승리의 삶을 산 의인(義人)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16)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회, 앞의 책.

의암 주논개 표준영정 공동제작

1. 표준영정 제작 경위

- 장수군과 진주시는 그 동안 의암사(장수군)와 의기사(전주시)에 봉안 되어왔던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논개영정이 친일화가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었는데
- 수년간 진주시 시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의기사에 봉안 되어있는 논개영정을 새로운 영정봉안으로 매듭지어 2005년 7월에 논개영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정을 일반 공모로 제작기로 한 바 있었으며
- 장수군에서도 2005년 5월 일부사회단체의 논개영정 교체 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영정을 봉안키 위하여 2005년 8월 표준영정 제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에 따라 양 시·군에서는 표준영정 공동제작에 합의하였다.

2. 표준영정 공동제작 실무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체구성

- 일 시 : 2005. 9. 27
- 구성인원 : 8명 (장수군 4, 진주시 4)

□ 실무협의회 추진내용

- 회의개최 : 7회
 - 2005년도 : 2회 — 2006년도 : 3회 — 2007년도 : 1회 — 2008년도 : 1회
- 추진사항
 - 표준영정현상공모
 - 1차심사 : 2006. 6. 30 (장수군청) · 접수 : 14점 · 우수작선정 : 5점
 - 2차심사 : 2006. 7. 13 (진주시청)
 - 당선작 : 윤여환(충남대 회화과교수) · 우수작 : 김범수(원광대 동양학과교수)
 - 장려작 : 권오창(동강공중회화연구소) 이길범(한국미협 자문위원)
 - 손연철(동국대 미술학과교수)

□ 표준영정제작 구매계약

- 계약일시 : 2006. 9. 11
- 계약자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309-702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윤여환
- 규격 : 110cm × 180cm
- 영정제작 : 3부 (심의본 1, 이모본 2)
 - 보관장소 — 심의본 : 국립진주박물관 — 이모본 : 장수의암사, 진주의기사

3. 문화관광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심의

- 심의회수 : 7회 — 2006년도 : 1회 — 2007년도 : 6회
- 심의결과 — 동상영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7. 12. 27. 14:00
- 정부표준영정지정
 - 근거 : 문화관광부 동상영정 심의규정 제4조
 - 지정내용·지정번호 : 79호 · 영정명 : 논개 · 규격 (가로×세로) : 110cm×180cm
 - 제작작가 : 윤여환 — 지정년월일 : 2008. 2. 4

4. 영정 작품 내용

논개영정의 얼굴은 신안 주씨(新安朱氏) 용모 유전인자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윤여환 교수는 2006년 1월부터 주논개(朱論介)의 얼굴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얼굴 연구소'에 의뢰해, 신안 주씨 여자의 얼굴 특징을 형질인류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논개의 생장지인 장수지역(장수읍과 함양군 서상면, 전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안주씨 문중을 촬영, 150여 군데의 얼굴을 계측 분석하여 신안 주씨가 가지고 있는 동일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추출해 내어 논개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얼굴 모형을 찾았다.

논개영정의 얼굴화장은 진수아미(螻首蛾眉)미용법으로 제작되었다. 이 화장법은 족집게를 이용한 ‘뿔눈 미용법’인데 고대 여인들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한 미용법으로, 진수아미는 넓고 네모반듯한 이마에 초승달 같은 눈썹인 여자 얼굴을 형용한 말로서, 오랫동안 이 미용법이 아름다운 여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고구려 벽화의 여인상 가락국가 김수로왕의 황후 허황옥 등과 조선 전기 하연부인상 운낭자상 등 조선여인들의 얼굴도 진수아미 미용을 한 경우가 많아 논개얼굴도 이 미용법을 따랐다.

논개영정의 머리모양 고증은 출토된 변수(1447~1524)묘 목각인형 주악상의 머리모양, 호조랑관계회도(戶曹郎官契繪圖, 1550년경)와 관련서적 등을 참조하여 재현하였다.

논개영정의 복식은 출토된 당시 의상과 출토 목각인형 그리고 당시에 제작된 그림을 참고로 ‘고전복식전문연구소’에 제작 의뢰해 3차례의 논개의상 제작과 가체머리 고증 및 재현 등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치는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논개영정 의상문양은 당시 유행하던 문양인 연화만초문사(蓮花蔓草紋紗)인데 안동 김씨 묘(1560년대)와 변수(1447~1524)묘 출토복식을 참조하여 제작되었다. 복식은 거사일이 하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여름복식으로 하였다.

논개영정의 옥가락지 고증은 “왜장을 유인하여 열손가락에 힘을 다해 함께 강에 투신했다”는 내용의 여러 고문헌 관련기록들을 참고하였다.

논개영정의 표현기법은 조선시대 전통영정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비단(畫絹)이라는 독특한 재질을 살려내는 배채법(背彩法)과 육리문법(肉理紋法)등을 활용하여, 얼굴표정에서 배어나는 전신사조(傳神寫照)와 정치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잘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개영정의 표정과 자세는 의기에 찬 모습으로 열가락지를 끼고 투신순국을 위해 왜장(毛谷村六助)을 향해 가려고 하는 자세로 설정했고 가로 110cm, 세로 180cm 크기의 비단에 천연 채색한 전신입상으로 제작되었다.

◆ 논개국가표준영정 제79호 ◆



의암 주논개 사적지와 추모 및 선양행사

□ 사적지

1626년(인조 3) 이후 진주의 선비 정대룡은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1722년(경종 2) 진주에서는 명암 정식(明菴 鄭式)이 지은 비문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웠다.

1739년(영조 16)경상우병사 남덕하는 왕의 윤허를 받아 진주에 「의기사(義妓祠)」를 창건하고 「의기논개지위(義妓論介之位)」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의암사적비」에는 비각을 건립하여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의 현판을 게시하였다.

1779년(정조 3)경상우병사 홍화보는 「의기사」를 보수하였고, 1823년(순조 23)진주 목사 홍백순은 재건하였으며, 1868년(고종 5년)진주목사 정현석은 이를 보수하고 「의암별제(義巖別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매년 5월에 진주논개제와 의기사에서는 매년 음력 6월 그믐 ‘논개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1846년(현종 12)당시 현감 정주석이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논개가 자라난 고장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비문을 짓고, 그의 아들이 글을 쓴 논개생향비(論介生鄉碑)를 건립하였다.

1956년 ‘논개사당(의암사:義巖祠)’을 건립할 때 땅속에 묻혀있던 임시로 세워 둔 논개생향비를 의암사로 옮겨 놓았다. 비문에는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라고 쓰여 있다. 장수군에서는 매년 음력 9월 3일 논개를 추모하기 위한 제례봉행과 논개축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논개의 출생지로 알려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의 원래 생가지는 대곡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고, 논개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렸던 곳으로 전해지는 바로 위쪽을 2000년에 생가지로 복원하였다.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에 있는 논개묘소는 1989년에 함양군의 논개묘역 성역화 사업으로 봉분을 다시 만들고 비석을 세우며 주위를 정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였고 매년 음력 7월 7일에 유림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최경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3년에 준공한 충의사(忠義祠) 내에는 논개의 영정을 모신 의암영각(義巖影閣)이 세워져 후세를 위한 충효 교육의 도장으로 삼고 있다.

□ 추모 및 선양행사

1. 법인설립

○ 설립취지

임진왜란을 당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의암 주논개의 애국충절은 해와 별처럼 빛났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임의 거룩한 절의는 우리의 가슴속 깊이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었다. 임이 태어나 자란 장수군에서는 6만 5천 여 명의 논개사당을 대대적으로 정화, 공원화 하였고 생가 이전 공사도 2000년 9월 29일에 준공되었다. 이는 3만 장수군민과 님을 사랑하는 온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보람 있는 일로 우리군민은 님의 거룩한 얼을 기리고 논개사(論介史)를 정립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를 설립 하였다.

○ 법인창립총회

- 일 시 : 2000. 6. 27. 11:00
- 장 소 : 서울 웨라톤위커킬 선플라워룸
- 참석인원 : 82명
- 안 건 :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창립

○ 사단법인 설립허가

- 법인명칭 :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번지
- 대표자 : 장명수
- 허가일자 : 2000. 9. 18
- 설립목적 : 의암주논개의 충절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민 정신 함양 기여

○ 역대회장

- 제1대 : 장명수(2000. 9. 19 ~ 2003. 7. 28)
 김진영(2003. 7. 28 ~ 2004. 9. 19)
- 제2대 : 김진영(2004. 9. 19 ~ 2008. 9. 18)
- 제3대 : 양해도(2008. 9. 18 ~ 현재)

○ 임원현황

- 회원수 : 125명
- 회 장 : 양해도
- 부 회 장 : 한병태, 장관빈
- 이 사 : 최재근, 이인화, 유금선, 윤경호, 육동수, 장문엽, 김명수,
 박성근, 조질성, 강태순, 김대중, 황병현, 최봉선, 박용덕,
 양기홍, 김일한, 주장식
- 감 사 : 김순홍, 이종관
- 사무국장 : 류정석

2. 의암 주논개 축제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침으로서 구국의 살신정신을 몸소 실천한 한국여인이다. 한국의 얼을 대변해 주는 역사의 귀감이 된 정신적 지주로서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고, 애향심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1967년, 논개님 탄신일인 음력 9월 3일을 장수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논개제'를 지냈다. 처음은 장수군청 주관으로 1992년까지 추진하다가 1993년부터는 장수문화원 주관으로 의암주논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까지 진행하였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 매년 음력 9월 3일을 전후 장수군민의 날과 같이 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탄신일 전날에는 군민체육대회와 전야제 행사를, 당일에는 논개사당 영정각에서 논개 제례봉행을 시작으로 하여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논개사당과 의암공원에서 실시한다.

주논개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에 주논개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으나 미인보다는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의 여론에 의하여 기존의 미인위주의 선발대회 형식을 벗어나 2007년도부터 '의암 주논개상(朱論介像)'을 추대하게 되었다.

□ 의암 주논개상(朱論介像) 추대

□ 의암 주논개상(朱論介像) 수상자 선정

- 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자 격

-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여성
-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어 주위에서 존경받고 있는 자
-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사회활동에 적극앞장선 자
- 가족관계에 있어 사회에 물의가 없는 자

◇ 홍 보

- 전국 시·군·구청 및 각 사회단체에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발송

◇ 후보자 추천

- 읍면동장 이상의 기관장
- 각 여성단체와 기관단체
- 후보자 거주지역 주민 20명 이상이 날인한 자

◇ 추천기간 : 20일간

◇ 후보자 접수 장소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사무국
- 전 화 : (063) 351-6400

◇ 구비서류

-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명함판 사진 3매
- 기타실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 위원 : 위원장 포함 9인 이내

◇ 심사 및 선발

- .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대 상 : 추천접수된 후보자 전원
 - 방 법 : 후보자 공적에 대한 지역주민 현지 실사
- . 2차
 - 대 상 : 후보자 전원
 - 방 법 : 1차 현지실사 등을 참고하여 수상자 1명 선발

□ 추대식 행사

◇ 시 상

- . 일 시 : 의암주논개축제 행사일
- . 장 소 : 축제 행사장
- . 인 원 : 1명
- . 상 금 : 1,000만원

◇ 행 사 : 논개관련 축하행사

제1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07. 10. 13)

□ 인적사항

성 명	성계옥(成季玉)	생년월일	1927. 4. 19
주 소	경남 진주시 판문동 469-5		
직 업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1944. 3.20	일본동경 성교통신여학교 졸업	1979. 4.15	경남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1987. 2.25	고려대 대학원 한문교육과 수료	1986(현)	(사)진주민속예술 보존회 이사장
1978. 6.20	중요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	2006. 5	의암별제지 책 발간

○ 포상기록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1987. 4. 1	진주시문화상 수상	1985.12.30	전통문화발전시장 감사패
1993. 3.17	경남부산지역 향토문화상 수상	1986.12.31	체육부장관상 수상
1988.10.26	전통예술보존시장 감사패	1988.10.27	진주시장감사패 수상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을 무형문화 유산보전에 기여 · 의암별제를 복원 15년간 보존 전승 · 국가 주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 · 진주 민속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함
--

제2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08. 10. 1)

□ 인적사항

성명	이화성(李花城)	생년월일	1939. 8. 18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7번지 SK뷰 아파트 101동 1103호		
직업	호남대학교 이사장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79. 3~81.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2006. 4.24	우주베키스탄교육학 명예박사
1996.12. 8	미국요크대학법학 명예박사 취득	(현)	한국부인회광주시지부 이사장
2004. 3. 1	중국문화대학 철학명예박사 취득	(현)	21세기 여성발전 위원회 회장

○ 포상기록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1993. 3.17	동탑산업훈장	1995.11. 4	유통경영대상 본상 수상
2001.12.12	장한무궁화어머니 대상	1997.11. 4	대한적십자총재상 수상
2003. 7. 4	국민훈장 동백장	2006.12.26	자랑스런한국인 대상 수상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업체운영. 재원바탕 현 호남대학을 설립 육성사업 실시 · 일간신문(광남일보)창간 - 아시아 최초 여성발행인 · 광주, 전남 각급 여성단체 및 봉사단체 임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 · 현 사회여성의 귀감이 되고 있는 훌륭한 분임 · 능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전남, 광주시 지역 발전에 헌신

제3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09. 10. 20)

□ 인적사항

성명	공정자(孔貞子)	생년월일	1940. 8. 27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아파트 612동 2601호		
직업	남서울대학교 총장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1960. 3	서울세종대학교 사범대학원 수료	1996. 8	고려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명예박사
2001. 3	미국베다니 신학대학 철학명예박사 취득	(현)	남서울대 3대총장 및 진형중·고 이사장
2007. 2	전국 사립산업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	(현)	스카우트 충남연맹 회장

○ 포상기록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2005. 9	세계평화교육자상	1967. 8	교사연구대회 특선상 수상
2005.10	한국대학 사회봉사대상	1997.12	대한적십자 총재상 수상
2006. 6	대한적십자사봉사 금장수상	2007.11	한국대학 신문대상 수상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수도학원운영, 재원바탕 현남서울대학설립 인재육성사업 실시 · 서울 진형중·고등학교설립 - 불우학생 750명 인재육성 · 중국 북경대학 의학부 교수로 활동 - 국제교류통한 실력 향상 기여 ·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천안·아산회 이사로 15세대 보금자리 지원 · 중국 및 5개국 교류협약 등 한국참사랑의 열린교육, 사회교육개척자 · 주논개님의 얼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

제4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10. 10. 10)

□ 인적사항

성명	조금숙(趙今淑)	생년월일	1937. 1. 23
주소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거산항공 A 101/804		
직업	광복회전라북도지부장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1957. 2.28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2006. 3	통일교육전문위원
1995. 8.20	원광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2002. 2	한국통일여성전북지부 초대회장 역임
1992. 9	교직 45년간 근무 (교육장 2년)	2009.10	세계평화여성포럼 전북회장

○ 포상기록

년월일	경력	년월일	경력
1990. 5	모범교원 총리상	2000. 8	국민훈장 동백장
1995.12	전북의 별 3회 수상	2010. 4	새만금유공 대통령 표창
1999.10	자랑스런 전북인상	2000~현재	감사패 257회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년 외길인생 장인정신으로 교직생활 후학 육성 기여 · 의암주논개님 일대기 무용예술 승화 - 충절무 기획, 감독 · 전북 여성의 대모역할로 권익신장 및 논개님 정신선양에 앞장 · 각종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운동에 참여 1,804세대 520만원 지원 · 의암주논개님 충절의 고장 장수지역에 실천적 봉사 (농축산물 판매) · 전북지역 경제 살리기 공동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국여성대상 의암주논개님의 인품과 향기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

제5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11. 9. 29)

□ 인적사항

성 명	안숙선(安淑善)	생 년 월 일	1949. 9. 5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362-6		
직 업	국악인, 대학교수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1998-1999	국립창극단장, 예술감독	2000-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교수
2000-2005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2004-2009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 포상기록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1986	남원춘향제 전국명창경 연대회 대통령상	2006	제2회 허규예술상
1998	프랑스문화부 예술문화훈장	2008	대한민국 국회대상(국악부문)
1999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2008	제18대 동리대상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 : 강순영선생께 가야금 산조사사, 소리입문 · 1970년대 :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춘향가, 사사 · 1997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예능보유자 지정 · 1981 - 현재 :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순회공연 · 2008 : 창작관소리 '논개가' 작창 및 보급활동 · 지역사회도서기증,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홍보대사, 문화예술소외지역 순회공연, 예술종합학교 장학사업 등 사회봉사활동에 앞장
--

제6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12. 10. 17)

□ 인적사항

성 명	이금형(李錦炯)	생 년 월 일	1958. 2. 14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170번지		
직 업	광주지방경찰청장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1977. 3.10	대성여자고등학교 졸업	2000. 1	경찰청 과학수사계 계장
2002. 2.28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10. 5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2008. 3. 1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 박사	2011.10	광주지방경찰청장

○ 포상기록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2003.12	국가인권위원장상		
2009.11	올해의 여성상 수상		
2012.10	제6회 의암주논개상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경찰창설 66년만에 여경창설최초의 여성 치안감 탄생 · 전국 16개시도 병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설치 운영 · 11년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인화학교 사태해결로 전국민 의혹해소 · 모성리더십발휘 치안정책 시행으로 전국교통 사망사고 감소1위 달성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 적극추진 · 사기·횡령·배임 등 전문 수사팀 구성 운영으로 72건 80명 검거 성과 거양 · 112 신고처리 관련 선 지령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신소관 범죄자 검거 효과

제7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13. 10. 7)

□ 인적사항

성 명	이명숙(李明淑)	생년월일	1963. 4. 30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번지 아크로비스타 C동 1903호		
직 업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월일	경 력	년월일	경 력
2008. 2	이화여대 법과대학 졸업(박사)	2012. 4 - 현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조정위원
2013. 4-현재	경찰청 4대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	2013. 4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2004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기획위원	1990 - 현재	KBS, MBC, SBS, EBS 등 방송 및 언론사 법률자문

○ 포상기록

년월일	경 력	년월일	경 력
2004	남녀평등 방송상	2011	감사장(서울가정법원)
2006	공로상(경찰청장)	2012	여성인권 유공변호인상
2009	서울시 여성상(서울시장)	2012	감사장(대한의사협회)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11 : 제 29회 사법고시 합격 · 1990. 2 : 서울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사무실개업 · 1997.11 : KBS, 라디오 이명숙변호사의 가정법원 설치 및 진행 · 1999. 1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로 운영 · 2001~2008 : 여성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 2007. 1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 2009. :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본 수차례방문 활동 · 2013. 7 : 국무조정실 아동정책 자문위원 활동 등 공익소송무료로 수행

제8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추대일시 : 2014. 9. 26)

□ 인적사항

성 명	이호균(李好均)	생년월일	1950. 3. 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91 남가좌 삼성 114동 202호		
직 업	아동 행복포럼 고문		

□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 경력

년월일	경 력	년월일	경 력
1974. 2	이화여대 사범대학졸업	1975-1991	월드비전근무행정국차장
1975. 3	일본국제기독교대학원 수학	1991-2001	굿네이 버스근무
2001. 8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1-200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2009-2011	굿네이버스 부회장
2010.12	일본사회사업대 논문박사	2012-201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장

○ 포상기록

년월일	경 력	년월일	경 력
2004. 5	올해의 이화인상 수상	2007.11	꿈나무상 수상
2006. 7	이달의 복지인상 수상	2009. 5	국민포장 수상 (대한민국정부)
2006.11	감사장 수상(경찰청)		

□ 공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5월부터 월드비전에서 빈곤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업에 종사. · 1991~2012년 네이버스를 창립, 전세계 32개국의 빈곤아동과 가정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엔지오로 성장하는데 기여. · 2001~2008년 2월까지 중앙아동전문기관장으로서 아동보호사업의 초석을 놓았음. · 2012~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50여명의 옴브즈퍼슨을 위촉하여 아동권리관이 한해 만여명의 학대로 고통을 받는 아동과 가정의회복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초석을 놓았음. · 2007년부터 한일간 아동학대방지법 연구회 한국측 연구자로서 활동. · 현재 아동포럼고문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
--

3. 학술세미나

-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논개(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정신(忠節精神)
 - 일시 : 1996. 11. 15. 13:00~17:00
 - 장소 : 장수군민회관
 - 주최 : 장수문화원
 - 주제 및 발표자
 - 논개의 출생에 관하여 : 고두영(시인, 장수문학회장)
 - 논개의 가계 : 최병윤(전북대학교 교수)
 - 문헌에 나타난 논개 : 오병무(순천대학교 교수)
 - 시문에 나타난 논개의 생애 : 박기정(시조시인, 한문학자)
 - 구비문학에 나타난 논개 : 임재용(순천대학교 교수)

- 의암 주논개정신 계승을 위한 토론회
“논개정신 어떻게 계승 할 것인가”
 - 일시 : 1999. 11. 29. 15:00
 - 장소 : 장수군민회관
 - 주최 : 장수문화원, 전북일보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주관 : (주)문화예술기획「개마」
 - 주제 및 발표자
 - 논개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동주(작가)
 - 논개정신 어떻게 계승 할 것인가 : 오병무(순천대 교수)

- 의암 주논개 탄신 427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장수지역과 임진. 정유왜란
 - 일시 : 2001. 11. 23. 13:30
 - 장소 : 장수군민회관
 - 주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제 및 발표자
 - 충절정신이란 : 임병진(전북대학교 교수)
 - 「쇄미록」을 통해 본 임진왜란 전후 장수현의 상황 : 전경목(전북대학예사)
 - 임란시 조선 여인들의 절의 : 유종국(정인대 교수)
 - 임진. 정유왜란과 장수 여인들의 충절 : 오병무(순천대 교수)

- 논개정신 선양사업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일시 : 2014. 8. 2. 16:00
 - 장소 : 타코마 장수촌
 - 주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 발전협의회
 - 주관 : 한국문화 교육개발원, 한국문인협회 장수지부
 - 후원 : 장수군청, 장수군의회, 장수문화원
 - 주제 및 발표자
 - 임난 의병과 논개의 의(義) 정신 고찰 : 나종우(원광대 명예교수)
 - 동서문학 교류를 위한 길터기 : 이기철(영남대 명예교수)
 - 동서 시문학의 증진 방안 : 송하진(우석대 명예교수)
 - 현대적 감각의 논개정신 선양 방안 : 박광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시 낭송을 통한 논개정신 보급화 방안 : 류명희(전주대 객원 교수)

4. 의암 주논개 추모 무용 경연대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배 논개추모 전국 학생 무용 경연대회

- 기 간 : 1999년~2005년(7회)
- 장 소 : 장계 백화여고 강당
- 주 최 : 전라북도교육청.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 관 : 장수교육청. 미래농촌장수군여성회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 재학생
- 경연종목 : 독무, 군무
- 규정 종목 구성을 위한 의암 주논개의 일생
 - 논개의 어린시절
 - 아버지의 죽음
 - 민며느리로 팔리다.
 - 최경희 장군과 만남
 - 임진왜란
 - 논개의 거룩한 죽음

○ 의암 주논개 추모 전국 일반부 무용 경연대회

- 기 간 : 2000년~2002년(3회)
- 장 소 : 장계 백화여고 강당
- 주 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 관 : 장계청년회의소
- 참가자격 : 전국 일반부 남.여
- 경연종목 : 독무, 군무
- 규정 종목 구성을 위한 의암주논개의 일생

- 논개의 어린시절
- 아버지의 죽음
- 민며느리로 팔리다.
- 최경희 장군과 만남
- 임진왜란
- 논개의 거룩한 죽음

○ 주논개 총절무 공연

- 기 간 : 2001년~2010년(10회)
- 장 소 : 의암공원 야외무대
- 주 최 :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 관 : 미래농촌 장수군 여성회
- 내 용
 - 논개의 어린시절, 삼절의 풍경, 사모우 논개와 최경희의 만남, 임진왜란 발발, 전승축하 연회무, 불멸의 민족혼, 아! 그리운 논개

5. 책자 발간

○ 논개의 생애와 총절

- 발 행 : 1997. 1. 10
- 발 행 처 : 장수문화원
- 발간부수 : 1,000부

○ 논개실기

- 발 행 : 2001. 5. 28

- 발 행 처 : 장수문화원
- 편 저 자 : 오병무(순천대 교수)
- 발간부수 : 1,000부

- 장수지역과 임진.정유왜란
 - 발 행 : 2001. 11. 23
 - 발 행 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발간부수 : 1,000부

- 이애미 주논개
 - 발 행
 - 초판 : 1997. 3. 15
 - 재판 : 2001. 5. 1
 - 삼판 : 2007. 7. 1
 - 지 은 이 : 고두영
 - 발 행 처 : 장수문화원
 - 발간부수 : 3,000부

- 만화로 본 의암주논개 이야기
“나라를 빛낸 논개”
 - 발 행
 - 초판 : 2001. 8. 31
 - 재판 : 2005. 4. 10
 - 삼판 : 2008. 4. 5
 - 그 림 : 최병용

- 발 행 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발간부수 : 17,900부
 - 배 부 처 : 전국 초.중.고 및 도서관, 군내 기관단체
- 주논개 추모 시선집
- 발 행 : 2008. 5. 26
 - 편 저 자 : 고두영
 - 발 행 처 : 장수문화원
 - 발간부수 : 1,000부
- 길따라 찾아가는 의암주논개의 발자취
- 발 행
 - 초판 : 2011. 7. 10
 - 재판 : 2014. 9. 20
 - 발 행 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발간부수 : 2,000부
- 의암 논개관련 관광홍보용 팸플릿
- 발 행 : 2009. 2. 1
 - 발 행 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발간부수 : 25,000부

6. 논개판소리

○ 창작판소리 「논개」 음반 제작

· 목 적

- 주논개님의 충절을 우리 전통문화 양식인 판소리 「논개」로 창작하여 삼절의 절의를 지켜온 장수문화관광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고
- 창작판소리 「충절의 여인 - 논개」의 제작 보급과 관련하여 음반작업과 뮤지컬 창극 「논개」의 제작으로 재 생산
- 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이 창을 맡아 소리를 구성하고 최고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여 음반으로 제작

· 창작판소리 「논개」완창 : 3시간

· 창작판소리 음반 제작 : 2,000세트

· 사업기간 : 2007. 8. 1 ~ 2008. 11. 30

○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

· 기 간 : 2010년 ~ 2014년(5회)

· 장 소 : 한누리전당

· 주 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 관 : (사)한국판소리보존회장수지부

· 경연종목

- 판소리(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5바탕 중)
- 논개판소리(논개가)

· 참가자격

- 일반부 : 만18세 이상 전국 남.여(대학생 포함)
- 신인부 : 만18세 이상 전국 남.여

— 학생부 : 전국 초.중.고 재학생

7. 장수의 의로운 꽃 뮤지컬 「논개」공연

· 목 적

우리 고장 장수에 우국충절의 대표적 인물인 주논개님의 정신과 얼을 오늘날에 되살려 민족혼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부활시켜 지역의 큰 자산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같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논개를 공연을 통해 만나고 친근함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게 함.

· 기 간 : 2009년 ~ 2010년(2회)

· 장 소 : 한누리전당

· 주 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주 관 : 장수초등학교

· 내 용

— 과거장수, 논개 아버지의 죽음, 도망, 장수관아, 최경희와 논개의 행적, 골자부대, 진주성, 최경희의 죽음, 의로운 꽃 남강에 지다.

8. 남강푸른물에 왜장을 껴안고 투신한 여인 창작오페라 「논개」공연

· 주 관 : (사)호남오페라단

· 내 용

— 오페라 「논개」는 감당키 어려운 국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논개의 숭고함 삶과 그 정신을 그린 작품.

- 1차
 - 기간 : 2006. 9. 15 ~ 9. 17
 - 장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2차
 - 기간 : 2007. 7. 12 ~ 7. 15
 - 장소 :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3차
 - 기간 : 2011. 7. 12 ~ 7. 15
 -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9. 아! 매웁다. 그 꽃잎 창극 「논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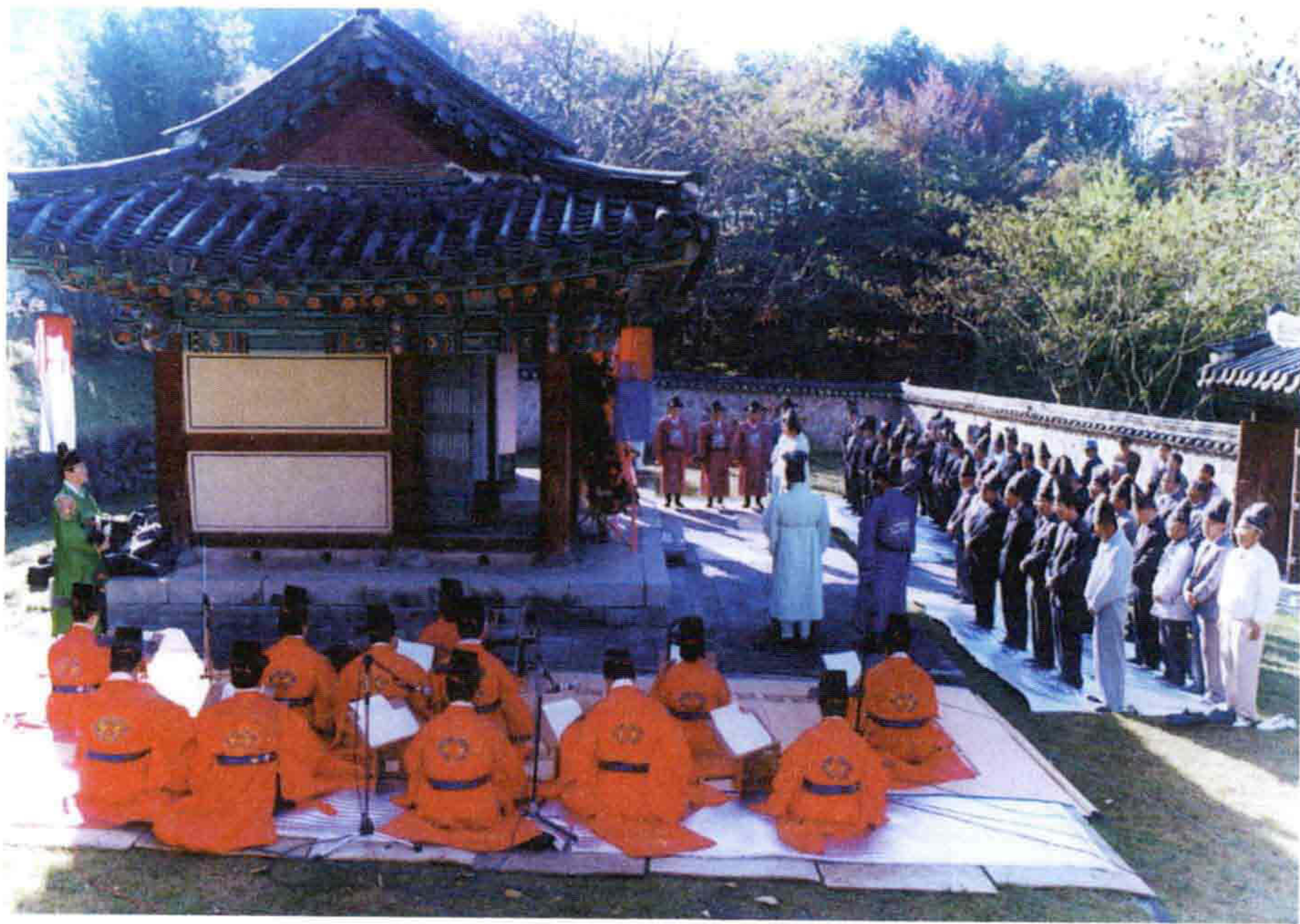
- 기 간 : 2001. 9. 29 ~ 10. 7
- 장 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주 최 : 국립극장, 조선일보사
- 협 찬 : (주)동양강철
- 내 용 : 인간 논개의 아름다운 용기를 그린 창극

10. 스물꽃 여인 탄타타 「논개」 공연

- 내 용(프로그램)
 - 논개의 탄생, 어린시절 논개, 성인 논개 아리아
 - 논개와 최경희의 혼례, 왜군의 침공과 최경희의 죽음, 논개의 죽음

- 대본 : 김천천, 작곡 : 한광희
- 1차
 - 일시 : 2011. 10. 25. 19:30
 -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 주최·주관 : (사)신세계 예술
- 2차
 - 일시 : 2014. 10. 25. 19:00
 - 장소 : 한누리전당 산디관
 - 주최 : (사)신세계 예술
 - 주관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제례봉행〉



〈기 념 식〉



〈등 불 행 렬〉



〈논개선발〉



〈전국노래자랑〉



〈주논개 생가지 행사〉



축제의 한마당



산촌문화축제



주논개 생가지 준공기념식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



제1회 추대자 : 성계옥 여사



제2회 추대자 : 이화성 여사



제3회 추대자 : 공정자 여사



제4회 추대자 : 조금숙 여사



제5회 추대자 : 안숙선 여사



제6회 추대자 : 이금형 여사



제7회 추대자 : 이명숙 여사



제8회 추대자 : 이호균 여사

〈학술 세미나〉



〈논개 판소리 전국경연대회〉



지역별 의암 주논개관련 유적지



장 수 지 역



장수군 소재지 전경

□ 의암 주논개사당(의암사)

- 지정 : 기념물 제46호
- 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3번지
- 규모 : 면적 28,274㎡



의암사는 장수현감 정주석이 주논개의 충절을 선양하고 장수태생임을 기리기 위하여 1846년 논개생장향수명비(生長鄉攄名碑)를 세운 후 1955년 군민들의 성금으로 남산에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1974년에 현 위치로 옮겼다. 경내에는 생장향수명비각, 기념관, 외삼문, 내삼문, 충의문, 영정각이 차례로 있다.

매년 음력 9월3일에 논개사당에서 제례를 지내며 의암주논개축제가 열리고 있다.

1. 의암사의 건립

1942년 11월 하순에 일제에 의하여 매몰되었던 논개 생장향 수명비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광명을 찾았으나 1950년 6.25전쟁은 또 한 번의 논개 수명비의 수난기가 되었다. 비각을 세우고 단청도 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세워진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 있는 이들의 여론에 의하여 논개 수명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그 비문에 근거하여 의암사 건립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1954년 3월 의암사 건립 발기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당시의 발기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성모(洪錫模)장수군수, 김정득(金正得)장수경찰서장, 김상근(金相根)장수교육장
조주환(曹周煥), 양종호(梁鐘浩) 지방 유지

이상 다섯 분은 의암사 건립을 합의하고 장수의암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1954년 10월에 발족을 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의암사당을 장수읍 남산에 신축하고 영정을 그려 봉안하고 매년 음력 7월 7석 날에 논개제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논개 일대기의 약사를 정립하게 하여 논개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토록 하였다.

이어서 논개 수명비도 다듬고 새로이 단청도 하여 사당근처인 장수읍 장수리 남동 19번 도로변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1954년 10월 19일에 의암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의암사 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이종현(李宗鉉) 부회장 조주환(曹周煥) 부회장 양종호(梁鐘浩)

고 문 에 김윤철(金允喆) 김문옥(金文沃) 김상근(金相根) 이재순(李在淳)
오명순(吳明淳)

상임이사 엄봉이(嚴鳳伊) 김종구(金鍾球) 이의학(李義學) 황중권(黃重權)
이용화(李龍和) 한창호(韓昌鎬) 최용성(崔容成) 홍종국(洪鍾國)
계명국(桂命國) 김형만(金炯萬) 최다순(崔多順) 빈순남(賓順男)
김명철(金明喆) 김원일(金元日) 정상균(鄭尙均) 유정희(柳程熙)
김재정(金裁政) 한용성(韓龍誠) 유인섭(柳寅燮) 김형식(金炯植)
유순도(柳淳道) 정인준(鄭仁俊) 유순형(柳淳亨) 장동호(張東昊)
이희진(李熙鎭) 빈장옥(賓長玉) 유동표(柳東杓) 이근우(李根雨)
장구현(張球鉉) 임길수(林吉洙)

상임감사 이재택(李在澤) 영정화사 김은호(金殷鎬) 건축편수 최동엽(崔東燁)
별공편수 송복동(宋福東) 단청수화사 이상길(李相吉)

이상과 같이 지방 유지들이 총동원되어 각기 맡은 부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사당 건립이 진행되었으며 작업을 시작한지 일 년여 만인 1956년에 장수읍 남산에 군민의 뜻에 따라 의암사란 이름으로 사당이 준공을 보게 되었고, 김은호 화백이 그린 논개의 영정도 국내 최초로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의암사 남쪽 두산저수지 가에는 의암사 사당 관리인 집 3칸을 마련하여 관리인이 상주하며 사당을 관리하였다.

의암사 제시는 처음 음력 7월 7석 날 논개 순국일을 기하여 지내오다가 19년 후인 1975년부터는 논개 탄신일인 음력 9월 9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각종 체육 문화행사 와 겸하여 논개제례를 지나도록 하였다.

그러다 1981년에 이르러 4갑술인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가 1574년 9월 9일

이 아닌 9월 3일임을 다시 확인하여 음력 9월 3일로 바로잡아 논개 제례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논개영정각을 군민의 뜻에 따라 의암사라 명명하였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요청이 되어 당시 이 고장 국회의원이었던 정준모 의원을 통하여 건의한바, 이승만 대통령이 함태영 부통령에게 위임하여 함태영 부통령의 친필인 “義巖祠”가 사액 되었다.

義巖朱論介影幀閣新築記

本郡에서 誕生하시고 成長하신 義巖朱論介娘은 그 忠烈을 우리 民族으로서 마땅히 崇拜하고 敬慕하며 鋼鐵같은 勇敢하신 大義의 龜鑑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은 三百六十四年前 壬辰倭亂의 소름끼친 그 歷史를 目前에 當함과 같이 저 兇暴한 倭賊의 侵略根性은 또 다시 우리 강토에 侵入하여 過去 三十六年間の 狡猾한 政策과 苛酷한 監視로 우리 民族을 짓밟으며 韓國魂을 撲滅코저 本郡知縣鄭胄錫의 建立한 義巖 碑閣을 毀損埋沒하였으나 現狀을 目睹하면서 赤血이 湧沸하는 우리 同志는 忿歎하고도 不可抗力으로 此史蹟의 保全과 碑石의 索出에 待機默守하는 焦心뿐이었으니 어찌 痛恨되지 아니하랴. 우리는 오로지 倭賊의 必然再侵性을 未然에 防禦토록 精勵團結하여야 할 것이다. 快哉라 歲乙酉秋에 저 倭賊의 陰凶한 私曲은 光明한 正義下에 餘地없이 물러가고 우리 大韓三千里 江山에 無窮花는 爛漫하여 磼연한 義巖碑는 우리의 손으로 大地의 白日下에 뚜렷이 露出되어 儒生諸賢의 熱意로 郡北大道沿岸上에 임시로 碑閣을 建立한 後下回의 今日을 待望하였던 것이다.

幸於甲午春(四二八七年三月)에 洪錫模(郡守) 金正得(署長) 金相根(教育監) 李宗鉉(現會長) 梁鍾浩. 曹周煥(現副會長) 及 各機關長과 地方有志諸賢등이 會同하여 去年癸巳(有事後六十周甲)에 建議하지 못하였음을 遺憾으로 奮然히 發論同意하여

同年四月一日에 義巖朱論介史蹟保存期成會를 組織하고 義巖影幀閣의 新築과 影幀의 奉安及碑閣의 移建을 決意한 後 諸般의 業務는 進行하는 途中에 官命으로 洪 郡守와 金署長은 他方에 轉任하고 後繼郡守 金允喆 會長, 副會長의 周到한 方案과 高 文 吳明淳(全北日報社 主筆)의 誠心協助이며 役員一同의 不休한 努力과 機關長 有志諸賢의 同聲贊助로 波瀾多角한 碍程을 突破하고 起事後 一年半에 有終의 美果를 收得하였음은 실로 우리 同族으로 欣幸함을 難堪이로다. 磋商의 後來諸君은 勤慎守護하여 永世無窮할지이다.

壇紀四二八八年 十月 三日

長水 義巖朱論介史蹟保存期成會

顧問 長川人 李在淳, 謹識, 謹書

2. 의암사의 성역화 사업

1954년 의암사를 창건할 당시에는 국가 경제력이 지방 문화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며 당시만 하여도 6.25전쟁의 공산 잔병이 미처 후퇴를 못하고 산에 공비로 숨어들어 밤낮 없이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마을에 출몰 식량 약탈 등으로 민간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장수읍 주위에는 3,300V의 전기 철조망을 치고 공비를 막아낼 형편이었다.

그러하다 대대적인 공비 소탕전이 이루어지며 점차 정부의 행정력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되찾게 되면서 당초에 초라하게 건립되었던 논개사당의 성역화 문제가 8만 군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김준수 장수군수는 논개의 위상에 맞는 사당 성역화 문제의 절실함을 느끼고 1973년 4월에 각 읍 면의 유지 각 기관 대표 등 200여명의 군민대회를 소집하였다.

동 대학의 의제는 논개사당을 어떻게 성역화 할 것인가 였다.

협의 결과는 보다 대규모로 확대 성역화하기로 하고 위치 선정이 현 위치이나 또는 다른 위치이나가 거론되다 2안으로 장수 노하리 숲 근처로 거론이 되기도 하였으며 3안으로 다른 적합한 자리를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군민 회의를 거듭하면서 1974년에 장수군에서는 사당 이전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확보되어 활발하게 이전 추진이 거론 되었다.

그런 가운데 동년 4. 5. 6월에 거듭 6차 회의까지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9월초에 논개제전위원회에서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8566평인 현 위치에 이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 동년 9월 6일에 사당 이전 승인 신청서를 문공부에 제출 하였으며 9월 20일에 승인이 나고 동년 9월 28일에 이전 공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10월 29일에 이전 설계서가 승낙되고 동년 11월 23일에 역사적인 이전공사가 착수되어 준공을 보게 되었다.

동시에 장수읍 남동 국도 19번 도로변에 세워졌던 논개수명비도 사당 이전과 같이 현 위치에 옮기어져서 명실상부한 성역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의암사당의 풍수지리설

조선조 영조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이곳을 지나치다 당시 묘지였던 현 사당자리가 산줄기가 힘차고 음양의 조화 굴곡이 아름다워 이르기를

“높은 나무 위에 혈이 단정히 맺혔으니 가을 매미가 깊은 숲 속에서 노는 현상이고 앞에는 팔공산이 목산으로 뒤에는 말산이 화산으로 상생을 이루어 맑고 곧은 앞날의 열림이 눈 아래에 크게 펼쳐져 산봉우리가 크고 작게 연달아 이어짐이 길하리라. 장막 같은 협곡을 뚫고 가는 현상이 말의 힘찬 달림과 같으며 산줄기가 힘을 주어 뭉치어져

서 마지막 큰 터를 이루어지고 혈의 주위가 모가 진듯하여 단정하고 당처가 분명하게 들어 나며 좌청룡 우백호가 거듭거듭 쌓이어서 혈을 감 쌓고 도는 물과 산이 거듭하여 물길이 옥의 띠와 같이 감돌았으니 어찌 대지라 아니할 소냐. 오행으로 보아 좋은 형국으로 묘가 머물러 쌓으며 남정네들이 모여드는 귀한 이의 집터가 되리다. 동남간 산이 높으면 여자가 크게 귀하여지고 서북간 산이 넉넉하면 크게 부자로 번창하느니 동쪽 산이 높고 크면 아들과 손자가 많으며 서남간 산이 기가 모아져 재물이 모아지는 좋고 좋은 명당자리로 천만년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모시게 되고 행사를 하게 되리라”는 풍수지리학적인 설파를 하였으며 오늘 날 사당에 참배하는 모든 이들이 사당에 올라 앞을 내려다보고 명당중의 명당이고 대지 중의 대지라 감탄을 하게 된다.

高樹頂上 穴成端靖 秋蟬嘲林可知
 前有八公 後有馬山 木火相生 廉貞發祖 樓下開帳 起伏連疊 忽大忽小
 穿帳過峽 曲曲活動
 心中出脈 到頭一節
 尖圍方正 穴星特起
 龍砂虎砂 重重環抱
 外山外水 層層護衛 水如玉帶 可知大地
 生旺之勢 墓庫停蓄 學堂之水 貴人之祠可知
 忽出巽山 大發女貴 乾山豐滿 大昌大富
 震山大肥 多子多孫 坤山聚氣 食福年年 好好明堂 千萬香花

4. 의암사에 군민헌수운동의 전개

의암사 대지는 본래 공동묘지였다. 까닭에 의암사 조성을 위하여 수 백기 분묘를

이장하면서 별거숭이산으로 남게 되어 하루속히 조경을 하고 푸르게 식수를 하여야 함이 8만 군민의 여망이었다.

조경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문가 7인으로 오치황, 육동기, 이종선(장계임고교사), 한순태, 군 산림과장, 산림조합장 김상두, 유기렬을 위촉하였다.

한편 조경 추진 위원으로는 장월하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고 식수 운동의 홍보를 위하여 안종수, 김영철, 이승하 기자에게 위촉을 하였으며 당시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대의원이었던 한순태, 양형식, 장득현, 한원희, 우병용, 김병문, 김두봉을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민대회를 열어 유종의 결과를 다짐하고 각 면의 총무계장 회의를 열어 굴취목과 헌수목을 배당하여 식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편 굴취 식재 지도반으로 일반인 6명과 장계임고생 40명을 편성하고 전문인 4명을 각 읍면 굴취일에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적인 지도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한발이 심하면 관수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장수중고등학생과 장수재건학교학생에게 관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1974년 3월 18일에 시작한 식수작업은 군민의 총동원으로 동년 5월 18일 까지 50일간 계속하여 순수한 재래 향토수로 6천9백여 본을 식수를 하였으며 그 동안 식수 관수를 위하여 장수중고등학생과 재건학교학생이 10여 회에 걸쳐서 연 3천 여 명이 동원되어 관수를 하여 심은 나무가 활착하도록 돕기도 하였다. 그 중에 장계거주 서성기 사장은 개인적으로 10년생 잣나무 300본을 헌수하기도 하였다.

5. 의암사의 보완공사

당시 의암사는 단지 사당만 현 위치에 이건 하였을 뿐이며 주변의 정리는 예산관계로 미비한 상태였다. 보안 사업으로 외삼문과 내삼문 건립과 부지정리와 의암사 담장

78M 신축비로 당시 문공위원이었던 최성석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 도비, 군비 일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이를 적극 확보하도록 지원한 안종수 당시 KBS 전주 방송국 기자의 큰 공이 있었다.

사당을 이전하고 규모를 갖추어 최초로 1974년 9월 9일에 사당의 광장에 수 천 명의 군중이 모여 의암사 제례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성대한 논개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의암사 성역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되었으며 담장 신축 및 배수로 설치 공사와 내삼문, 외삼문 관리사무소를 짓고 기념관도 건립하여 나름대로의 사당이 규모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마터면 파괴되어 영원히 땅속에 묻히어 흔적 없이 사라질 뻔했던 논개 생장향 수명비의 169자 비문의 위력이 절의의 고장 후예들의 슬기로운 대처의 영향으로 다시 살아나 의암사를 현 위치 8566평의 터를 잡아 건립을 하게 되었고, 생가 현지에 2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생가 복원을 하게 되어 호국의 성녀 논개의 거룩한 충절의 얼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단위 : 천원)

년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1974. 12. 23	사당이축, 담장시설	2,160	국비 1,050 군비 1,110
1975. 8. 4 ~ 10. 10	내삼문 건축외 1건	5,334	
1975	묘소이장, 부지정리, 부지매입		
1979. 8. 14 ~ 12. 26	외삼문 1동(9평) 담장 233m 참배로 82m, 석축 48m, 사당7평 비각 1평, 외삼문 9평, 내삼문 7.5평 담장 751m, 경내 8,568평 광장 3,397m ² (1,030평)		
1976. 8. 14 ~ 12. 26	논개사당 비각 이축 1동, 조경사업 부지정리 등		
1977. 8. 4 ~ 10. 15	외삼문 담장설치, 화장실 신축 관리사무소 신축, 석축 배수구, 사당절개지 공사		
1978. 12. 6 ~ 12. 20	사당 조경공사	2,530	
1979. 7. 20 ~ 10. 20	의암사 건물보수 및 조경사업	17,354	
1979. 1. 5 ~ 12. 27	사당진입로 확장 공사	5,063	
1980. 2. 23 ~ 3. 28	배수로 공사	3,138	
1980. 2. 23 ~ 4. 6	배수로 공사	3,200	
1980. 7. 23 ~ 7. 15	대지매입	14,066	
1980. 7. 23 ~ 12. 30	배수로 사리 부설	6,688	
1980. 12. 21 ~ 12. 30	수목이식	906	
1981. 7. 28 ~ 9. 25	담장설치외 3건	36,623	
1981. 5. 10 ~ 6. 3	정화설계	2,128	

(단위 : 천원)

년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1981. 8. 8 ~ 9. 30	진입로 확장	24,187	
1981. 8. 18 ~ 10. 4	진입로 수목 식재	9,088	
1981. 11. 20 ~ 12. 19	“C”형 표지판	3,500	
1986. 6. 2	표석설치	50,000	
1986. 7. 29 ~ 1987.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 관리사, 화장실, 휴게시설 ○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티나무 22종 3,422주 ○ 전기공사 : 배관외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3,859포 - 철근 19,47톤 ○ 기와구입 : 암기와외 10종 20,977매 ○ 관급자재 ○ 기록화제작(이의주) : 4점 300호 ○ 유품구입 ○ 기타 : 설계용역외 2건 ○ 총 계 	283,580 47,211 17,395 7,282 4,564 16,900 11,846 36,000 3,000 34,560 450,492	
1988. 6. 14 ~ 5. 23	잔디보수공사	1,500	
1988. 6. 14 ~ 7. 13	논개사당 담장설치	3,450	
1989	영정각 7.8평 방연, 도포 급수관 증설공사	270	
1991. 5. 15 ~ 7. 8	영정각, 내삼문, 외삼문 변화 외삼문 단청	20,000	도비 10,000 군비 10,000
1992	광장포장(잔디), 화장실, 번와보수	740,000	
1993	사당주면 정비공사	3,200	

(단위 : 천원)

년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1996. 8 ~ 1998. 2	광장확장, 석교가설, 관리사, 화장실 신축, 천연대보수, 주차장시설, 충의문 비각, 내삼문, 외삼문, 전시관 보수 ○ 토목건축 ○ 토지매입 ○ 조 경 ○ 전 기 ○ 관 급 ○ 총 액	1,945,428 551,094 238,000 67,767 104,489 30,000,000	국비 1,500,000 도비 750,000 군비 750,000
1997.12 ~ 1998. 4	방충, 방연, 도모사업(충의문, 영정각 내삼문, 외삼문, 비각, 화장실)	7,096	
1997. 12. 30 ~ 1998. 12. 26	○ 토목 : 석교설치, 교량설치, 산책로 포장 ○ 조경 : 수목식재 8,123주, 시설물 설치 ○ 토지매입 3필 3,007m ² ○ 총사업	971,936 184,300 31,269 1,400,000	국비 700,000 지방비 700,000
1999. 6. 9 ~ 8. 8	화장실 보수	19,370	
2000. 7. 31 ~ 12	전기선로 이설	36,173	
2000. 8. 31 ~ 9. 15	통신선로지하 매설	31,037	
2000. 9. 5 ~ 10. 14	오수관로 매설	26,956	
2000. 12. 23 ~ 2001	가로등선로 정비	23,560	
2002. 12. 23 ~ 2001	진입도로 화강석 판석포장 556.07m ²		
2002. 10. 5 ~ 12. 26	화장실 내부 보수	40,000	
2004. 2. 9 ~ 6. 24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	370,000	
2004. 8. 23 ~ 11. 3	비각, 번와, 기단보수, 기념관 보수	18,770	
2006. 5. 29 ~ 8. 8	화장실, 지붕번와 보수	20,000	

6. 의암공원 테마숲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일원(12.5ha)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3년)
- 총사업비 : 5,6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1,035 군비 1,765)
- 주요내용
 - 충혼 테마 숲 : 경관조경 및 미로공원, 숲속 산책로, 쉼터, 의암루 LED조명, 충혼탑 경관 숲 조성
 - 문화 테마 숲 : 의암호 수변 테크, 축제마당 동선포장
 - 충절 테마 숲 : 충절 숲 조성(사당 내 조경 정비), 산책로 등

○ 추진사업

〈2010년〉

- 1년차 사업 추진(충절 테마 숲) : 2011. 6. 30 ~ 2012. 6. 9
- 사업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의암루 조명 설치, 경관 테마정원 조성, 사과 미로원 조성, 숲속 산책로, 소나무 동산 등

〈2011년 ~ 2012년〉

- 2년차 사업 추진(문화, 충절 테마 숲) : 2011. 6. 30 ~ 2012. 6. 9
- 사업비 : 4,400백만원
- 사업내용 : 의암호 수변 테크(L=641m 폭=2.5m) LED 조명, 축제마당, 동선포장 충혼탑 경관숲, 충절숲 조성(사당 내 조경정비), 산책로(L=105m) 등
- 도급업체 : (유)부래 국일순



1956년 함태영 부통령의 친필인 「의암사」 현판



의암사 전경



의암공원 전경

〈의암공원 테마숲〉



의암주논개생장향수명비

○ 위치 : 의암사 경내



생장향 수명비는 1844년 (헌종 10년) 이 고장에 부임한 정주석(鄭胄錫) 현감에 의하여 1846년에 세워진 것이며, 논개는 임진왜란의 국란에 처하여 남편 최경회 의병장 따라 진주성 싸움에 동참하였다, 성을 둘러싼 왜적과 아흐레 동안이나 대적 치열한 공방 싸움을 거듭하다, 왜군에 중과부적과 조총이라는 신무기에 밀리어 성이 무너지고 성안의 육만 여명의 군관민이 몰살을 당하고 성을 지키던 남편 최경회는 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김천일 고종후와 같이 촉석루에 올라 북향 사배를 한 다음 절명하며 남긴 시인

촉석루 위 삼 장사
술 한 잔을 들고
웃으며 긴 강물을 가리키노라.

긴 강물 도도히 흘러가노니
그 물결 마르지 않은 한
나라 사랑 혼도 사라지지 않으리.

라는 시 한 수를 남기고 남강에 투신 순절하였다.

논개는 호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진주성도 무너지고 하늘 같이 믿었던 남편마저 순절하였으니, 오갈 길 막힌 사고무친의 처참하고 고독한 처지인 적진에서 구차하게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음을 택함이 나으리라 생각하여, 나라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왜군의 칠월칠석날 전승연 잔치에 기생으로 가장하여 참석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남강 위암으로 유인 강하게 낚아채어 수장시키고 순국한 거룩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 비신은 높이 250cm에 가로 50cm 세로 30cm에 갓 두겹을 씌워진 육중한 무게를 느끼게 하며 비신을 풍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높이 6m에 가로 2.5m 세로 2.5m인 아담한 비각에 감싸여 있다.

이 비석의 비문은 전면에 “축석 의기 논개 생장향 수명비” 라 새겨져 있고
뒷면의 비문을 보면

“질풍이 몰아치듯 국난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라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의 몸으로 대의를 판단하여 죽음을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일을 생각해 보건대 그 늠름한 열기가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그 어찌 장엄하다 아닐 손가.

산에는 영스러운 버섯이 있고 물에는 맛있는 샘이 있으니 군자라도 칭찬을 하거늘, 향차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에 근원 하여 사람의 이목에까지 퍼져 있음이라,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의 보잘것없는 선비로써 끝내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이름이 없음으로 매양 이 사람같이 의렬의 큰 공을 세운 이에게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하고 언제나 감동 감개 하였다. 이제 의기의 수명을 전하니 이후 그녀의 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며, 삼가 글로 적노라.”

송정 기원 사병오 계추상
지현 서원 정주석 근식
자 유학 기영 근서
비 유사 밀성 박길인

이 비석은 대단히 육중한 단단한 화강석으로 다듬어져 있으며 그 비 문 역시 명문장으로, 논개의 살신성인의 위대한 정신을 함축 작성하였음을 엿 볼 수가 있다. 이수명비가 세워지기 이전만 하여도 논개가 장수 태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별로 없었다,

단지 어린 시절 일제의 시퍼런 칼날 같은 식민지 학정아래에서도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들일을 하시면서 숨어서 들려주시던

“진주기생 이애미(의암)는 우리나라 구하려고 왜장 청정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몸 던졌네.....” 라는 막연하게 민요가락으로 불리어 내려오고 있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장수출신이라고 거론하기 시작 된 것은 논개가 진주 남강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후 이백 여 년 동안 구전으로 논개는 전북 장수 장계 주촌 출생이라고 꾸준히 전하여 내려오던 것이 1800년대에 들어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호남절의록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인 서기 1800년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 일 하 33면에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 일휴당 최경희 사실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기생 논개는 장수사람으로 공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성이 함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미어 적장을 유인 끌어안고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 들어서 마주하여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끌어안고 수장 순절하였다. 뒷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 놓기를 ‘의암(義巖)’이라 하였으며 비를 세웠다.”

○ 수명비의 수난

논개가 최초로 장수인 이라고 기록된 문건에 의하여 정주석 현감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 호남절의록에 등재된 장수삼절인 논개수명비와 목숨을 걸고 장수향교를 지킨 충복 정경손의 수명비를 향교 입구에 같이 세운 것이다.

논개수명비가 최초로 세워진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277번지고 이의종씨 댁 입구였으며 당시 이곳은 “옥거리[獄衙]”라 부르는 곳인데, 장터입구여서 많은 이들이 장에 드나들며 만인의 마음에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1896년까지 96년간 세워져 있었다.

그 후 수명비는 시장 확장을 하기 위하여 장수읍 장수리 현 장수교육청 사거리 들길 옆에 옮겨 세워졌다. 논개생장향수명비가 이 자리에 세워지면서 동네 이름도 그 비석을 중심으로 하여 가운데 담을 중비, 비석 아래쪽 담은 하비, 비석 위쪽 동네를 상비라고 이름이 붙이어서 지금까지도 동네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10년에 기어이 야만의 마수로 한일 합병이라는 이름하에 일제는 강점을 하고 말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 후 계속하여 착취와 압박을 가해오다 드디어 1939년에 당시 총독이었던 남차랑이 한국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민사령을 발동시키어 내선일체의 구호를 내걸고 우리민족의 외자 성씨를 일본식 두자 성씨로 고치게 하는 소위 창씨령을 내리어 강압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본식 성과 말을 만들어 쓰도록 강요하였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고유의 전통적인 글과 말을 폐지시키고 일본식 말과 글을 상용하도록 하였으며 오천 년을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마저 파괴 말살하여 영원히 일제화 시키려 가진 만행을 감행하였다.

전국에 282개소에 소위 일제가 말한 일본의 창시조 ‘천조대신’을 섬기는 소위 대형 신사당을 지어놓고 신사참배와 일본천황이 있는 동방예배를 조석으로 강요를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천조대신의 30cm × 10cm × 5cm 정도 되는 신젠(귀신단지)을 만들어 강매를 하고 그를 벽에 걸어놓고 조석으로 참배를 하도록 강압하였다.

일제의 이 같은 포악무도한 와중에 임진왜란당시 일제에 가장 치명적인 복수와 타격을 감행한 논개의 수명비를 그대로 묵인해 돌리가 없었다. 1942년 11월 캄캄한 그믐밤을 기하여 장수읍 장수리에 사는 정모라는 사람을 시키어 다음 5명을 지명했다.

이재영. 박수옥. 강홍길. 이이석. 서순영.

장정 다섯 명을 1942년 11월 30일 밤12시에 정과 큰메와 삼과 팽이 등을 준비하여 경찰서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당시 장수경찰서 고등계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서모라는 형사와 일본인 다야마 라는 순사부장이 나와 앞장서며 오라 하였다. 따라 가보니 논개수명비 앞에 이르러 다섯 명을 세워놓고, 다야마 부장이 엄하게 지시를 하였다.

“이 비는 일본으로는 원수의 비석이다. 이 비석 때문에 앞으로 내선일체 국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대로 둘 수가 없다. 남차랑 총독의 특명이니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비각을 헐어 멀리 갔다 불태워 버리고, 비석은 부수 땅속 깊이 묻어버리라”하였다.

다섯 장정은 어쩔 수 없이 비각에 손을 대려하니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광풍이 불며 진눈깨비가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작업을 감독하던 두 경찰은 자기들끼리 무어라 주고받더니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나 올 터이니 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흔적 없이 작업을 마쳐야지 그렇지 못 할 적엔 처벌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사라졌다.

그들이 가고 나서 다섯 사람은 상의를 하였다. 비석을 파괴하자니 한국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경찰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가를 궁리하다, 결국 비석은 날이 새기 전에 멀리 운반하여 밭에 묻어버리고 그들에게는 부수어 묻었다 하고 비각은 부수어 멀리 노하리 숲 밑에 갖다 태워버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대로 작업을 끝내고 아침에 나타난 그들에게는 지시대로 처리하였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비석을 묻은 자리는 천우신조로 눈이 내리어 덮어 흔적도 없이 숨겨졌다.

1941년 일본은 이태리, 독일과 동맹을 맺고 중국을 공격, 중국의 동남쪽의 요충지를 점령하며 남진정책을 실시하다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해군은 거의 전멸되고, 1944년까지 피점령 지역 대부분을 탈환되었으며, 1945년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

끼”에 원자탄 투하로 일제는 패전하였고, 우리는 36년의 일제의 질곡에서 광복되었다.

일제의 압박과 서러움에서 시달리던 우리민족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으며 우리고유의 풍물을 앞세우고 기쁨의 시위를 하였다. 군중은 맨 먼저 일제의 소위 신사당이라 부르던 신단을 부수어 일본인들의 면전에서 불살라버리고 통쾌한 보복을 하였다.

장수초등학교 교정의 고향 학생 몇 명이 교정 동편에 세워져 있던 소위 ‘대마전’이라 부르던 괴물을 넘어트리며 불 질러 태워버리고 “논개 비 캐러 가자”고 소리쳤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 삽과 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나와, 논개 수명비가 묻혀 있는 장소로 몰려가 땅을 파고 비석을 캐냈다.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른들도 같이 달려들어 캐내고, 비석에 묻어 있던 흙을 씻어 냈다. 비석이 수난 당한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비석 발굴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장수리 거주 박옥길, 천기창, 이갑선, 김진옥, 한순태, 김관천

노하리 거주 박세민, 최일엽

노곡리 거주 이영조, 백영선

무주군 거주 김병열

전주거주 오봉수

이들은 학교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일본사람이 아니고, 조선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글과 말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일제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아울러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한 훌륭한 논개의 비석이 있었는데 일경에 의하여 묻혀버렸다는 이야기와 장소를 미리 들은 적이 있어 빨리 발굴될 수 있었다. 장수사람의 지혜가 소중한 의리를 살려 낸 쾌거였다.

그 당시 전국 각지에 산재한 일제와 관계된 유적과 비석이 산재하였는데 모두가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주촌에 있던 논개의 선조 묘비 역시 산산조각으로 파괴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음을 알고 있다.

또한 전북 남원군 운봉면에 있던 이태조 이성계가 ‘아지밭도’를 무찌르고 그 자리에 세워진 황산대첩비도 당시에 파괴되었으며, 충남 금산에 있던 칠백의총의 비석, 남원의 만인의총의 비석도 같은 시기에 파괴를 당하여 흔적도 없는데 그나마 황산대첩비는 부서진 것을 그대로 맞추어 복원하고 있어 일제의 만행을 두고두고 되새길 수가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논개수명비는 그 난리를 용케도 피하였으니, 절의의 고장 후예로서 이를 지킨 우리 장수군민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비석이 땅에서 캐어나자 지켜보던 부인들도 달려들어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장수리 거주하던 김예분. 정복남. 김점순. 황정양제씨 등이었다. 그 외에 몇 분이 더 있었다는데 이름을 알 길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논개수명비는 1942년 매장 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8월 20일 발굴이 되었으며, 장수군민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비각을 짓고 비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8월 21일에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도 없이 군민 다수가 비석 앞에 모였다.

이때에 60세쯤 되시는 건장한 노인 두 분이 군중을 지휘하며 비각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며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지휘를 하는데, 계남에 사셨던 오일성선생과 장수에 사셨던 이재순 선생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분의 지시에 의하여 각기 수명비각 복원과 비를 세우는 작업을 분담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장수읍 장수리, 장계로 가는 19번 국도변(현재 장수교육청 위쪽 관주산 자락)에다 터를 다듬고 목수 5-6명은 ‘관주산’에 올라 비각을 세울 재목을 내며, 한편은 이를 운반하여 다듬고 한쪽에서는 비를 운반하여 세우기 시작했다. 비각을 짓는 것은 수대목 최동엽씨가 책임을 지고 주도하였는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작업을 시작한지 수 일 만에 훌륭한 비각과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며 모두가 기뻐,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논개수명비의 복원은 누구의 지시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발로였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가 더욱 값지고 소중하다.

이 비는 그 후 1955년 장수리 남동마을 회관 옆에 이전하였다가 1974년 현 의암사로 이전 보존하게 되었다.

의암송

- 지정 : 천연기념물 제397호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군청 청사 앞



나무의 높이 10m, 둘레 5m, 수령은 약 400여년 된 소나무이다. 400여 년 전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의암 주논개와 함께 심었다하여 일명 의암송이라 한다. 소나무로서는 보기 드물게 원줄기가 왼쪽으로 꺾여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학의 형상을 하고 있다.

월강사

- 지 정 : 문화재 자료 제31호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562-1



이 사원은 월강리 도장골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있는 나지막한 야산의 남서쪽 사면에 있는 사우(祠宇)이다.

월강사(月岡祠)는 조선조 순조 28년(1828)창건되었으며,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광복 후 1948년 복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솥을대문으로 된 회충문을 들어서면 왼편에는 월강사묘정비가 있으며, 정면에는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된 모현재가 있다.

이 모현재 뒤에 경사진 계단을 올라가면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으로 된 월강사가 있다.

이 월강사에는 충숙공 정신재 백장, 퇴휴재 송보산, 손재 김남택, 충의공 일휴당 최경희, 퇴거재 김남중, 삼락당 송수산, 경재 백여옥 등 일곱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의암 주논개 생가지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709번지
- 면 적 : 67,460m²
- 정화사업비 : 6,550백만원
- 준 공 : 2000. 9. 29



(생가지 전경)



주논개는 1574년 9월 3일(甲戌年, 甲戌月, 甲戌日, 甲戌時)의 4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가지고 이곳 주촌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마을은 대곡제 축조로 수몰되고 남아 있는 당산 옆에 생가만 복원되었다가 다

시 1996~2000년도에 2만 여 평의 부지에 확장 정화하였으며 생가지의 경내 시설로는 의랑루, 연못, 단아정, 주논개 동상, 기념관, 생가가 있다.



논개부모묘



좌: 최경희장군 추모비
우: 의암 주논개 수명비



의암주논개 생가 복원지



논개동상



주논개 생가



기념관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려



의낭루

의암 주논개 생가지 정화사업

- 주논개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인식케하고 님의 얼과 애국충절의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전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 문화유적의 공원화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6~2000(5년간)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709번지 일원
- 면 적 : 67,460m² (20,460평)
- 사업내용 : 생가, 기념관, 석상, 누대, 관리사, 인공폭포, 판매점 및 식당, 주차장, 정자, 조경 등
- 사 업 비 : 6,550백만원

□ 연도별 사업추진현황

- 1996~1997년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 88백만원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327백만원
- 1998년도
 - 토목공사 1차공사 : 836백만원(1997사고이월)
 - 기반조성 : 67,460m²
 - 구조물 : 집수정 5개소
 - 배수시설 : 4,020m(측구 1,061 멩암거 1,167 우·오수관 1,792)
 - 상수도 : 취수정 1, 저소조 1(20톤), 수도관 매설 3,310m²
 - 토목공사 2차공사 : 계단석설치, 상수도시설 등 226백만원

- 석상 및 부조 : 349백만원(1997명시시월)
- 전기통신(1차) : 119백만원(1997사고이월) 전기, 통신설비
- 조 경 : 286백만원(1997사고이월) 파고라의 7종 122개, 방지 빨래터, 씨름장, 널뛰기장 공정 100%
- 건축실시설계 : 47백만원
- 토지 및 분묘보상 : 16백만원
- 1999년도
 - 건축공사 : 생가 59.04m², 부속사 30.24m², 누대 111.6m², 관리사 48m²
화장실 39.99m², 정자 9.0m², 전시관 159.03m²,
기타비이전등 1,488백만원 공정
 - 토목 3차 : 석상 주위 연못설치, 저수조 미장 123m²
방지 자연석 3개, 수련집 3개설치, 벽돌포장 532m²
박석포장 440m², 자연석계단 332m², 179백만원
 - 전기통신(2차) : 32백만원
 - 대체농지조성비 : 93백만원
- 2000년도
 - 건축 : 판매장 303m² 487백만원
전시관전시실 159.03m² 512백만원
 - 토목(4차) : 1,086백만원
 - 자연석쌓기 704ton
 - 마사포장 5,258m²
 - 강회포장 2,150m²
 - 차도블럭 5,316m²
 - 조경 : 인공폭포 250백만원
수목식재(백철쭉 10,960주, 회양목 4,000주등) 112백만원

- 기타 : 유도사인물, 앰프시설 등 47백만원

□ 용역사항

- 기본설계 : 1997. 3. 17 ~ 1997. 4. 25(25,000천원)
- 실시설계 : 1997. 6. 7 ~ 1997. 8. 6(20,745천원)
- 석상부조 원가계산 : 1997. 5. 13 ~ 1997. 10. 13(2,400천원)
- 전기.통신 실시설계 : 1997. 5. 13 ~ 1998. 8. 6(3,831천원)
- 건축공사 실시설계 : 1998. 9. 15 ~ 1998. 11. 26(22,014천원)
- 조경공사 실시설계 : 1998. 9. 15 ~ 1998. 11. 9(17,209천원)
- 전시관전시 시설설계 : 1999. 10. 18 ~ 2000. 2. 1(12,337천원)

□ 년도별 자원 확보사항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6,550	250	1,500	1,400	900	2,500
국 비	1,250					1,250
도 비	1,888		500	313	450	625
군 비	1,812	250	300	187	450	625
특별교부세	1,600		700	900		

의암 주논개낭 생장지 사적불망비

○ 위치 :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논개생가 앞



선조 25년 임진왜란때 진주성에서 왜장 게야무라로쿠스케를 죽이고 순국한 의암주논개의 생장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0년 장수군민의 정성으로 건립하였다. 당초에는 주촌마을 입구에 있었으나 대곡제 축조로 1997년 생가지 장소로 이견하였다. 의암주논개의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측면 모두 1칸의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 비문내용

의암의 부친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 계내면 동남방 백화산 북쪽 산자수명한 승지를 택하여 모옥을 결구하고 산수의 낙과 한학을 숭고하니 사방인사 부급종사하여 소거(所居) 수년에 일촌을 가성하니 세인이 주 선생의 촌이라 칭하여 주촌이라 하다. 선조 7년 갑술 9월에 일녀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하여 사주를 기록하니 사갑술이라 즉석에서 산(産 : 논) 구(狗 : 개)의 천명으로 한자 논개(論介)라 명명하였다. 18세 신묘 춘에 본 현감 최경회는 경상우병사로 진주에 부임 수행하였다.

계사 6월에 왜적의 침입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제장이 전몰하니 성중이 어육이라 7월 7일 축석루와 남강상에 왜적의 전승연(戰勝宴)이 낭적(狼籍)하매 강개분의하여 자천위기(自薦爲妓)하고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니취난광(泥醉亂狂)함을 기회로 장재(壯哉)라 예비 된 10지의 지환(指環)과 만장(萬丈)의 열기로 남강 심류에 견포 수락하여 만고불구의 대의를 수립함을 항가에 구가 영전할 귀감으로 자에 입석 기념하였다.

단기 4293년 12월 일

장수교육감 김상근 근립

장 천 인 이재순 근기

성 주 인 이상렬 근서

주촌 민속마을(논개생가마을)

○ 위치 : 논개생가지 윗마을



주촌 민속마을 전경

주촌민속마을은 28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으며 마을 내에는 우리 조상들의 진솔한 삶이 담긴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모정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시설과 논개정려비각이 있다. 와서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농촌의 전형적인 어메니티(Amenity)가 실현된 마을로 논개생가와 연계되어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의암 신안주씨 논개정려비각



연지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려



1996년 6월 주촌마을 입구에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가 복원되었다. 이 정려(旌閭)의 기(記)에는 옛 기록에 정려가 주촌 마을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져 없어지게 되어 그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할 수 없었기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충의공 최경희 현감 선덕 추모비

○ 위치 : 논개 생가지 경내



복원된 최경희 비각과 비석, 최경희 현감 옛 유허비

충의공 최경희 현감 선덕 추모비명

조선왕조 1592년(선조 25년) 4월 천인공노할 왜적의 침입으로 임진국난을 당하여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을 때,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최경희 현감은 1532년(중종 27) 전남 화순현 삼천리에서 아버지 천부와 어머니 순창임씨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공은 젊은 시절 송천 양응정과 고봉 기대승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학식과 무예가 뛰어나 일찍이 신유년(명종 16)에 생원 진사에 통과하고 정묘년(명종 22)에 문과에 등제 벼슬길에 올랐다.

1574년(선조 7)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옥구, 장수, 무장, 영암, 영해, 담양 등지에서 1590년(선조 23)까지 현감 또는 부사로 재직하였으며 그의 훌륭한 인품과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임지마다 공을 칭송하는 선적비가 세워졌다. 1590년(선조 23)에 모친상을 당하고 복중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복을 입은 채 문흥헌의 추대로 의병장이 되어 화순, 능주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키어 골자로 징표를 삼은 의병부대를 창설하여 군사를 이끌고 남원을 거쳐 장수 땅에 이르러 장계 도장평에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 8백여 명을 강군으로 조련을 시키었다. 이때에 장수현감 당시 민며느리 송사로 인연을 가졌던 논개와 재회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논개의 기동성 있는 뒷바라지로 장수를 거점으로 무주, 진안, 금산 등지의 왜적을 수없이 무찔러 재너머 지레로 퇴각시켰으며,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를 되찾고 언월도를 빼앗았다.

1592년(선조 25) 10월 5일 왜적 2만여 명의 진주성 일차 공격이 시작되자 공이 영남지방도 우리나라 땅이라며 지역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김시민 진주 판관을 돕기 위하여 정예된 의병을 이끌고 운봉, 함양, 산음 등지에서 뛰어난 전술로 왜적을 무찌르고 외곽인 지레, 거창 두 요충지대를 차단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 호남과 경상우도를 전란으로부터 보전케 하고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 공을 세웠다. 공의 이러한 빛나는 전공을 선조께서 가상하게 여겨 1593년 4월에 경상우병사로 제수를 하게 되었다.

왜적은 다시 1593년(선조 26) 6월 19일 일차 진주성 싸움의 패전을 설욕하려고 십만 대군을 집결, 진주성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2차 진주성 공격을 시작하였다.

최 병사는 창의사 김천일과 더불어 충의를 맹서하고 성을 사수하고자 진주성으로 입성하였다. 이때에 논개는 낭군을 따라 풍천에서 진주에 도착하여 진주성 싸움에 참전하였으며 군관민 6만여 명이 아흐레 동안 밤낮 한 덩어리가 되어 필사적으로 왜적과 싸웠으나 조총이란 신무기와 중과부적으로 끝내 성은 함락당하여 왜적의 난입으로 목불인경의 참상이 벌어졌다.

최 병사는 김천일, 고종후와 같이 남장대에 모여 성을 지키지 못한 자격지심에 자결을 결심하고 임금에게 북향 사배한 후, 절명시로 '축석루 위 삼 장사는/술 한 잔을 들고 웃으며 남강을 가리키노라/ 남강물 도도히 흘러가노니/ 저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혼도 죽지 않으리.'라는 시 한 수를 남기고 남강에 투신 순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좌찬성을 증직하고 충의공으로 시호를 내렸다.

논개는 난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나 성이 무너진 처참한 상황에서 낭군과 나라의 원수를 갚을 것을 결심하고 칠월칠석날 기생으로 가장, 왜적 승전연에 참석, 왜장 모곡촌육조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강하게 나꾸어 찬 다음 남강에 투신, 호국의 연신으로 산화하였다.

최 현감이 무장현감으로 전임 후 1580년경에 장수 재직 시 선정을 베푼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장수 현청 앞에 군민들이 선덕비를 세웠으니 세월이 마멸되어 희미하게 사라져 감을 안타깝게 여겨 이곳에 논개 생가를 확장 이전하면서 옛 선덕비문을 더듬어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추모비를 세운다.

서기 2000년 9월 일

장수군수 김상두 근립

한국문협 장수지부장 고두영 근찬

유도회 청년부장 양기홍 근서

의암 주논개 유허비

○ 위치 : 논개 생가지 경내



의암 주논개 유허비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논개의 출생지이다. 논개의 성은 주씨이고 호는 의암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 그녀는 일찍이 장수 현감 최경회를 모시는 몸이었다. 최경회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

우도의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워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전임하였다. 이때에 논개도 그를 따라 진주로 이주하였다.

그 해 6월에 왜군이 큰 세력을 휘몰아 진주성을 공격해 오자 격전 끝에 최경회는 전사하고 성마저 함락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진주성에 입성한 왜군은 칠월칠석날 남강가에 축석루에서 승전 축하연을 열었다.

이때에 논개는 나라에 충절을 다하고 최경회의 원수를 갚기를 맹세하고 왜군 연회에 들어가 왜장 모곡촌육조를 강가 바위로 유인하여 그를 끌어안고 푸른 강물에 투신하여 순국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는 그녀의 의거 장소인 강가 바위 위에 비석과 사당을 세워 그녀의 충절을 기리게 되었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충절을 다한 논개의 순국정신을 만고에 빛날 것이다.

1982년 10월 일

지은이 장수군수 박청준

쓴 이 일송 한태석

주논개 생가 사적비

○ 위치 : 논개 생가지 경내



주논개 생가 사적비(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여기 주촌 마을은 의암 주논개가 부친 주달문과 모친 밀양박씨 사이에 태어난 곳으로 이백여 평의 생가 터에는 우물과 유허비가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낭 생장지 사적불망비가 있었다. 군민의 숙원인 생가 복원은 4백여 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하신 배려로 1986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되었다.

원 생가 터는 대곡 저수지 시설로 수몰되므로 같은 마을 둘레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남쪽으로 삼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부지 8천 3백 40평을 마련 복원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의암 주논개의 충절이 선양되고 후세에 그 거룩한 열이 전승되어 길이 숭모하게 되었다.

1987년 8월 일

장수군수 하광선 찬

광 주 이규진 서

의랑루기

○ 위치 : 논개 생가지 경내



주촌 생가 입구 의랑루

백두대간의 정기 서린 호남 정맥의 종산인 장안산 자락은 동양성리학의 시조라 이르는 주부자 희의 후예인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난 주논개가 어릴 적 또래들과 어울리어 새를 쫓고 찾아 노닐던 산자수명한 터전이다. 유학의 비

조인 공자의 가르침에 살신성인 희생취의는 자신을 죽이고 버려서 인의를 이룩함이 사람이 취하여야 할 최상의 도리라 하였다. 임진왜란의 국난에 처하여 남편 따라 진주 성 싸움에 참가했던 주 낭자는 자신을 죽여서 인의를 취한 최상의 길을 택하여 열아홉의 꽃다운 나이에 꽃잎같이 떨어져 간 만인이 우러러 받드는 호국의 성녀가 되었다.

낭자는 성이 무너지고 남편이 순절하자 날카로운 복수심에 불타 단독결심, 단독결행의 서러운 이름을 뒤집어쓰고 죽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4백여 년 외로운 귀혼으로 구천에 떠돌아 다녔으며 이곳 생가마저 돌보는 이 없이 폐허로 방치되어 버렸다. 마침내 8.15 광복을 맞으며 장수골 사람들의 오랜 숙원인 의암사를 세우고 생가 복원도 하였다. 그러나 복원된 생가가 낭자를 상징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초라하였다.

1996년 민의에 의하여 피선된 김상두 군수는 고장 발전의 과제로 군민소득증대와 삼절오의(三節五義) 으뜸인 주 낭자의 생가 이전 복원을 착수하여 불철주야 동부서주 온 정성을 다 바쳐 2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5년여의 장기 계획으로 관계요로의 많은 지원을 받아 낭장의 행적에 걸맞은 생가, 석상, 기념관, 의랑루 등을 2천년 9월 29일 그 준공을 보게 되었다. 특히 유종근 도지사는 낭자를 전북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시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원도 국가적 차

원의 여인상으로 부각이 되도록 많은 국고 보조를 해 주어 큰 받침이 되었다.

오늘의 준공이 있기까지 장수군민과 함께한 모든 분들의 뜻과 힘을 모아 주 낭자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얼 선양의 추모현장이 되었음을 제명(題銘)한다.

죽음에서 태어난
그 이름이여!
흔적 없이
소리 없이 임 가신 긴 여울목
고향집 부모 생애 그 모두를
슬픈 물결에 묻어 두고
수모와 모멸과 천시를 넘나들던
서러운 이름이여!

햇빛에 떠오르면 정사가 되고
달빛에 잠기면 야사가 되거늘
햇빛 달빛도 비켜서버린
외로운 이름이여!
이젠
꽃빛 불빛으로
민중의 가슴속 화석으로 새겨진
의랑루에 불사조로 살아난
구원의 여신
거룩한 이름이여
그 이름이여!

2000년 9월 29일

시인 효산 고두영 글 짓고
서예인 문정 주재호 글씨 씀

함양지역



|| 금당리 방지 마을 ||

□ 의암 주논개묘역

○ 위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 31번지



주논개 묘역 전경

□ 최경희 장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서 용감하게 싸운 장수 의병들은 성이 함락되면서 살아남은 80여명이 야음을 틈타 진주성을 탈출하여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던 중 최 병사와 제장의 죽음과 논개 부인의 장렬한 설욕의 순절을 탐지하고 시체라도 고향땅으로 같이 돌아가려는 충정에서 남강 하류의 수색작업을 개시하여 창원 지수목에서 최장군의 시체와 왜장을 꺼안은 채 떠내려 온 논개부인의 시신을 한꺼번에 발견하기에 이르러 장장 150리길을 운상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문중(朱氏門中)과 장사 지낼 것을 타협하였으나 왜적의 추격과 보복이 두려운 주씨문중의 거절로 실의에 빠진 의병들은 삼남대로(三南大路)변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아(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 31번지) 최경희 장군을 위쪽에 논개부인을 아래쪽에 장사지내고 그리웠던 고향땅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근세조선 말엽의 장수의 석학 이신 우재(愚齋) 오덕렴(吳德濂) 선생의 유고(遺稿) 경독재집(耕讀齋集)의 인물편 최



경회장(崔慶會章)에 「최경회 장수현감 진주병사의 벼슬에 있었다. 임진계사의 난리 때에 진주에서 패전하고 살아남은 장수 의병이 최병사와 의암 주논개 부인의 시신을 거두어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마을 당산 뒤쪽 골짜기에 묻었다 하더라.」

이러한 기록으로 또는 생존해서 고향에 돌아온 의병들이 후손에게 남겨준 설화는 대를 이어 장수고을에 전해져 오기에 1976년 오치황, 유기열(劉淇烈)이 고증을 더듬어 발견하고 문화공보부에 보고서로 제출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순절한 후 382년 만에 발견된 두 분의 유해를 살필 때 실로 몸은 죽어도 충절의 영혼은 민물되지 않음이 여기 증명되었으니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들 혼백도 죽지 않는다.」는 최경회 장군의 임종 시는 헛된 것이 아님이 뚜렷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 이 묘역은 전북 장수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방지마을 옆 속칭 ‘탑시기 골’에 있다. 1980년대 후반 함양군의 논개묘 성역화사업으로 봉분을 다시 만들고 비석을 세우며 주위를 정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였다.

묘의 규모는 높이가 1.2m, 직경이 5.4m, 길이 5.3m에 달하는 대형분묘가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1년 후인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된 후 성 아래 바위에서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날을 추모하고 충절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7월 7일을 기하여 유림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묘 위 측에는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되어 진주성에서 싸우다 순절하신 최경희 장군의 묘도 함께 있고, 주변에 반장의병추모비가 있으며 넓은 광장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논개와 최경희의 시신을 운구한 의병들의 추모비



추모비문

의암 주논개반장의병추모비

남강의 시원인 여기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탑시골에

남강과 함께 푸르게 흐르는

찬란한 역사의 꽃 의암논개 묘 있나니

진주성 무너져 흩어졌던 의병들이
진양별 지수목의 남강기슭에서
이제 막 원수갓아 햇살같이 웃음번진
열아홉 청춘의 의암논개 주검건져
한여름 3백리길 낮에는 왜병피해
사흘밤 이슬속에 총총히 반장하여
가신님의 고향 길목 의병들의 창의지인
덕유의 영봉아래 양지 바르게 문었구려

이곳 함양은 천령의 옛 땅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대대로 살았거니,

밤 반장에 목숨건 의병선인들이시어

오늘 이 고을 군민들이 비하나 세우고
거룩한 충의를 삼가 추모하옵나니
민족의 애인으로 영원할 의암혼이
충효와 정절의 그때 모습 그대로
천령함곡 터전에서 전해지게 하소서

1989. 12.

함양군수 최 락 건



진주성 무너져 흩어졌던 의병들이 남강 기슭에서 논개와 수성장의 시신을 건져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에 반장하였다.

얽은막한 고개 넘어 논개의 고향땅 전라북도 장수군에 묻으려 했지만 금강으로 흘러가는 장수 땅의 물길에 영혼이 잠들 수 없었던지 원수를 꺼안은 남강, 그 남강이 시작되는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 묘소를 두고 후세의 풍수가들은 연화부수의 좌蓮花浮水之座(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자리)라는 명당이라고 한다.

바로 뒤에 부군인 최경희 진주성 수성장의 무덤이 보인다.



칠월칠석, 논개가 왜장을 안고 강에 뛰어든 그날이 되면, 유림(儒林)들이 차린 정부인(貞夫人) 격식의 추모제에 남녀 민초들이 앞드려 절하고 있다.

진주지역



진주시가지 전경

진주성

- 종목 : 사적 제118호 ○ 명칭 : 진주성(晋州城) ○ 시대 : 조선시대
- 분류 :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 수량/면적 : 173,036㎡
- 지정일 : 1963. 1. 21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성동, 본성동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진주의 성지(聖地)이다. 본시 토성이던 것을 고려조 우왕 5년(1379)에 진주목사 김종광(金仲光)이 석축하였다. 조선조 선조 24년(1591)7월, 경상감사 김수(金水 : 1537~1615)는 진주성을 수축하고 외성(外城)을 쌓았다. 동 25년(1592) 10월, 임진왜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진주목사 김시민(金蔭敏 : 1554~1592)이 3,800명의 군사로서 3만 여명의 왜적을 물리쳐 진주성대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계사년(1593)6월에는 전년의 패배를 설욕코자 10만 여 명이 또 침략하여 끝내 진주성이 함락되어 7만 민관군이 순절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때 논개(論介)는 적장을 안고 남강(南江)에 투신하였다.

기록에 보면 1605년(선조 38) 병사(兵使) 이수일(李守一)이 진(鎭)을 성내로 옮기고 성이 너무 넓어 수비가 곤란하다 하여 내성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성은 자연 축석루를 중심으로 한 진주공원 일대의 외성과 현재의 성내동(城內洞) 주변 내성의 둘로 나뉘게 되었다. 그 뒤 병사 김태허(金太虛)가 1607년 포루(砲樓) 12개를 증축하였고, 18년(광해군 10)병사 남이흥(南以興)이 성 수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의 진주성을 대략 이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 37년(1604)에는 합포(合浦, 마산(馬山))의 우병영을 진주성으로 옮겨 이래로 경상북도 병마절도영이 있었고, 고종 32년(1895) 5월부터는 진주관찰부, 건양 원년(1896) 8월부터는 경상남도관찰사의 감영이 있었다. 그리하여 1925년까지는 경상남도의 도청이 있었다. 성의 둘레는 1.7km이다. 성내(城內)에는 축석루·창열사·의기사·북장대·서장대·영남포정사·국립진주박물관·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단·축석문·공북문·호국사 등이 있다.

촉석루

- 지정 : 경남문화재 자료 제8호
- 위치 : 진주성 남쪽 남강변
- 규모 : 정면 5칸, 측면 4칸



촉석루(矗石樓)

진주성의 남쪽 남강가 벼랑위에 우뚝 솟은 촉석루는 남강과 벼랑과 어우러져 영남 제일의 풍광을 나타내고 있어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고려고종 28년(1241)에 김지대가 창건한 것으로 촉석루는 전쟁이 있을 때는 진주성의 지휘본부로 쓰여 졌고 평상시에는 누각으로 향시를 치르고 고시장으로 활용되었으며 6.25전쟁으로 불타기 전의 촉석루는 국보 제276호로 지정되었다가 1960년도에 재건되고 나서 문화재 자료가 되었다. 형태는 팔작와가 다락루의 형태로 전통루각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1960년대 당시의 촉석루 재건 사업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대단한 사업이었다.

의기사

- 지정 : 경남 문화재 자료 제7호
- 위치 : 진주성 남쪽

이곳은 제2차 진주성(晋州城) 싸움 뒤 왜장(倭將)을 꺾이고 남강(南江)에 투신한 논개의 영정(影幀)과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이다. 임진왜란 중 계사년 전투에서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진주성이 함락(陷落)되자 논개는 왜장을 축석루 아래 의암 바위로 유인하여 적장을 꺾이고 강물에 투신한 것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피하여 자결한 여인들은 많았지만 논개는 제 한 목숨을 던져 온 성민의 원수를 갚았으니 그 의로운 기개를 어찌 장하다 아니 하리요! 논개사당은 영조(英祖) 16년(1740)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가 건립했는데 지금의 건물은 1956년 진주의기창렬회에서 재건하였다. 사당에는 다산 정약용의 중수기와 매천 황현 서판, 한말 진주기생이었던 산홍의 시판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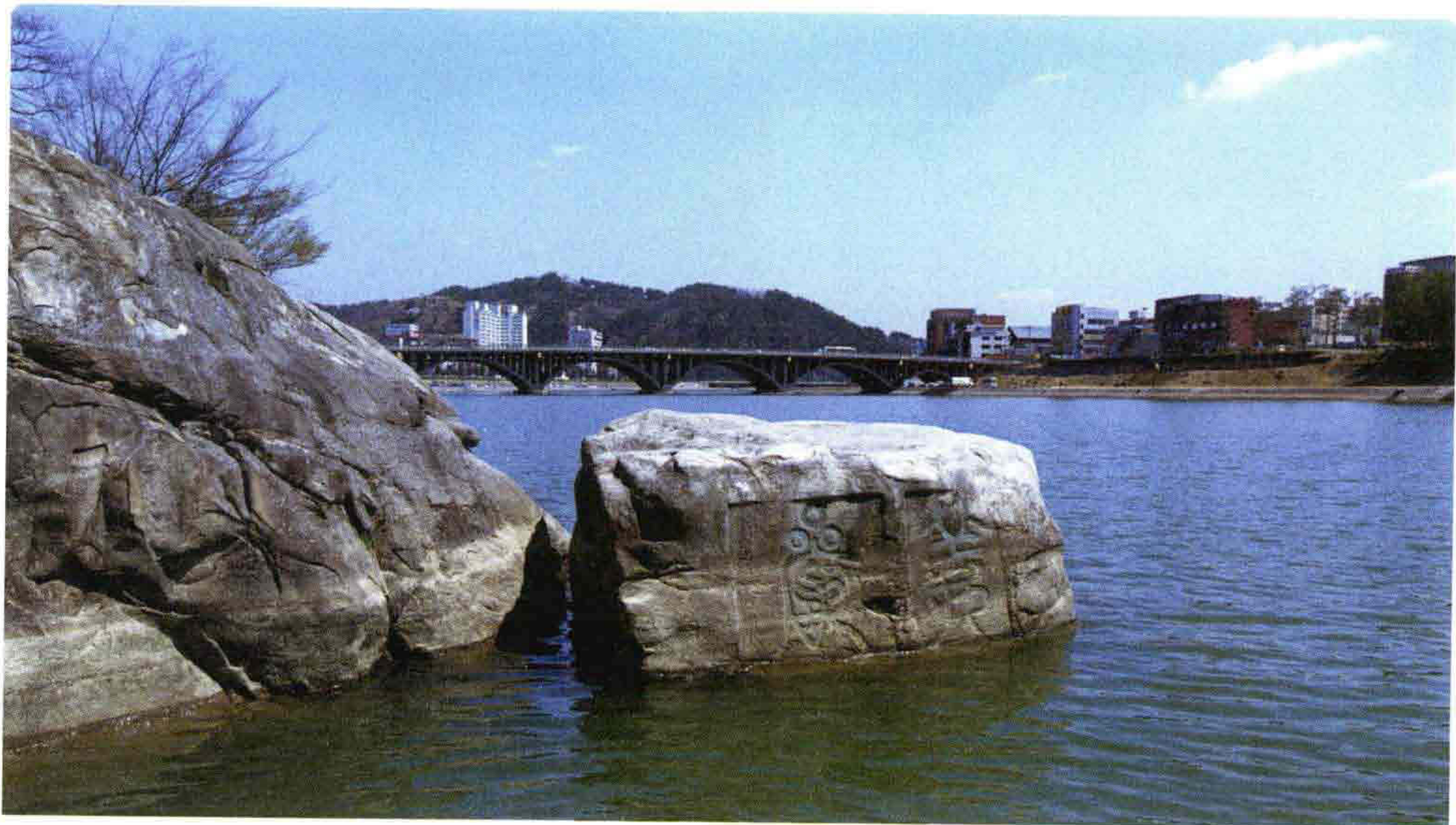


의기사(義妓祠) 전경(前景)



의암

- 지정 : 경남 기념물 제235호
- 위치 : 축석루아래 남강변



진주 남강의 의암(義巖)

진주성 축석루 암벽아래 남강 물속에 있는 바위로서 임진왜란 전에는 위험한 바위라 위암이라고 불리었으며 논개가 이 바위에서 왜장을 껴안고 투신한 후 의리를 세운 바위라 하여 의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바위는 편평한 윗면의 크기가 가로 3.65m, 세로 3.3m로 강물위에 솟아 있는데 오랜 시일을 두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 암벽 쪽으로 다가섰다가 때로는 강 쪽으로 이동하여 암벽에서 건너뛰기가 힘들 정도로 떨어지는 까닭에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전해온다. 예로부터 진주시민들 사이에는 이 바위가 암벽에 와 닿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바위서면에는 인조7년 원성 정대룡이 논개의 충절을 기리어 전서로 의암이란 글자를 새겼고 남면에는 조은 한몽삼이 해서로 의암이라고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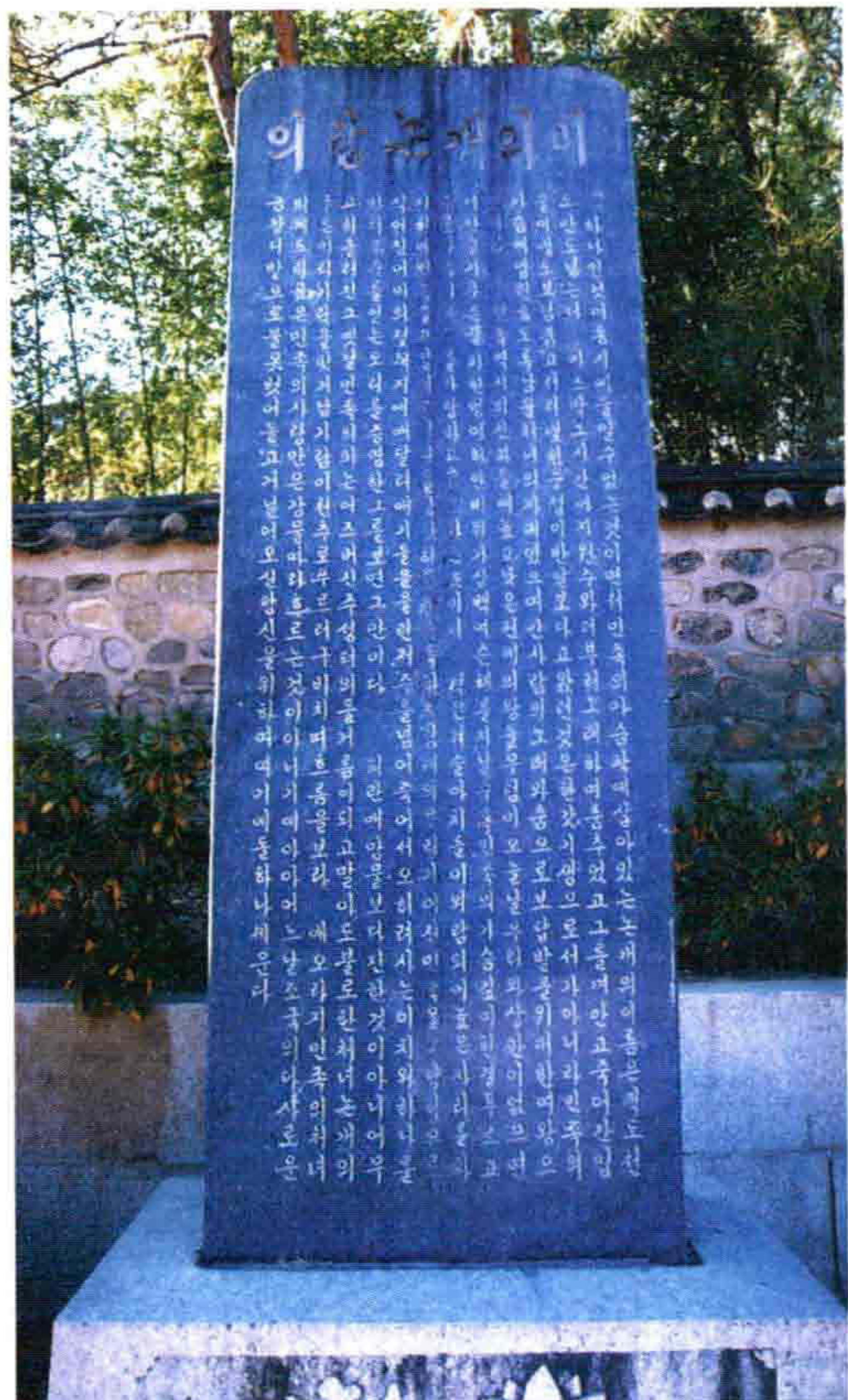
의랑 논개의 비

○ 위치 : 진주성내 의기사 앞

○ 이 비석은 논개가 순국한지 361년이 지나 1954년 의기창열회에서 진주 촉석루 서편에 있는 의기사 정원에다 세운 것이다. 이 비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진주에서 처음으로 논개가 장수군 계내면 주촌 태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순국사실을 만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 받을 위대한 여왕으로 추앙 찬양한 점이다.

○ 비문

하나인 것이 동시에 둘일 수 없는 것이면서 민족의 가슴팍에 살아 있는 논개의 이름은 백도 천도 만도 넘는다. 마지막 시각까지 원수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추었고 그를 껴안고 죽어간 입술이 앵두보다 붉고 서리 맺힌 눈썹은 반달보다 고왔던 것은 한갓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가슴에 영원하도록 남는 처녀의 자태였으며 만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 받을 위대한 여왕으로 서이다. 민족 역사의 산과 들에 높고 낮은 권세의 왕들 무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이 없으면서 한 줄기 푸른 물과 한 덩이 하얀 바위가 삼백예순 해를 지날수록 민족의 가슴 깊이 한결 푸르고 고운 까닭이라. 그



의랑 논개의 비(진주 의기사)

를 사랑하고 숭모한 뜻이라, 썩은 벼슬아치들이 외람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민족을 고달피고 나라를 망친 허물과 표독한 오랑캐의 무리가 어진 민족을 노략하므로 식어진 어미의 젖꼭지에 매달려 애기들을 울린 저주를 넘어 죽어서 오히려 사는 이치와 하나를 바쳐 모두를 얻는 도리를 증명한 그를 보면 그만이다. 피란 매양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며 무고히 흘러진 그 옛날 민족의 피는 어즈버 진주성터의 풀 거름이 되고 말아도 불로한 처녀 논개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겨 남 가람의 천추의 푸르러 굽이치며 흐름을 보라.

애오라지 민족의 처녀에게 드리고픈은 민족의 사랑만을 강물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에 아아 어느 날 조국의 다사로운 금잔디 밭으로 물웃 벗어들고 거닐어 오실 당신을 위하여 돌 하나 세운다.

논개의 사연으로

의남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 성은 주(朱)씨이다. 장수군 장수면 큰길가에 있는 논개 비각은 장수현감 정주석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 팔월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임진왜란 당년 오월 초 초사흔날 서울을 빼앗기고 유월 열 사흔날에는 평양이 떨어졌으니 진주통관 김시민 등의 사수분전 아래 진주성만이 홀연한 호남의 방패가 되었다. 다음해 선조 26년 계사 6월에 6만 왜병이 아연 진주성을 세 겹으로 둘러싸니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등 삼 장수를 비롯한 결사의거의 장병 육천이 밤낮 여드레 동안을 꼬박 혈투했으나 6월 29일 드디어 진주성은 무너졌다. 순국자의 피에 물들어 흐르는 남강은 불그레하고 한 마리의 개와 닭, 소와 말이 성할 리 없이 학살당한 성민의 죽음으로 고랑과 샘들이 모조리 메워졌다.

날이 새며 적들의 만홍은 더욱 도도하여 축석루 위에 벌어진 잔치가 한창 난만할 뿐이다. 이때 다락 밑 강 언덕에 외딴 넓적바위 위에 서는 한 사람의 꽃다운 여인 홀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 만취한 적장 모곡촌(毛谷村) 일설 석종로(石宗老)가 달

려 내려가더니 여인과 더불어 얼싸안고 환장처럼 즐기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적장을 껴안고 떨어지고 만다. 그의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 이분이 곧 의기 논개이다.

이 비를 세운 뜻은 한 해인 계사년 논개의낭 순국하신 육감을 기념하여 비롯된 것이다.

단기 4287년 갑오 10월 29일

의기 창열회 삼가 세움

글 지은이 설창수

글씨 쓴 이 오재봉

일 주장 김진숙, 임한산, 박봉래

돌 일한 이 박지문

논개지문에 새겨진 ‘의암사적비명’

- 위치 : 진주성 남강가
- 지정 : 경남유형문화재 제353호



○ 이 비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제2차 진주성전투(1593년)에 서 성이 함락되어 7만의 군·관·민 이 순절(殉節)하자, 의암(義巖)에서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은 논개(論介, 1574~1593)의 업적을 기록한 비이다. 논개에 관한 이야기는

진주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다가 1620년 경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쓴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실려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진주 사람들은 그녀가 순국한 바위에다 ‘義巖’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임진왜란 때의 충신·효자·열녀를 선정해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그녀의 사적이 빠져있다. 이는 그녀가 천한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편찬자들의 편견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진주 지역 사람들은 진주성이 함락된 날에 제단(祭壇)을 마련하여 그녀의 (魂)을 달래는 한편, 그녀의 의로운 뜻을 인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1722년(경종 2)에 명암 정식이 『어우야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문을 지어 이 사적비를 세웠다. 또 1741년(영조 17)에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남덕하(南德夏)가 왕의 특명을 받아 비각(碑閣)을 세우고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이로써 논개는 국가로부터 ‘의로운 기생’(義妓)으로 그 명예를 인정받았다.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의 상황이나 논개의 순국 사적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 비문

류어우(柳於于) 몽인(夢寅) 야담에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관기였다. 그때는 만력 계사년에 김천일 등 창의 장수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항쟁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개는 치장 성복하고 축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려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 나가 왜장을 끌어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임진왜란에 관기의 몸으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자를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어찌 논개 하나에 그치랴. 다 그 이름을 잊었으니 저 관기들을 음란한 창녀라고 하여 정렬이라 칭송함이 옳지 않다고 하나 죽음에 가기를 옛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니 썩지 아니하였고 적에게 맘을 뺏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성스럽게 되어가는 중의 하나이다. 참기 어려우나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적을 따르지 않는 것도 타의 아닌 충이니 그 기특함과 슬픔이다.

그 바위 홀로 섰고
 그 여자 우뚝 섰네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바위가 이 여자 아니면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한강의 외로운 바위가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승정 기원후 95년 임인 4월 일입

〈서기 1722년 (경종 2년)〉

임진대첩순의단

○ 위치 : 진주성내



○ 1592년(임진년) 음력 10월, 진주성 제1차 전투시, 김시민 진주목사를 비롯한 아군 3,800여명이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 2만여명과 치열한 전투끝에 왜적을 물리친 진주성 대첩을 기리고, 이듬해인 1593년(계사년)음력 9월, 진주성 제2차 전투시,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최경회, 충청병마절도사 황진 등 3장사를 의병, 관군 6,500명과 피난민 6만여명이 풍신수길의 명령으로 진주성을 재공격해온 왜군 10만여명을 맞아 11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순의하자 그들의 충혼을 위령하기 위하여 198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건립한 단이다.

□ 의암별제

1. 의암별제의 유래

의기(義妓) 논개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 행해졌던 의암별제는 국가로부터 그 순국사실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경종 1년(1721) 경상우병사로 부임한 최진한은 기녀의 신분으로 의(義)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논개의 의암(義巖)에 대한 국가의 포상을 요청하는 진주성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이를 수차에 걸쳐 국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최진한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하고 그 인본을 제출하자 급복(給復)의 특전이 주어지고 논개의 순국사실이 사실(史實)로 인정되었으며, 동시에 의기가 논개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공인되었다.

논개의 순국사실, 즉 계사년(癸巳年) 진주성 함락시에 왜장 모곡촌육조를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 의해 구전(口傳)되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사료(史料)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다. 그것의 하나는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이며, 다른 하나는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통해서이다. 「어우야담」은 논개의 순국사실을 전하는 유일한 기록으로 논개의 순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계사년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城)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축석루 아래의 가파른 바위 위에 있었는데, 바위 밑은 깊은 강물이었다. 왜병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왜장 하나가 당당하게 앞으로 내달았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이를 맞이하니 왜장이 그녀를 피어내려 하였는데 논개는 드디어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논개의 순국사실이 인정되는 전자(篆字)로 새겨진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는 인조 3년(1625) 정대룡(鄭大隆)이 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진주성민들은 계사년부터 논개가 순국한 바위를 의암으로 인식해왔으며, 다만 그 뜻이 문자로서 바위에 표기된 것이 30여년 후의 일일 뿐이었다.

논개의 순국사실이 확인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광해군 9년에 발간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작성 때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임진왜란 중의 충신, 효자, 열녀를 뽑아 수록한 이 책에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유교윤리에 젖어 있던 일부 편집자들이 관기를 정열(貞烈)로 표창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보수적인 집권 사대부들의 편견 때문에 그녀의 애국충정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경종 때 최진한의 노력과 영조 14년(1738) 경상우병사로 부임한 남덕하의 노력에 힘입어 영조 16년(1740)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받아 의기사(義妓祠)를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의암 부근에 세워진 의기사에서는 매년 음력 6월 29일 논개에 대한 추모제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후 정조 3년(1797) 경상우병사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했고, 순조 24년(1824) 진주목사 홍백순, 경상감사 이지연이 의기사를 중건하면서 종래의 6월 29일제를 폐지하고 의기사(義妓祠), 창열사(彰烈祠)와 같이 춘추상제(春秋常祭)로 시행해왔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고종 5년(1868) 진주목사 정현석이 경상우병사와 의논하여 의기사를 중건한 후 춘추상제와 별도로 6월 중 길일(吉日)을 택하여 제향(祭享)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의암별제(義巖別祭)였다.

의암별제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현석은 고종 4년(1867)에 진주목사로 부임하여 1870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① 전일천육십여량(錢一千六十餘兩) 신연쇄가 견감(新延刷價鑄減) ② 전일천사백여량(錢一千四百餘兩) 각양보폐(各樣補幣) ③ 의기사(義妓祠) 중건(重建) ④ 교방기구(教坊機具) 신설(新設) ⑤ 의암별제(義巖別祭) 신설(新設) 등의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고종 2년(1865)에는 노래와 춤에 관한 책으로 「교방가요」를 엮어 전통예능을 권장, 계승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2. 의암별제 복원경위

1868년부터 매년 지내오던 의암별제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매년 6월 29일 축석루에서 순의제(殉義祭)와 합동으로 봉행해왔었다. 1988년 순의단(殉義壇)이 건립되자 논개제(論介祭)는 음력 7월 7일 축석루에서 따로 봉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의암별제는 행해지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의암별제를 처음 창안한 진주목사 정현석이 쓴 「교방가요」가 발견되고 중요무형문화제 제12호 진주검무 최초의 보유자인 진주교방 출신의 고(故) 최순이 할머니의 구전을 기초자료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의암별제를 복원하게 된 것이다.

「교방가요」는 의암별제가무의 제의절차, 가자(歌者), 무자(舞子), 악공(樂工)의 수효 및 영신, 초헌, 아헌, 종헌에서 부르는 악보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의암별제의 복원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올해 재현된 의암별제의 의식절차 및 가(歌)·무(舞)·악(樂)등의 형식은 「교방가요」를 축으로 김기수에게 제례악보를, 김천홍에게 제례무보를, 성경린에게 제의홀기의 해제를 의뢰하여 작성된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최순이 할머니의 술회가 보태져 재현된 것이다.

최순이 할머니가 교방의 선배로부터 들은 바로는 축석루에 채화를 가득히 꽂아 꽃밭처럼 장식하고, 진주 일원의 기생들이 예복으로 곱게 단장하고 노래와 춤으로 제사 드리는 광경은 장관이었다고 한다. 이때 제관(祭官)은 기생 중에서 뽑아 제례(祭禮)와 악·가·무(樂歌舞)로 행제(行祭)케 하였다고 한다. 특히 본 제의가 끝난 후 펼쳐지는 뒤풀이 여흥잔치에서는 전국의 명기명창(名妓名唱)이 운집한 가운데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멀리서 모여든 구경꾼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고, 밤이 되면 이들은 축석루 건너편 백사장에서 밤을 세워가며 술 마시고 축석루 노래에 합창하면서 즐겼다고 전해진다.

문헌상으로는 음력 6월 중 택일을 하여 제향(祭享)하였으나 봄, 가을로 지내던 춘

추상제가 없어지고 현재 논개제가 음력 7월에 행해지는 관계로 음력 9월 9일 중양일(重陽日)을 제의일로 정해 봉행하였다. 예로부터 중양일은 크게 길한 날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또한 국화(菊花)의 날이라 논개의 순국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의암별제 복원의 의미

진주는 예로부터 풍류를 알고 즐기는 이가 많아 전통예능이 발달한 곳이다. 그 예로서 조선 후기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시속에 진주검무를 찬미한 구절이 있고 또 한말 시인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진주 명기(名妓) 산홍(山紅)이 검무를 잘 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진주검무 보유자 이윤례가 권번 선배들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고종 때 순종 탄신축하 행사에 진주검무를 춘 결과 최고상을 수상하여 옥관자를 비롯하여 많은 비단을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로 가(歌), 무(舞)를 중심으로 한 진주의 전통예능의 발달은 교방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짐작되는데, 임진왜란 당시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논개 역시 기녀출신이라는 점에서 진주교방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기록에 의하면 진주에는 고려 말엽부터 관기가 있었으며, 조선말까지 교방을 중심으로 존재하다가 한일합방 이후 궁중여악이 폐지됨에 따라 진주교방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기녀양성과 기업(妓業)은 관(官) 주도의 성격에서 민간 중심의 권번형태로 전환되어 6.25전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진주에서 교방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바로 정현석에 의해 교방청이 설치된 1867년경으로 볼 수 있다. 교방은 중앙의 왕실의 주도아래 설치 운영된 지방 분청 성격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었으므로 교방과 매개된 전통예능 역시 다채로운 내용을 가질 수 있었다.

한말 진주교방에서 교습된 춤으로는 육화대, 연화대, 헌선도, 고무(또는 무고), 포

구락, 검무, 선유락, 향장무, 아박무, 황창무, 처용무, 승무, 의암가무 등이었다. 교방청의 해체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헌선도, 포구락, 고무(무고), 선유락, 승무, 굿거리 춤, 의암가무 등이 추어졌으며, 춤의 교습방법은 매우 엄격했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각기 전공별로 기예(技藝)를 익혔다. 이때 권번의 학습내용으로는 춤 이외에도 예절(용모, 복장 포함), 기악, 시조, 창, 단가, 한문 등 다양하게 짜여 있었다.

이러한 진주권번의 예능전통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한량무(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 판소리 고법(鼓法, 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수궁가(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9호), 진주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등을 통해 오늘로 계승되고 있다.

임란 400여년 헤아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진주의암별제 복원의 의미는 바로 논개의 순국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난중에 제장이나 사대부들이 살신보국(殺身寶國)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논개는 단지 사대부의 희롱 대상인 관기로서 자신이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구국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질 수밖에 없다.

논개(1574~1593)의 출신과 성장배경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로 분분하나 성(姓)은 주씨(朱氏)이며 전라북도 장수군의 양반출신으로 알려진다. 17세 때 장수현감 최경회의 측실이 된 후, 최경회가 경상우병사로 진주에 부임하게 되자 그와 함께 진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임란 중 선조 26년(1593)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전사하자 논개는 왜장들의 축석루에서의 자축연 중 모곡춘육조를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순국하는데, 당시 일본에서 검객(劍客)으로 유명했던 모곡춘육조는 적국의 기녀의 손에 죽었다는 이유로 무덤이 없다가 1974년 구주대분현(九州大分縣)의 유지들에 의해 무덤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의암별제 복원의 의미는 이렇게 논개가 미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국충정을 발휘한 용기와 뜻을 복원하였다는 점 외에도 가·무·악이 곁들여 봉행되는 형식면에서의 특이성도 발견된다. 형식면에서 돋보이는 일반 여타 제의와의 차별성은 한말 진주 교방을 축으로 지내오던 의암별제가 일제강점기에 제의 자체가 금지되자 의암별제의

가·무·악을 진주권변의 학습내용에 포함시켜 계승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중 왜장을 유인, 함께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순국은 각종 문헌기록과 시비 및 사찰의 건립 등을 통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즉 유몽인의 「어우야담」, 정대룡에 의해 전자(篆字)로 새겨진 의암이란 두 글자, 오두인의 「義巖記」,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작성 때 논란되었다는 점, 의기사의 건립, 여기에 진주민들의 구전이 보태져 1868년 정현석에 의해 의암별제가 봉행되게 된 것이다. 재현된 의암별제는 당시의 의암별제 제의절차 전반이 수록되어 있는 정현석의 「교방가요」가 발견되어 이를 토대로 진주권변 출신의 고(故) 최순이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의암별제 복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논개의 순국이 남다른 의미가 부각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타 일반 제의의 단순한 추모제 성격에 비해 가·무·악이 함께 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한층 돋보였으며, 뒤풀이 여흥가무까지 재현하고 있어 거의 완전해 가까운 복원이었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¹⁾



1) 성계옥, 의암별제지, 도서출판보고사, 2006.

□ 논개 제향



□ 제향개요

- 일 시 : 매년 음력 유월 그믐 10:00
- 장 소 : 축석루(누각)
- 주 최 : 진주시
- 참석인원 : 300여명(기관단체장, 도·시의원, 일반 시민 등)

□ 제례순서

개례→신위봉안→점축·진설→개록→강신례→참신례→헌작(초헌례, 아헌례, 종헌례)→행장보고→참례자분향→사신→합독 및 납주→폐례(참례자 음복)

※ 논개 제향 유래

- 해방전까지는 의기창열회에서 봉행
- 해방이후 1962년까지 진주시 교육위원회에서 봉행
- 1963년~1979년까지는 진주시 봉행
-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행

화 순 지역



충의사

충의사

○ 위치 :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 409



충의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삼장사의 일원으로 순국한 최경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우이다.

장군의 자는 선우, 호는 삼계, 당호는 일휴당이며 본관은 해주로서 화순에서 태어났다. 1567년(명종22)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형조좌랑, 옥구·장수·무장현감, 영암군수, 영해·담양부사 등 내외 관직을 지냈다. 1591년 어머니 상으로 관직을 떠나 고향에서 시묘하고 있을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운, 경장 두 형과 아들 홍기, 조카 홍재, 홍우와 함께 의병청을 설치하고 수천의 의병을 일으켜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상복차림으로 북상하여 금산·무주의 왜적을 격퇴하였다.

경상우순찰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 “영남도 우리나라 땅이다.”하고 달려가 1차 진주

성 싸움의 외원으로 대첩을 거둔 뒤 바로 거창에 주둔하고 개령지방의 왜군을 공격하여 성주성 탈환에 큰 공을 세우는 등 영남 7읍을 평정하니 그 전공으로 1593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특별 임명되었다. 이해 6월의 제2차 진주성 싸움에도 참가하여 9주야의 항전 끝에 중과부적으로 성이 무너지니 조카 홍우를 탈출시켜 조복과 언월도를 고향의 중형께 보내고, 김천일, 고종후 장군 등과 함께 축석루에 올라 서사일절을 남기고 남강에 투신 순절하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뒤따라 논개가 왜적장을 꺼안고 순절하였고, 중형 경장도 의병대장이 되어 사천, 고성 등지의 왜적을 격퇴하였으며 장형 경운도 오성산성에서 항전하다가 부자가 순절하였다. 뒤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진주의 창열사, 능주의 포충사, 화순의 삼충사에서 제향해 오다가 고종 때 포충사와 삼충사는 훼손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군민의 숙원으로 2003년에 준공하여 후세를 위한 충효 교육의 도장으로 삼고 있으며, 경내에는 사당, 내삼문, 사적비, 의암영각, 기념관, 의삼문, 동상, 충효관, 관리사무소, 홍삼문, 어록비 등이 있다.

최경희 장군 서당



의암영각

○ 위치 : 충의사 경내



이곳은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 싸움 뒤 연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의분(義憤)과 통한(痛恨)을 참지 못해 왜적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남강(南江)의 위암(危巖)으로 유인하여 그를 꺼안고 깊은 강물 속에 뛰어들어 원수를 갚고 순절(殉節)한 위대(偉大)한 논개(論介)부인의 영정(影幀)을 모신 집이다.

이와같이 청사(靑史)에 빛나는 호국충절(護國忠節) 정신을 천추(千秋)토록 기리기 위하여 진주의 의기사(義妓祠) 장수의 의암사(義巖祠) 함양(咸陽)묘지(墓地) 등 위패(位牌)와 영정을 봉안(奉安)하고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여기 의향(義鄉)인 화순에서도 이곳 충의사(忠義祠)와 함께 의암(義巖) 영정각(影幀閣)을 지어 나라사랑에 귀감으로 삼고 있다.



문헌(文獻)에 주논개(朱論介)에 관한 기록들

주논개에 관한 고문헌(古文獻)

1. 《어우야담(於于野談)》¹⁾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²⁾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晉州城)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그때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축성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피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1) 《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류(種類)가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현재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우야담》 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 ‘연세대본(延世大本)’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1321)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이 민간(民間)에 흩어져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가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2)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나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論介者晉州官妓也. 萬歷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師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 人民俱死. 論介凝粧觀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賞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挺然直進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歎哀哉

2. 《의암기(義巖記)》³⁾

진양성(晉陽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속에 솟아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 가려면 한 걸음 밖에 앞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⁴⁾에 왜적(倭賊)이 침입(侵入)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논개(論介)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盟誓)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倭將) 한 명이 뛰어건너가 물으로 논개를 띄어 내려하였다.

3) 오두인의 문집인《양곡집》 권삼(卷三)에 <의암기(義巖記)>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1651) 쓰여진 것이다.

4)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선조) 26년(1593)을 가리킨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旌表)하였다고 한다.

의(義)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 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면 위시(衛詩, 《詩經》)에서 이른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晋州)의 한 창기(娼妓)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義)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大丈夫)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함으로써 당시 여염(閭閻) 집 부인(婦人)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恩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感動)하여 분발(奮發)케 한것이리라. 마치 남국(南國) 부인네들이 문왕(文王)의 인정(仁政)에 감화(感化)되어 강한(江漢) 땅의 풍속(風俗)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⁵⁾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周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晋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치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5) 여기서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는 이종인(李宗仁)을 가리키며, ‘김창의(金倡義)’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을 가리킨다.

있어 마침내 축서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

晋陽之城 轟石之下 南江之濱有一峭巖直入波心 四面皆水也 自陸而入 僅容一步 而於其上也 若差跬步 便是不測處 在昔萬曆癸巳 黑齒之入寇也 倡義使金千鎰 率敢死卒千餘人 入據晋陽城 以抗賊鋒 及其力竭城陷之日 城中之人 舉皆授首求活 而時有官妓論介者 誓不與賊俱生 視死如歸 凝粧靚服 飄然特立乎此巖之上 衆倭望見而悅之 懼其危而莫敢近 忽有一倭 挺身直進 將倭以出 妓乃伴笑而迎之 遂抱持其倭 投江以死 枯後之人 哀而義之 遂刻義巖二字 以旌其義云.

義哉巖也 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 衛詩所謂不可轉者耶. 彼以南州之一娼妓 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 辨此烈烈如大丈夫事業 以愧夫當日之髻婦 苟非我國家深仁厚澤 能使人感發者 有若南國婦人 化文王之政 變江漢之俗 則何以得此乎.

或云 金海府使李姓人 與金倡義 共守此城 事去之後 以左右手挾數倭 投死于此巖下云. 又何義烈之多至此也.

噫. 癸巳于今甲子纔一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辦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余以辛卯首冬之旣望越八日戊辰 行到晋陽 適值昔年陷城之日 州之人 例於是日 設祭江邊 以酌義魂云. 余於此 尤有所感 遂書于轟石樓 以爲義巖記.

3. 《명암집(明庵集)》⁶⁾

임진(壬辰)의 난(亂)에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축석(轟石) 바위 위에서 순절하였다. 공(公)께서는 이 일이 가리워져 없어지게 된 것이 아쉬워서 여러 방면으로 사적

6) 정식(鄭拭), 《명암집(明庵集)》 권6(卷六), 부록(附錄) ‘가장(家狀)’

(事蹟)을 찾아 관(官)에 재출하였다. 나무 비(木碑)를 만들어 세워서 공적(功績)을 포상(褒賞)하였다.

壬辰之亂 妓論介殉節於矗石巖上 公石其翳歿 搜訪各蹟呈官 樹碑以旌褒之

4. 《소계문(疏啓文)》⁷⁾

1) 양사우수개선보비변사장(兩祠宇修改先報備邊司狀)

진주(晉州) 사람 전별장(前別將) 윤상보(尹商輔) 등 수십여명이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운 글 가운데 말하기를, 축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 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7)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시민(金時敏)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 등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순조(純祖) 31년(1831)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회 등을 창렬사(彰烈祠)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前後)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 소계(疏啓),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이 《충렬실록》의 편찬과 간행 년도가 순조 31년(1831)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그 이전의 것들이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앓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이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義巖)이란 호(號)를 새겼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哀惜)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날날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

올린 소장(疏章)의 사건을 고증(考證)할만한 옛 기록은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고, 사실(事實)을 취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最近)에 야담(野談 : 於干野談)의 옛 기록 가운데에서 비로소 근인(根因)을 볼 수가 있었다. 곧 이르기를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⁸⁾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그 때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축석루

8)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 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피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라 하였다.

又有晉州人前別將尹商輔等數十餘人 枚舉等狀中 有曰 矗石之下 南江之上 有天下傷心處 乃義巖也 巖之義號 昔自龍蛇倭變後 始有其名 則豈名非千萬古不朽之大義哉 何者當失守城陷之日 帥臣及守令諸將血戰數三十員 舉皆抗節死義之後 惟餘一妓論介者 遽生爲國殲賊之計 盛服而獨坐於江岸矗石之上 或琴或歌 城上倭賊中日酋將 見而美之 卽下論介所坐處 論介乍示逢迎之氣色 其倭喜心放立之際 論介 忽抱其倭 投落姜中其巖乃江岸之別立 而上可容兩人之盤旋 其下則乃萬丈波心 而死出不意 則其倭數或勇力之賊 烏得免造次投落之禍乎 論介之視身如毛 立節如山可與日月爭光有餘耳 後人名其石曰義巖 士君子又以篆刻義巖之號 此巖未爛之前 則堂堂節義之稱 何獨泯於覆載之間乎 唐薛仁杲之降將 旁仙地復叛 有王氏女 取仙地所佩刀 斬仙地 詔封崇義夫人則惟此論介爲公除害之義烈 安有肯落於王女之後哉 當時戰亡諸臣 則祠之額之 今無後憾 而至於論介 則百餘年來 猶未能上徹天聽 前後識者之心惜義憾 當復如何 幸以此意 枚稟廟堂 以待處分何如

事呈狀 第未見可考之舊錄 無以取實 近於野談古記中 始見根因 則有曰論介者晉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

粧觀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巔上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
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歎哀哉云云.

2)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⁹⁾

…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의
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아려
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
異之禮)를 참작(參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義巖篆刻所見明白 而野記留傳 又爲現閱則可謂實跡 而似非虛濫之傳說 初雖娼妓未
乃死得其義 則揆以激勸 終不可爲 全然泯滅之歸 合有參酌褒異之禮 并只以此辭緣 先爲
稟報于備邊司

3) 관문(關門)¹⁰⁾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리

9) 이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는 앞의 내용에 이어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引用)하여 경종 2년(1722) 2월 비변사에 올린 것이다.

10) 이 내용은 비변사에서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내린 관문(關文)이다.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 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

官妓論介 則臨亂 忘身與賊俱死 果如流傳之說 則有足可尙 既無明白可據之文籍 則褒美重典 有難輕議 如有可據文籍 令本營論報本司後施行宜當

4) 신보(申報)¹¹⁾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사적(事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 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舉)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

官妓論介事蹟 古今官籍中 無一可據之形止 盖其義巖之名 一自論介死義之後 嶺人名

11) 우병사(右兵使) 최진한(崔鎭漢)이 그 뒤 비변사(備邊司)에 보낸 신보(申報)의 내용이다. ‘신보(申報)’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之以義巖 聞聲之 識者刻之 以義巖二字百餘年感惜之物情前後一同 既無子孫又小族屬 堂堂美名前後無階 公私并力 才豎尺碑於義巖之上 序以名之 俾不至泯滅之歎 碑文辭緣 則乃昔年柳夢寅 所作之野談云. 而因其談說鄴之於此 則豈不士林以下千萬人所其知 共知之實蹟刻義之石 萬目之所覩 而野談之文 古人之公意 則可據一節 無出於此 碑文印出 一度亦爲監封上送 參商變通行下以答嶺俗過百年抱憾之弊

5) 재관문(再關文)¹²⁾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¹³⁾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¹⁴⁾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官妓論介 抱賊投江 視死如歸 義巖之稱 只今傳說 官妓中 有此奇節 亦足可尙 尋訪子孫別爲給復 以示褒異之典 有不可已

6) 연보(連報)¹⁵⁾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査問)하였더니 지방

12) 최진한(崔鎭漢)의 신보(申報)를 본 비변사(備邊司)에서 다시 최진한에게 보낸 재관문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조정(朝廷)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곧 최진한의 신보(申報)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한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褒異之典)을 베풀도록 조치(措置)하라는 것이다.

13) ‘급복(給復)’이란 세금(稅金)과 부역(負役)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을 말함. ‘복(復)’은 ‘제(除)’와 같은 의미이다.

14) ‘포이지전(褒異之典)’이란 공적(功績)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特典)하는 일을 가리킨다.

15) 이 내용은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이 비변사에 보낸 연보(連報)이다. ‘연보(連報)’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보(連報)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稱號)가 관기에서 ‘의기(義妓)’로 바뀌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¹⁶⁾합니다.

義妓論介子孫有無 發關查問地方官 回報內論介子孫有無 境內坊曲古老人處祥加訪問 元無子孫云. 則給復一節 元無可施之地 緣由牒報

7) ‘청증직소(請贈職疏)’¹⁷⁾

또한 신(臣)이 일찍이 열람(閱覽)해 보았는데,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晉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축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礎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돌이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概)를 굽히고 몸을 관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

16) ‘첩보(牒報)’란 서면(書面)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첩정(牒呈)’과 같은 의미이다.

17)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보낸 ‘청증직소(請贈職疏)’이다. 논개에게 증직(贈職)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請願)하는 소장(疏章)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妄覺)한 채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英祖) 16년(1740)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가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¹⁸⁾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 낀 바위에는 ‘의(義)’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情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연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훈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사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¹⁹⁾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且臣嘗閱柳夢寅所著野談一册 有曰 論介者晉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

18) 여기서 ‘야담(野談)’이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말한다.

19) ‘외월(猥越)’은 ‘외람(猥濫)’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짓이 분수(分數)를 넘음.

之師 入據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散人民俱死 而論介凝粧靚復 立於矗石下峭巖之前其下萬丈直入波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而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遂抱其倭 直投于潭 彼官妓 淫娼也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從賊 無他忠而已 猗歟哀哉云 夢寅以文章名 爲此傳頗詳密 臣每讀至此 未嘗不掩卷而嗟異之及到晉營 矗石之下南江之上 果有峭石 而義巖二字大刻其上 臣訪於古老 則乃是論介投身殲賊之處 而其所傳說 頗與古記無異 臣見其巖而聞其說 不覺義膽之自激也 噫 當時之亂 屈節賣身者 不知幾何人哉 而孰謂一娼妓能辦士君子所難乎昔者薛人 杲之降將旁仙地之復叛也 有王氏女取仙地所佩刀 因刺仙地而斃之 詔封崇義夫人 以旌其義夫論介之所成就 詎下於王氏之後哉 嗚呼! 野記一篇芳名昭載 蒼巖半面義子不爛而泯沒至今 獨無旌義 此不但賤臣之所歎惜 實是南士之共咨嗟者也 如臣愚賤 地卑言微 前日再啓 俱未得行 則事不當更爲煩瀆 而且臣所管事務蝟劇 凡於恤軍賑飢之方 尙未自遑 則誠知此等事 不急於目前非關於分內 而猶且不避猥越 妄者論列者 哀彼諸臣一妓之取義抱冤 而既無子孫之呼號(?) 終絕天聽之登澈 故不容泯默而止 茲敢冒昧而陳伏願殿下 勿以人廢言 特於二十一諸臣 均施贈職之典 官妓論介 亦加旌表之章 用慰抑鬱之魂以爲激勸之方 不勝幸甚 臣無任激切析懇屏營之至 謹昧死以聞

8) 영조(英祖)의 비답(批答)

경(卿)이 상소(上疏)로써 위로 보낸 것에 관한 것이다. (그) 소장(疏章)들을 모두 갖추어 살펴 보았더니 당초의 것과 구별이 되니 반드시 까닭이 많을 것이다. 의암이란 것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야담(野談)의 기록을 어떻게 신빙(信憑) 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백여년전의 일을 가볍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경이 충렬(忠烈)을 포상코자 하는 뜻은 가상(嘉尙)하지만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유지(有旨)하였노라.

卿以上疏相送矣 省疏具悉 當初區別 必有委折 義巖雖存 野談所記 何可憑信 且百

餘年之事 似難輕舉 而卿之慾 褒忠烈之意嘉矣. 其令廟堂稟處事有旨

9)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²⁰⁾

영조(英祖) 병신(丙申, 16년, 1740)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희(允許)를 받게 되었다.

英祖丙申 本營兵使南公德夏 又啓請二十一臣贈職及義妓旌褒之典 竟得蒙允.

4. <<의기전(義妓傳)>>²¹⁾

만력(萬曆) 기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倭賊)들이 진주성(晉州城)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20) 정조(正祖)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肅)이 작성한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서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 서기 1740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官妓)’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로서의 정표를 윤희(允許)받았던 것이다.

21)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1739)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이 내용에서 의암 위에서 논개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그동안 논개의 순국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춤을 추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具體化)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性品)을 적게나마 파악(把握)해 볼 수 있다.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었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되어 달아나고 무너져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無知)하고 한결 같이 천(賤)한 창기(娼妓)가 사직(社稷)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년의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는가? 나는 이경(李敬)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招請)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

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晉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 喟然 曰國事至此生不如死然 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 曾長喜而來 遂嫣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清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了無讖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 校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

欲招李璿白士霖輩而告之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 거리에 있다. (上聞之 命立義妓之閭 閭在義巖北數十步許)²²⁾

5. 《의기사기(義妓祠記)》²³⁾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

22)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사(정려)’가 창건(創建)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의 내용이다.

23) 이 의기사기(義妓祠記)는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것이다. 그는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教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정약용(丁若鏞)이 <진주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를 지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補修)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丈人)이다.

현재의 의기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1983. 7. 20. 지정)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1824년 관찰사 이지연(李止淵)이 창건(創建)하였는데 6.25동란으로 소실(燒失)된 것을 1960년 사단법인 진주고적보존회(晉州古蹟保存會)에서 재건(再建)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와가(木造瓦家)로 맞배지붕이다. 윤여환이 그린 논개(論介)의 초상화를 봉안하였다.

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던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충신(忠臣)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²⁴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

婦人之性輕死 然期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污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旨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娘者引倭酋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恚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 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

24)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義 傲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今節度使洪公爲之補其破缺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轟石樓上.²⁵⁾

* 무기(附記) 의기사(義妓祠) 택지평(擇地評)

높은 나무 가지 위에 단정히 혈(穴)이 맺혀 있으니 가을 매미가 깊은 숲 속에서 노는 것 같고, 앞으로는 팔공산(八公山)이 가로 놓여 목성(木星)으로 보이며, 뒤로는 마산(馬山)이 뻗혀 있도다. 목(木)·화(火)가 상생(相生)하니 형세가 바르고 곧아 선조(先祖)들이 돌보아 줄 형국(形局)이다. 축석루(轟石樓) 앞이 넓게 펼쳐 있고, 저 멀리 산세(山勢)는 솟구치고 가라앉아 안전(安全)하도다. 산이 흐르다 머문자리에는 구비마 다 생기(生氣)가 약동(躍動)하도다. 산은 안으로 정기(精氣)를 함축하여 이 사당(祠堂) 자리에 응결(凝結)되었구나. 사당 자리는 네모로 반듯한데, 혈이 이 곳에 맺혔도다.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는 첩첩히 둘러 있고, 바깥 산 안 물이 구비구비 둘러 있어 옥(玉)같이 맑은 물을 감싸며 흘러가니 가히 이 곳이 명당(明堂)임을 알겠도다. 생기가 왕성하여 명당에 잠겼으니 이 곳이 학당지수(學堂之水)가 아닌가. 가히 귀인(貴人)의 사당임을 쉬이 알겠다.

동남간(東南間)에 뫼가 높아 여자(女子)가 부귀(富貴)하여 이 곳에 모셔진 분 크게 발복(發福)하겠도다. 서북간(西北間)에 뫼 풍만하니 크게 번창(繁昌)하고 부(富)하게 되겠도다. 동쪽의 산이 크게 살아 올랐으니 자손(子孫)이 크게 번창하겠도다. 서남간(西南間) 뫼에 기가 모아졌으니 식복(食福)이 연연(年年)하여 천년 만년 명당이 되어 향화(香花)가 끊이지 않겠도다.

25) 이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高樹頂上 穴星端靖 秋蟬嘲林 可知 前有八公 後有馬山 木火相生 廉正發祖 樓下開帳
起福連疊 忽大忽小 穿帳過峽 曲曲活動 心中出脉到頭一節 尖圍方正 穴星特起 龍砂虎
砂 重重環抱 外山外水 層層護衛 水如玉帶 可知大地 生旺之勢 墓庫停蓄 學堂之水 貴
人之祠 可知 忽出巽山 女發女貴 乾山豐滿 大昌大富 震山大肥 多子多孫 坤山聚氣 食
福年年 好好明堂 千萬香花.

6.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²⁶⁾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장수(長水) 사람으로 공(公)²⁷⁾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陷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賊將) 두 명을
유인(誘引) 마주 대한 채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 나서 자신도 죽었다. 뒤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놓기를
'의암(義巖)'이라 하였으며 비(碑)를 세웠다.

26)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即位年, 1800)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
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뒤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
다. 이 기록은 최경회(崔慶會)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진주(晉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이다. 즉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
경회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새로운 사실은 적장(賊將)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적장을 죽
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해오는 바 논개가 적장 한 명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게 하였
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개의 순국에 관한 기록에는 논개가 춤을 추다 왜장을 양팔로 껴
안고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기록에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먼저 물에 떠밀어 빠져 죽게 한 뒤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으로 되
어 있다.

27) 여기서 '공(公)' 이란 최경회(崔慶會)를 가리킨다.

7.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²⁸⁾

논개(論介)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로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倭將)은 논개와 더불어 축석루에서 큰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술에) 취하자 끌어안고 루(樓)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곳에 비(碑)를 세우고 고을(진주) 관청(官廳) 스스로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장수(長水) 본현(本縣)에 정려(旌閭)가 있다.

論介長水官妓 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 倭將與論介 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同投樓下 而死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懸長水

* 부기(附記)

崔慶會海州人號三溪受學於奇高峯大升門文科壬辰收散亡卒進至長水擊賊破之轉向晋州開寧屯賊聞風賁潰拜慶尙右兵使與金建齋入晋州累戰累却及其城陷登南譙樓北向四拜赴水而死 贈吏判旌閭享彰烈祠 賜額綾州褒忠晋州官奴得印於南江淺灘卽公殉節時抱而投江者也馳啓封進 英廟朝親製銘序親製祭文致祭于彰烈褒忠祠 諡忠毅綾州²⁹⁾

28)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의 내용이다. 논개가 순국한 뒤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의 내용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는 달리 '논개조(論介條)'를 따로 분리(分離)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라 하였으며, 진주 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이다'고 하여 그녀가 곧 '장수 사람이다.'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장수 태생이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뒷날 편집 간행되는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제기(提起)되는데 즉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기록이다. 그 정려가 장수 본현 어디에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져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되기 전까지 이 곳 장수 지역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금석문(金石文)이 세워졌다는 문헌적 기록이나 세워진 금석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남삼강록》의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거나 수단유사(收單有司)의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8. 《호남읍지(湖南邑誌)》³⁰⁾

의기(義妓) 논개(論介)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崔公)이 진주 병사(晉州兵使)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

9. 《진주목읍지(晉州牧邑誌)》³¹⁾

의암(義巖)은 축석루(矗石樓) 아래에 있다. 임진왜란 때 얼굴이 아름다운 한 기생(妓生)이 있었다. 왜적이 기뻐하니 기생이 바위 위로 달려가서 서니 왜적이 뒤쫓아왔다. 기생이 '너의 장수를 데리고 오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고 하니 왜적이 과연 데

29) 이 내용은, 참고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최경회조(崔慶會條)를 여기에 부기(附記)한 것이다.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는 철종(哲宗) 12년(1861) 간행되었는데 이는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보다 2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실기의 창의서록(倡義敍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위의 기록과 《호남삼강록》의 논개조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권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시첩(侍妾)이던 논개(論介) 역시 왜적(倭賊)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長水)의 기녀(妓女)였다.'

30) 《호남읍지(湖南邑誌)》는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년(1872)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에는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녀의 고향이 장수(長水)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이다.'고 밝히고 있다. 곧 그녀의 고향이 '장수의 임현내면 풍천'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들은 그녀의 고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장수 사람이다.'는 정도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면(面)과 마을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논개는 의(義)로운 기생 곧 의기(義妓)로 표현되어 있다. 논개가 다른 기록에서 처럼 '관기' 라든가 '진주 기생' 이라든가 '장수 기생'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이 다만 '의기'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는 내용 역시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경회가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즉 '장수 현감'이라는 직명(職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최경회가 진주 병사(晉州兵使)가 되어 진주성(晉州城)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도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논개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라 하겠다.

31) 《진주목읍지(晉州牧邑誌)》 고적(古跡), 의암조(義巖條)

리고 와서 욕(辱) 보이고자 하였다. 이에 기생이 적장(賊將)을 안고 물에 던져 죽으니 뒷 사람들이 이를 의롭게 여기어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를 그 돌에 새겼으며, 기생의 이름은 논개(論介)이다.

義巖 在矗石樓下 壬辰倭亂 一妓有姿色 倭見而悅之 妓走立巖上 賊追執之 妓曰率汝將來 吾當從之 賊果來慾汚之 妓抱賊將 投水而死後人義之刻義巖二字于其石妓名論介

10. 《청구야담(靑邱野談)》³²⁾

‘진양성의기사생(晉陽城義妓捨生)’

논개(論介)는 진양(晉陽) 땅의 기생(妓生)이다. 임진년(壬辰年) 왜적(倭賊)이 진양성(晉陽城)을 공격(攻擊) 할 때 상락군(上洛君) 김시민(金時敏)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지키며 여러번 싸워 여러 번 패퇴(敗退)시켜 왜적 수만명을 죽였다. 적들은 결국 호남(湖南)을 넘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6월(六月) 왜장(倭將) 청정(淸正)이 풍신수길(豐臣水吉)의 명을 받고 진양성에서의 치욕(恥辱)을 씻고자 십만(十萬) 병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包圍)하였다. 이 때 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최경회(崔慶會)와 충청(忠淸兵使) 황진(黃進)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 여러 공(公)들이 들어와 성을 지켰다. 유독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는 ‘이 성은 왜적이 힘을 다해 싸울려는 곳시오, 호남과 영남(嶺南)의 요충(要衝)과 관문(關門)이 되는 곳으로서 고단한 병력으로 강적(強賊)을 대항(對抗)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고 하여 끝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공들이 축석

32) 《청구야담(靑邱野談)》의 작자(作者)와 만들어진 년대(年代)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推測)하건대 조선·말기(末期)로 보인다.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필사본(筆寫本)이다. 그 결구(結構)와 수법(手法)이 묘하여 언어(言語)·풍속(風俗)·관습(慣習)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청구야담(靑邱野談)》가운데 ‘진양성의기사생(晉陽城義妓捨生)’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루에 모여 생사(生死)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히 일을 의논하였다. 왜군에서는 아래에 명을 내리기를 ‘작년(昨年)에 패퇴한 보답을 오늘에야 할 것이다. 이 성을 함멸(陷滅)시키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왜적은) 백방(百方)으로 공격을 했는데 10일만에 성을 함락되고 말았다. 성 안 6만의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고 여러 공들은 모두 남강에 이르러 죽었다. 이 때 논개는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왜장 가운데 가장 걸출(傑出)하게 생긴 자를 찾아 만나고 거짓으로 교태(嬌態)를 부리니 왜장이 기뻐했다. 그가 그녀를 겁탈(劫奪)코자 했으나 그녀는 허락치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왜장을 유인(誘引)하여 강가의 바위 위로 걸어나오게 했다. 그 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이 바위는 강가에 우뚝 솟아 있어 삼면(三面)이 모두 깊은 못이었다. 그래서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왜군의 진영(陣營)에서는 크게 놀랐다. 난이 평정(平靜)된 뒤 논개를 기려 ‘의기(義妓)’라 하고 강가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祭)를 지내고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이라 이름하여 ‘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는 여덟 글자를 새겨 두었다. 그 바위를 또한 ‘낙화암(落花巖)’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기녀가 강에 가라앉은 것을 낙화(落花)에 비유(比喻)한 것이라 한다.

論介者晉陽妓也。壬辰倭攻晉陽城。上洛君金時敏嬰城自守。屢戰屢敗。之殺倭數萬。賊終不敢窺湖南而歸。翌年癸巳六月倭酋清正承秀吉之旨。必欲雪晉陽之恥。率兵十萬來圍。時本道兵史崔慶會。忠清兵史黃進。倡義使金千鎰。金海府使李宗仁。復讐將高從厚。泗川縣監張潤諸公入守之。獨紅衣將軍郭再祐曰。此城倭賊必爭之地也。爲湖嶺要衝關隘(阨)之所。而孤軍遇強賊。必敗乃已云。而終不入城。諸公會轟石樓。誓同生死慷慨論事。倭下令曰。昨年敗衄之報。政在今日。不滅此城誓不旋踵。百道攻城第十餘日。城陷。城中六萬人。同日殲之。諸公皆扶南江而死。時論介凝粧盛飾。往見倭將之最傑鷲者。假意獻媚。倭將悅之。欲劫之。妓不從。以婉辭誘引倭將。步出江邊巖石上。與之對舞。此巖插在江岸三面皆深潭也。遂抱倭將之腰。墜入江中。倭陣大驚。亂平後。旌論介曰義妓。立祠江上祭之。名其石曰義妓巖。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字。其巖亦名落花巖。盖以妓之沈江。譬之落花云。

11. 《동감강목(東鑑綱目)》³³⁾

왜적(倭賊)에게 진주(晋州)가 함락되자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 죽다.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목사(牧使) 장윤(張潤)과 더불어 진주성에 들어와 지키니 한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의지(依支)하더라. 친히 흙과 돌을 짚어지고 기회(機會)를 따라 대응(對應) 변화하더라. 적이 올라다 보고 탄환(彈丸)을 쏘아 황진의 이마를 뚫어 죽였다. 최경회의 첩(妾) 논개(論介)는 왜장(倭將)을 꺾어 남강(南江) 가운데의 암석(巖石) 위에 놀다가 왜장을 안고 물에 떨어져 죽었다.

倭陷晋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 死之 忠淸兵使黃進 牧使張潤共入守晋州一城倚之爲重 親負土石 隨機應變賊仰防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誘倭將 溺南江中巖石上 抱倭將墮水而死

12. 《대동기문(大東奇聞)》³⁴⁾

논개는 진주 기생이다. 임진왜란 때 판관(判官) 김시민(金時敏)이 수천명의 잔군(殘軍)으로 수십만명의 대적(大敵)을 물리쳐 성 안이 보호되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거느린 병사가 거의 6만명에 달했으니 전에 비해 10배였다. 사람들이 모두 성의 지키는데 염려없다고

33) 《동감강목(東鑑綱目)》은 조선 말기 동방의 석학(碩學)이라 존경받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 1836~1906)의 유고이다. 이 내용은 《동감강목(東鑑綱目)》 제4책(第四冊) 제18하(第十八下) 계사장(癸巳章)에 기록되어 있다.

34) 이 책은 1926년 간행되었는데, 강효석(姜敷錫)이 편집한 것으로 기존의 각종 필기 야담류(野談類)의 책들을 두루 참고하여 조선 왕조별(王朝別)로 특기할만한 기담(奇談)들을 모아 엮은 한문(漢文)의 단편(短篇) 이야기 책이다. 이 글은 《대동기문(大東奇聞)》 권2(卷二), 선조(宣禮祖) 때 서예원(徐禮元)과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 하겠다. 진주성이 함락된 것은 2차 진주성 전투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癸巳年, 1593)의 일이다.

하되 논개는 유독 염려하거늘 김천일이 그 이유를 묻자 '전 날에는 병사가 비록 적었으나 장상(將相)들이 서로 사랑하여 호령(號令)이 한결 같았으니 이것이 승리한 일이오, 지금은 비록 병사는 많으나 군사들이 통솔이 되지 않고 장수는 병법(兵法)을 모르니 이 때문에 걱정이요.'라 하였다. 그러자 천일은 요망스런 말이라하여 그녀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좌우에서 말려 그쳤다. 성이 함락됨에 이르러 군사와 주민과 장교들이 모두 살육(殺戮)을 당하였다. 논개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 입고 이쁘게 단장(丹粧)하고 축석루 아래 초암(峭巖) 위에 서 있었는데 적장(敵將)이 (그녀를) 보고 희롱(戲弄)코자 하니 논개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몸을) 담수(潭水)에 던져 죽었다. 뒤 사람들이 그 바위의 이름을 일컬어 의기암(義妓巖)이라 하고, (축석의) 누(樓) 아래에다 사당(祠堂)을 세우고 매년 봄과 가을에 기녀(妓女)들이 많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論介는 晉州妓也라. 壬辰亂에 判官 金時敏이 以數千殘軍으로 能退數十萬大敵하여 城中이 得保러니 丁酉再亂에 牧使 徐禮元과 倡義使 金千鎰 所領兵이 幾至六萬하니 比前爲十倍라. 人皆謂守成無慮호되 論介獨憂어늘 千鎰이 問其由한되 對曰前則兵雖小나 將相이 相愛하여 號令이 出一하니 此爲得勝之本이오, 今雖兵多나 軍無統率하고 將不知兵하니 是以爲憂로라. 千鎰이 以爲妖言이라 하여 欲斬한되 左右勸解得止하다. 及城陷에 軍民將校盡被殺戮이라. 論介凝粧盛服하고 立於矗石樓下 峭巖之顛하니 敵將이 見而狎之어늘 論介抱其腰하고 投死潭水하니 後人이 各其巖曰義妓巖이라 하고 入祠樓傍하고 每年春秋에 群妓會集而祀之하더라. <靑邱野談>

13. 《일사유사(逸士遺事)》³⁵⁾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 여자(良家女子)로 재모(才貌)가 절운(絶倫)하

35) 이 《일사유사(逸士遺事)》는 장지연(張志淵)이 지은 것으로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 아닌 '양가여자(良家女子)'라 하였으며, 현감 최경회(崔慶會)가 아닌 현감 황진(黃進)이 논개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기적(妓籍)에 들게 되었다. 현감(縣監) 황진(黃進)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계사년(癸巳年) 황공(黃公)이 순난(殉難)하자 논개도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하였다. 진양성(晉陽城 : 진주성) 전투에서 황공이 순절(殉節)하였다. 논개는 가의로 가서 죽고자 하여 혼자 화장에 옷을 차려 입고 바위 위에 서 있자니 일본군 장수 모(某)가 보고 기뻐하며 띄어 데려가려고 하는데 술이 취해 있어 논개가 갑자기 허리를 안고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의암(義巖)’이라 하고, 바위 가에 비석을 세워 표시해 두었다. 고을 사람들은 또 축석루(矗石樓) 서쪽에 사당(祠堂)을 세워 매년 6월 29일 반드시 제사를 올리니 이 일은 계사년(癸巳年) 의리(義理)로 순절한날이다.

論介난 本長水縣 良家女니 才貌絶倫하고 幼失父母하고 家貧無依하야 遂落籍爲妓라 가 爲縣監黃進의 所愛러니 及晉陽之役에 黃公이 殉難이라. 論介欲赴水死하야 獨凝粧 艷服으로 立巖石上이러니 日將某 見而悅之하야 將誘而引之러니 酒 에 論介忽抱其腰 하고 投巖下俱死故로 名其巖曰義巖이라 하고, 立碑巖上而旌之하고, 州人이 又立祠于 矗石樓西하야 每歲六月二十九日에 必祭之하니 盖癸巳殉義日也러라.

14. 《장수읍지(長水邑誌)》³⁶⁾

1)

의기(義妓)로써 그것을 이은 논개(論介)는 이 곳(長水)에서 생장(生長)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구름에 따라 비가 내리듯이 진양(晉陽)으로 가서 (왜적을) 붙들고 강 가운데로 빠지니 미인(美人 : 논개)의 혼령(魂靈)이 오고 가는 정처도 없이 가득하다.

36) 이 《장수읍지(長水邑誌)》는 이 곳 장수 지방 유림(儒林)들에 의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 편집하여 1925년에 간행되었다.

그녀의 곧은 마음과 외로운 절개(節概)는 가히 여자 가운데 군자(君子)라 일컬을 만하다.

…繼之以義妓論介生長茲鄉 當龍蛇之運雲隨雨于晉陽 負沉于江中香魂磅 往來無定其
貞心孤節 可謂女中君子矣. …³⁷⁾

2)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晉州兵使)로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였을 때 논개(論介)는 공(公)을 따라 갔더라. 성(城 : 진주성)이 함락함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하고 적장(賊將)을 피어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에서 춤을 추다가 같이 물에 떨어져 죽었다. 뒷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이라 이르더라. 강 위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 지내노라.

崔公以晉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及城陷 盛粧 誘賊將對舞於 南江危巖之上 因以同墮江 而死後人 其巖曰義妓巖 立祠江上而祭之.³⁸⁾

15. 《민순지(閔順之)의 임진록(壬辰錄)》³⁹⁾

왜적이 성에 들어와 진주의 기생과 미녀를 다투어 노략질 했다. 논개라는 여자가

37) 이 내용은 《장수읍지》 서문(序文) 가운데 들어 있다.

38) 이 내용은 《장수읍지(長水邑誌)》 건권(乾卷) 절의장(節義章)에 기록되어 있다.

39) 17세기 중반 무렵 조선의 한 문인이었던 민순지가 쓴 「임진록」으로 모두 42자로 정리되어 남겨진 이 한 구절로써 40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 되어온 논개의 죽음과 신분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민순지의 임진록은 어딘가에 있었던 문헌이었다. 그러다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감행한 임진왜란 관련 역사 자료에 대한 조사와 강제 수탈 때 일본으로 운반된 수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임진록」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동경대학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동경대학에서 조선사를 전공하던 역사학자 이케우치히로시가 문제의 「임진록」을 대출받아 그의 집에서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23년 9월 저 악명 높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대학 도서관은 불타 버렸다. 그 때 이케우치의 손에 있던 「임진록」은 기적처럼 대 재앙을 피하게 되어 논개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일부러 예쁘게 꾸미고 있자니 적장이 좋아라며 다가왔다. 함께 촉석루 바위 위로 오른 논개는 적장을 끌어 안고 절벽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賊入城 爭掠州妓美女 有論介者 故盛粧而媚之
賊將悅而押之 輿遊轟石樓巖上 論介乃抱賊 將投崖而死

16.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⁴⁰⁾

“공의 부실이 공이 죽던 날 좋은 옷을 입고 강가 바위에서 거닐다가 적장을 유인해 끌어안고 죽어 지금까지 사람들은 의암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논개를 최경회 병사의 부실로 적고 있다.

且 其副室 公死之日 盛服婆娑於江中巖石詎 誘敵將因濟而俱墜死至今人稱義巖呼

40) 1987년 해주 최씨 문중에서 발행한 「일휴당실기」의 “경상우병사증좌찬성최경회공시장”의 논개 관련부분 “해주최씨 일휴당집 육의록 全” 161쪽.

주논개(朱論介)에 관한 시문(詩文)

시문

촉석루 회고 矗石懷古*

丁若鏞

바다 동쪽 오랑캐를 바라본 지 그 오랜 세월,
 붉은 누각은 높고 멀리 산과 언덕을 베었네.
 예날의 그 물결 위엔 꽃같은 가인의 춤이 어리고,
 단청 동자기둥엔 장사의 노래 길이 남았네.
 전쟁터의 그 봄바람은 초목을 휘감고,
 쓸쓸한 성의 밤비에 물안개 불어나네.
 지금도 사당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강신술을 올리네.

蠻海東瞻日月多	朱樓迢遶枕山阿
花潭舊照佳人舞	畫棟長留壯士歌
戰地春風回艸木	荒城夜雨漲煙波
只今遺廟英靈在	銀燭三更酌酒過

*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一集., 卷一. 이 시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이 그의 나이 19세 때 장인(丈人) 홍화보(洪和輔)의 청에 따라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을 지었다.

촉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

許 澹

지난 세상 묻고자 하나 강물만 동으로 흐르고,
 저물어가는 모래톱에 갈매기만 외롭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은 목숨을 던지지만,
 시절이 평화로울 때 시인은 누각에 의지했다.
 붉게 떨어지는 바위 꽃은 장한 혈기로 뭉쳤고,
 푸르른 강풀에는 의로운 기생의 수심이 서렸네.
 태평한 성대에는 책이 묵고 검이 녹스나니,
 큰 목소리 한 곡조로 마음껏 놀아보세.

往塵欲問水東流	只見沙鷗立暮州
世亂忠臣踏死地	時平騷客倚高樓
巖花紅落鍾雷血	江草青留義妓愁
聖代居然書劍老	浩歌一曲恣遨遊

* 許澹, 《濂湖文書》, 卷一. 시인 염호(廉湖) 허회(許澹, 1758~1829)는 촉석루를 찾아 논개의 절행을 노래했다.

의기사당
義妓祠*

李止淵

봄 산초 가을 계수나무는 강가에 허허롭고,
한밤중 바람에 환패소리 쓸쓸하다.
이후로 논개영혼 의지할 곳 있도록,
붉은 기둥 한 칸집 성가운데 세웠네.

春椒秋桂野汀空 環佩淒然半夜風
從此精靈依有所 一間朱棟起城中

* 李止淵, 《希谷集》, 卷一. 이 시는 희곡(希谷) 이지연(李止淵, 1777~1841, 자는 景進, 본관은 全州)의 작품으로, 그가 경상감사(慶尙監司) 재임시에 의기사를 중축하고 논개의 충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

촉석루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

金昌淑

전 세상 말하려하니 분한 눈물 흘러,
 힘없이 고개 돌려 옛 강가 바라본다.
 이 금수강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던가,
 비바람에 황량한 장사누각 뿐이구나.
 대독으로 호령하던 일 옛 꿈인 듯 희미하고,
 왜놈들 날뛰니 새로 걱정 생기네.
 의기암 강가엔 물결만이 분노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속절없이 노니는가.

欲說前塵憤淚類	悄然回首古汀洲
江山繡錯誰家物	風雨荒涼壯士樓
大纛號令迷舊夢	小酋橫突釀新愁
娉娥岩畔波猶怒	我輩何心汗漫遊

* 金昌淑, 《心山遺稿》, 卷一.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자는 文佐, 호는 心山, 본관은 義城이다. 그는 성주(星州) 출신 유학자(儒學者)이며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이다.

촉석루에 올라 登矗石樓*

催秉軾

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촉석루,
 긴 강만 외로이 성을 안고 흐르네.
 적막한 옛 언덕에는 부질없는 산새들이요,
 아득하게 긴 세상 한서린 갈매기네.
 삼장사의 석잔술은 송백의 절개요.
 논개 충절의 바위는 가을의 눈서리네.
 상녀의 정화곡을 듣자니,
 아득히 놀던 옛 일 그림네.

十載重尋矗石樓	長江獨自擁城流
古邱寂寞啼山鳥	浩劫蒼茫恨岸鷗
壯士三杯松栢節	義妓一石雪霜秋
忍聽商女庭花曲	往事蒼茫憶舊遊

* 催秉軾, 《玉澗集》, 卷一. 최병식(催秉軾, 1867~1928)의 자는 맹거(孟車), 호는 옥간(玉澗),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그는 조선 말의 학자로서 경북 합천(陝川)에 살던 선비로 10년 전에 촉석루를 찾았던 일을 회고하며 그 날의 감회와 함께 논개의 절의를 노래했다.

논개암에서 論介巖*

朴致馥

(序詩) : 본 시의 배경, 진주 남강 위에 서있는 축석루와 의암의 장엄한 서경, 거기에 서린 충성스런 영혼을 기림.

남강물은 만길이나 깊고,
강바위는 천길이나 높구나.
그 위에 백척의 높은 누각 있어,
장사들의 충혼이 머리카락 솟게 하네.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上有百尺高樓 壯士忠魂髮衝冠

(둘째 시) : 연인의 몸으로 왜장을 죽인 절행(絶行), 그로 인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했음을 칭송함.

살아서 욕됨이 미치지 않고자 하더니,
미천한 몸이 진실로 욕을 보게 외었네.

* 朴致馥, 《晚醒先生文集》, 卷三. 박치복(朴致馥, 1824~1894)의 호는 만성(晩醒),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이 시는 서시(序詩)에서 축석루에 서린 충열들의 영혼을 기림, 둘째 시에서는 논개의 절의를 찬양, 셋째 시는 총 70구로, 출생에서 사후까지 논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려낸 한편의 서사시이다.

왜장 하나 죽인 일들이라 말하지만,
현인들은 오직 왜적 하나 만이라고 하지 않네.
작은 여인이 왜장하나 죽인 것이,
왜적들의 자만스런 웃음 그치게 했네.

生不欲被汚 鱗介誠爲辱
等是死殲一倭酋 尙賢已莫道壹倭
小人殲壹倭 倭且休堪笑

(셋째 시) : 내용상 본장에 해당되는 장시. 4부로 구성.

여인들이 노래하며 걸어다니니,
오고가는 발길에 강둑 풀이 노랗구나.
구름은 등실 떠 오동나무 꽃을 어루고,
요염한 여인이 창문으로 고개 미네.
집집마다 천자의 아들 돈쓰듯,
노래와 웃음, 다투어 봄을 간지럽히네.
첩(논개)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에 떨어져,
몸은 창루가에 맡겨졌네.
꽃다운 나이 열여섯인데,
다만 우뚝한 자태 가련하구나.
천성은 본디 곧고 미뻐서,
내치고 싶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네.

步出閨閣曲 井井黃蘗塢

英女刺桐花 冶豔當囟戶
千家錢樹子 歌笑爭春妍
妾生墮髮形 寄身娼樓邊
芳年屬破瓜 多姿最可憐
天性苦貞諒 欲罷不能忘

나라의 운명이 임진·계사년의 간난 속에서,
천한 오랑캐(왜구)에게 오래토록 짓밟혔네.

관리들 사로잡혀 옥을 당하고,
종묘와 도성도 송두리째 타버렸네.
날 저물어 기둥에 의지하며 생각에 잠긴데,
긴 칼 끝에 초생달 모아드네.
고립된 성의 담장이 무너지니,
견고한 진주성도 지킬수가 없구나.
슬프다! 육만의 성민들이여,
관민이 한 날에 죽음을 맞았네.

天步屢辰巳 醜虜長蹂躪
衣冠辱俘據 廟者隨灰燼
日夕倚柱念 蛾眉攢脩劍
孤城乏儲胥 坐失金湯險
哀哀六萬人 同日爲猿鶴

탐욕한 왜장은 결상에 의탁한 채,

술에 흠뻑 취해 방자히 지껄이며 기롱한다.
 미련스레 꺾꺾웃으며 짐승처럼 나대더니,
 끌어내어 매질하며 제멋대로 음탕하다.
 단칼에 죽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욕되게 목숨을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오.
 피를 내고 곧 일어나서,
 기쁘게 그를 따라 춤을 추네.
 높은 누각은 시 읊기에 좋지 못하나,
 강가의 바위는 크고 넓어 믿을만 하단다.
 손을 끌고 가면서 원하여 말하기를,
 어두워질 때까지 노릴자 하더라.
 어리석은 왜놈은 아미 정신이 녹아서,
 그 말 따라 응락을 하였네.
 위험한 바위는 절벽 깎아 만들었나,
 위에는 겨우 소반하나 놓을만 한데,
 아래로는 천 길 못이 있네.
 흐르는 물결 힐끗보니 맑고 잔잔하데,
 섬뜩한 무서운 생각에 와락 끌어 안긴다.
 몸을 가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허리를 엮어 끌어 안는다.
 힘을 써 갑자기 발을 날린,
 만길 떨어져 풍덩 소리났네.

頑酋據胡牀 縱酒恣喧謔
 駭渠牡牡性 挑撻肆淫黷

一劍諒非難	經瀆竟何益
作計乃爾立	忻然隨俯仰
高樓正不韻	江石洵訐廣
願言攜手去	徬徬窮●旭
癡奴魂已銷	隨語聲應諾
危巖陡戍削	上可容盤礴
下有千仞潭	流漣澹清漣
強忍嚴閃意	近身稍向前
緊緊抱其腰	用力儻舉趾
颯颯萬丈下	—————

나와 너 함께 죽었으니,
 추한 뼈는 상어와 악어의 먹이되고,
 아름다운 넋은 용궁으로 모셨네.
 용궁은 바다에 통한다 하니,
 멀리 대동강(패강)과도 통하겠네.
 대동강에도 의로운 기생이 있어,
 왜놈의 배를 칼로 찔렀다네.
 빛나는 강물 얇은 듯 깊은,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르네.
 당대에 빼어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어,
 어여쁜 절개! 그 이름, 영원하리라.

—————	吾與爾共死
醜骨餌鮫鱔	香魂侍龍宮
龍宮達于海	遙與溟江通
溟上有義妓	剗刃奴腹中
菁江淺如泓	溟水西北流
絕代兩佳人	姘節名不休

의암에서 義巖*

鄭 杓

형세의 빼어남이 남쪽고을에서 으뜸인데,
 의로운 여인의 자취가 이 강가에 남았구나.
 천 년의 슬픈 원한 강물결도 흐느끼고,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 바위에 까지 남았구나.
 적막한 외로운 성 구름은 산골에 흩어있고,
 쓸쓸히 지는 낙엽, 달은 가을을 머금었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우뚝 섰자니 마음이 저려와,
 어렴풋이 먼 데 푸른산 보며 나루에서 눈물짓네.

形勝南州第一區	義娥遺躅此汀洲
千年哀怨江疲咽	萬古芳名石面留
寂寂孤城雪銷峽	蕭蕭墜葉月龍湫
臨風最是傷心處	翠黛依欵泣渡頭

* 鄭杓, 《明庵集》, 卷一. 정식(鄭杓, 1683~1746)은 조선(朝鮮) 숙종(肅宗) · 영조대(英祖代)의 학자인데 그의 자는 경보(敬甫), 호는 명암(明庵),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그는 당세에 영리(營利)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 항상 패랭이를 쓰고 명산(名山)을 유람(遊覽)하며 글을 썼다.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

金澤榮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마빛이런가
강위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넋이런가
강밑에 잠겨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토록 우리들 곁에 모셔두자

江水羅裙碧 江花魂氣遲
願收江裏骨 千歲傍要離

외로운 바위에는 봄바람 스치고
쓸쓸한 사당엔 이끼만 무성하다
오늘 강가를 거니는 여인들은
물에 비친 그 모습 곧 미인일세

孤石春風厲 荒祠蘇色滋
至今江上女 照水正蛾眉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춤추는 그대 모습

* 金澤榮, 《滄江集》, 卷二.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자는 우림(于霖), 호는 창강(滄江), 본관은 화개(花開)이며 개성(開城) 출신이다.

얼마나 고왔으랴 그대의 머리단장
내 이제 와 그대의 서린 원한 물어보니
강물만 소리없이 흐르고 흐르네

愛娘眞珠舞 愛娘錦纏頭
我來問芳怨 江水無聲流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

黃 玆

풍천나루의 강물은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논개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던가?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장계의 연로자들은 고향사람이라 자랑스러하고,
 축석루에서는 단청하고 순국함을 제사지낸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았다 하지만,
 기생이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리.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產	矗石丹青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 黃玆, 『梅泉集』, 卷三. 황현(黃玆, 1855~1910)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그는 학자·우국지사(憂國志士)로 1885년(고종 22) 생원시(生員試)에 장원(壯元)했으나 시국(時局)의 혼란함을 개탄(慨歎)하고 은퇴하여 향리(鄉里)에서 지냈다.

의기암에서 義妓巖*

安鍾彰

한여인이 의롭게 죽었으니,
 곰과 물고기의 덕이라 하겠네.
 밝게 빛나는 청정한 자태여!
 늠름하고 결백한 지조여!
 왜장 한 놈 죽였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네.
 한 작은 여인이라 말하지 마라,
 만 장부의 팔뚝처럼 떨쳤다네.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갈지 못하니,
 천년의 의암 언제나 남아있네.

女子死於義	熊魚判容易
濯濯冰玉姿	凜凜霜雪志
莫謂一倭死	萬膽同日墜
莫謂一女小	能奮萬夫臂
江流石不磨	留得千載義

* 安鍾彰, 《希齋集》, 卷一. 안중창(安鍾彰, 1865~1918)의 자는 치행(致行), 호는 희재(希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의기암에서 義妓巖*

金昌淑

기특하고 아름답도다! 이 나라 역사 위에,
기녀로서 의암이 있었다네.
괘씸하구나! 고기 씹는 작자들,
나라 버리고서 무엇을 그리 탐하느냐?
의기사는 바위 위 언덕에 높는데,
남강물은 의암 아래로 흐르네.
지금의 탐욕스런 부자들아,
의암의 충절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가!

奇絶青邱史	娼家有義巖
咄哉肉食子	負國尙何鑱
祠高巖上岸	水咽岩下潭
卽今封家食	此義少入傷

* 金昌淑, 前掲書, 卷一.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호는 심산(心山)이다. 그는 유학자로 논개의 충절을 칭송 쇠락해 가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고시조(古時調)*

安玟英

矗石樓 欄干맞기 南江水碧 白鷗飛라
슬푸다 一片石은 貞忠孤魂을 실엇고나
西風에 薫드러 위로할제 눈물겨워 ㅎ노라

*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 4162, 亞細亞文化史, 1992. (4162는 시조집의 歌番임) 이 시조는 안민영(安玟英, 1816~?, 자는 聖武, 호는 周翁)의 개인 가집(歌集)인 『金玉叢部(金玉叢部)』에 실려 있어 작자가 안민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서민(庶民) 출신으로 운취가 있어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명리(名利)를 좇지 아니하는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

작자미상

(가)*

말고 말고 江南水야 壬辰 이를 네 알니라
忠信과 義士덜이 몇몇치나 저난고
아마도 女中丈夫난 論娘子가 흥노라

(나)**

矗石樓 발근 달이 論娘子의 녀시로다
向國한 一片丹心 千萬년에 비취오니
아마도 女中 忠義난 이 인가 흥노라

* 작자미상. 조선조(朝鮮朝) 고종대(高宗代) 정현석(鄭顯奭)이 편찬한 시조집인 『교방가요초(敎坊歌謠抄)』(1872년)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가)와 (나)의 시조에서는 시인이 논개를 의기(義妓)라 하지 않고 ‘논낭자(論娘子)’라 칭하고 있다.

* 박을수. 전계서. 4163.

화채비결(花寨秘訣)*

朴乙洙

論介는 우리 祖上 桂月香은 우리 先生
殺身成仁 그 忠節은 千萬年에 빛나도다
우리도 너를 模範하야 視死如歸

* 박을수, 전게서, 4754. 이 시조는 <대한매일신보>(제969호, 1918년 12월 4일자) '사조(詞藻)'란에 발표되었다. 시인은 이 시조에서 논개와 계월향을 같이 노래하고 있다. 논개와 계월향은 기녀이면서도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킨 인물들이다.

촉석루(矗石樓)*

김상옥

헐린 城郭을 둘러 강물은 흐르고 흐르고
나루에 빈 배 한 채 몇몇 날로 매였는지
갈밭속 해질 무렵에 기러기떼 오른다.

흰 모래 깔린 벌에 대숲은 푸르는데
무너진 흙담 안에 祠堂은 벽이 없고
비바람 추녀에 들어 쯤살 마자 식는다.

웁쓸어진 古木을 돌아 다락에 올라서면
옷빠는 안악네는 끼리끼리 모여앉아
蒼蒼한 傳說을 띄워 물과 함께 보낸다.

* 김상옥, 《초적》, 수향서헌, 1947. 이 시조는 역사의 사적으로서 촉석루와 황량(荒涼)한 남강변의 배경을 들어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촉석루(矗石樓)*

矗石樓 돌아드니 論介 적이 어느 때냐?
悠悠한 南江물은 예보던물 아니러든
한숨만 그젠듯하여 차마禁치 못하네.

高樓에 비긴 별은 그때 별과 다르다만
義岩이 서있는데 물결만이 굽이친다
고기배 無心하여라 魂남는 듯 하고녀.

살아서 못다한 恨 대(竹)가 되어 솟단말가?
있있이 눈물ियो 마디마디 마음이라
실바람 지날때마다 울음소리 같아라

* 이상 · 정태진 편,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1946.

진주의기사영송신곡(晋州義妓祠迎送神曲)*

정인보

계실젠 진주기생 떨어지니 나랏 「넉」이
남강물 푸른빛이 그제부터 더 「지터」라
오실제 길뭇지마소 「핏줄」 절로 당귀리.

「레」맛고 문다드니 물넘어는 산들이라
이강산 못「잇」기야 죽어살어 달르릿가
뚫단배 어이섯는고 님이신 듯 하여라.

* 정인보,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촉석루(矗石樓)*

이호우

늪어 누운 나무 병들어 쓰러진 나무
깎아 선 벼랑 끝에 가을바람 울고 가고
빈 다락 석양(夕陽)하늘에 낚을대로 낚았다.

두어 두어도 百年을 못하는 목숨들이
한 나라 흥망(興亡)에 걸려 싸워 죽은 자리
모래는 희기만 하고 대수풀은 푸르고

흔적도 없는 성(城)터는 차라리 서럽지 않다
창연한 전설(傳說)을 지니고 외로 남은 의암(義巖)
저무는 강(江)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는다.

* 이호우,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남강에서*

원용문

진주를 하나로 잇는 진양교가 누워 있다
오늘도 봄바람 타고 이 난간을 짚고 서면
왜인의 시린 칼날이 콧등에 와 닿는다.

남강은 산 역사의 강 꽃은 저도 푸르러 오고
저 물결 멎는다 해도 그의 낮은 백사(白沙)로 남아
임진년 덜 씻긴 한을 행궤내고 있을 거다.

강안(江岸)에 길로 자란 푸른 대밭, 푸른 노래
논개, 우닐던 자리 대나무로 앓은 뜻은
우리네 앓을 자리를 바로 일러 줘일 게다.

* 원용문, 《남강물에 촉석루 비치고》, 1981.

논개 사당의 백일홍*

박종옥

유월에 서리 맺은 여인의 매운 한을
삼단 같은 머리 풀어 밤마다 울어 예더니
백날을 소지 올리는 불꽃이, 불꽃이 인다.

그 불씨 하나 벼랑을 물들이고
하늘도 물이 들어 구천으로 번지면
백날을 밝히던 햇불 대들보를 그을렀다.

* 출처 《時調文學》 제9호, 1976 겨울.

초혼의기(招魂義妓)*

安之亭

가련타 가련타 의기선생 가련타

황량한 사우(祠宇)에 이 빠진 제기(祭器) 이지러진 술잔이 가련타
선생이 만약 남자였다면 충렬사 안에서 혈식 받는 분이었으리.

可憐他 可憐他 義妓先生 可憐他

一片荒祠 冷豆殘盃 可憐他

先生若爲男子身 忠烈祠中血食人

지정(之亭)은 말한다. “후배가 선배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논개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노래의 특색이고, 또 의기(義妓) 논개에서 감복하고 있다. 충렬사와 대등하게 보지 않는 것 또한 가극하다.”

〈이능화(李能和),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동양서림·한남서림, 1927에서)

* 이 글은 김해(金海) 출신으로 구한국 황실 수학원(修學院) 교관(教官)이었던 안지정(安之亭), 이름 왕거(往居)가 지은 『열상규조(洌上閨藻)』에 기록된 글을 이능화(李能和)가 『조선해어화사』에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나’는 지정(之亭) 안왕거(安往居)가 된다.

기암기녀(斯巖斯女)*

鄭 棡

진주(晉州) 남강(南江) 기슭에 있는 정문 속에 있는 송비(頌碑)에는 아래와 같은 송시(頌詩)가 있다.

獨峭其巖	特立其女
女非斯巖	焉得死所
巖非斯女	焉得義聲
一江孤巖	萬古芳名

그 바위 홀로 솟아 있고
 그 여자 우뚝 서 있네.
 여자 이 바위 아니었으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을까?
 바위 이 여자 아니었으면
 어찌 의롭다는 소리 얻었을까?
 한 강 외로이 선 바위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 鄭棡(1683~1746) 조선 숙종조 영조대의 학자. 호는 明庵. 병자호란 때에 金之純이 쓴 作和疏를 읽고 영리를 구하지 않고 항상 패랭이를 쓰고 명산을 유람하며 글을 썼다.

등축석루(登矗石樓)*

李承晩

彰烈祠前江水綠 義巖臺下落花香
笞碑留得龜頭字 壯士佳人孰短長

彰烈祠 앞에서 강물이 푸르고
義巖臺 그 밑으로 落花가 향기롭다
이끼 낀 빗돌의 龜頭에 남은 글자.
壯士와 佳人을 두고 길다
짧다 누가 말하리

* 李承晩(1875~1965) 황해도 평산 生. 아호 雲南. 정치가. 독립운동가. 상해임시정부대통령. 1948 초대대통령 취임. 4선되었으나 1960년 4·19의거로 실각. 저서 『독립정신』, 『일본폭로기』 등

진양별곡(晉陽別曲)

세지적방(歲在赤方)이요 시유구추(時有九秋)라
 공행(公行)을 인연(因緣)하여 완경(玩景)을 흐으리라
 진양성(晉陽城) 드러다라 고적(古蹟)을 츠즈보니
 보장(寶帳)의 중重흔 일흠 윤탁(尹倬)의 경괴(景概)런가
 성지(城地)의 견고(堅固) 흠은 당티도(唐太祖)의 기업(起業)인가
 산천(山川)도 슈려(秀麗)하고 성곽(城郭)도 응위(雄偉)홀샤
 축석누(矗石樓) 놀너보니 장녀(壯麗)도 하하올시고
 칠세아(七歲兒) 쓰은 글시 괴 장(壯)도 흐거고나
 흐날이 어이하여 세 글즈의 필명(畢命)흔고
 난간(欄干)을 의지(依支)하여 좌우(左右)로 부앙(附仰)하니
 장강슈(長江水) 도도(滔滔)하여 전후(前後)로 돌너 잇고
 죽림(竹林)이 소소(疎疎)하여 동서(東西)로 슈풀이라
 슬푸자 진스년(辰巳年)의 왜구(倭寇)가 창궐(猖獗)하여
 인민(人民)이 분찬(奔竄)하니 만성(萬姓)이 어육(魚肉)이라
 널널(烈烈)하다 삼장사(三壯士)는 이 싸히 입절(立節)홀 제
 흔 잔(盞) 술 손의 들고 삼인(三人)이 병명(竝命)홀샤
 거룩홀손 논기(論介)야 녀중의협(女中義俠) 네 아니냐
 왜장(倭將)을 구지 안고 낙화암(洛花巖)의 썬러지니
 방명(芳名)이 휘황(輝煌)하여 천고(千古)의 이르거다

일편석(一片石) 삭여너여 충절(忠節)을 표장(標章)홀샤
 유연(悠然)히 안즈시니 감회(感懷)가 일비(一杯)로다
 남강(南江)의 비를 씩워 창벽(蒼壁)으로 내려가니
 구벽 구벽 비는 물결 푸른 김을 펴여시며
 면면(綿綿)히 층암절벽(層巖絕壁) 슈묵도(水墨圖)를 둘러난닷
 강산(江山)이 가려(佳麗)하니 풍경(風景)도 도흘시고
 슈백년(數百年) 승평(昇平)하여 병혁(兵革)을 모로거니
 풍뉴(風流)의 일을 삼아 가관(歌管)을 직촉한다
 일디홍분(一隊紅粉) 나아와서 청가묘무(淸歌妙舞) 두리오니
 처창(悽愴)흔 이 너 회포(懷抱) 거의 아니 풀닐쇼냐
 병상(兵使)이 신근(辛勤)하여 주효(酒肴)를 보너거다
 권주가(勸酒歌) 흔 곡조(曲調)의 주흥(酒興)이 절노 나너
 일비일비(一杯一杯) 부일배(復一杯)로 취(醉)토록 먹은 후(後)의
 석양(夕陽)이 직산(在山)하고 인영(溼影)이 산란(散亂)홀 제
 어부사(漁父詞) 긴 노리로 비를 저어 도라오니
 허다흔 아황분백(蛾黃粉白) 유정(有情)하미 이실쇼냐
 소소(素素)흔 이 너 백발(白髮) 그 뒤라셔 도라보리
 본관(本官)의 후(厚)흔 뜻이 월노홍사(月老紅絲) 되시라나
 찬 직 갖흔 이 너 마음 노승(老僧)의 입정(入靜)이라
 우쇼(寓所)로 도라오니 월식(月色)이 삼경(三更)이라
 촉(燭)불을 도도오고 일곡가(一曲歌) 지엇노라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악부(樂府)』(下) 수록 「진양별곡」〉

시조와 시

논개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람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땨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맞추엇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 卞榮魯(1897~1961) 아호 樹州. 서울 生. 이화여전 교수. 해군사관학교 교관. 국제펜클럽 회장. 저서 시집 『조선의 마음』, 『수주시문선』, 수필집 『명정 40년』.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바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논개(論介)의 애인(愛人)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

한용운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南江)은 가지 안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矗石樓)는 살가튼 광음(光陰)을 찌러서 다름질
칩니다
논개(論介)여 나에게 우름과 우습을 동시(同時)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論介)여
그대는 조선(朝鮮)의 무덤가온대 피엿든 조흔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씹
지 않는다
나는 시인(詩人)으로 그대의 애인(愛人)이 되얏노라
그대는 어데 잇너뇨 죽지 안한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업고나
나는 황금(黃金)의 칼에 배혀진 꽃과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 당년(當年)을 회상
(回想)한다
술향기에 목마친 고요한 노래는 옥(獄)에 무친 씹은 칼을 울녔다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鬼神) 나라의 꽃수풀을 거쳐서 찌
러지는 해를 얼녔다
간알핀 그대의 마음은 침착(沈着)하얏지만 떨니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아름답고 무독(無毒)한 그대의 눈은 비록 우섯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욱 쉬웠다
붉은 듯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하다가 희여지며 가늘게 떨니는 그대의 입설은 우습
의 조운(朝雲)이나 우름의 모우(暮雨)이나 새벽달의 비밀(秘密)이나 이슬꽃의 상징

* 韓龍雲(1879~1944) 승려. 독립운동가. 법호 巨海. 충남 홍성 生. 저서 시집 『님의 침묵』 외
수 권. 소설집 『흑풍』, 『후회』 등 다수.

(象徴)이나

썩비 가튼 그대의 손에 썩기우지 못한 낙화대(洛花臺)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醉)
해야 얼굴이 붉었다

옥(玉) 가튼 그대의 발꿈치에 밟히운 강(江) 언적의 묵은 이끼는 교궁(驕矜)에 넘쳐
서 푸른 사롱(紗籠)으로 자기(自己)의 제명(題名)을 가리었다

아아 나는 그대도 엮는 빈 무덤 가튼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엮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너볼 기회(機會)가 엮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 잇는 꽃을 꺾글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여 잇는 꽃을 꺾그라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거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容愆)하여요 논개(論介)여 금석(金石) 가튼 굵은 언약을 저바린 것은 그대가
아니오 나입니다

용서(容愆)하여요 논개(論介)여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히 누어서 끼친 한
(恨)헤 울고 잇는 것은 내가 아니오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씨를 황금(黃金)으로 색여서 그대의 사당(祠堂)에 기념비(紀
念碑)를 세운들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오릿가

나의 노래에 '눈물'의 곡조(曲調)를 낙인(烙印)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祠堂)에 제
종(祭鍾)을 울닌대도 나에게 무슨 속죄(贖罪)가 되오릿가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遺言)대로 그대에게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永遠)히 다른
여자(女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가티 이즐 수가 엮는 맹
서(盟誓)입니다

용서(容恕)하여요 논개(論介)여 그대가 용서(容恕)하면 나의 죄(罪)는 신(神)에게 참회(懺悔)를 아니한대도 사라지것습니다

천추(千秋)에 죽지 않는 논개(論介)여
하루도 삶수 업는 논개(論介)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질겨으며 얼마나 슯흐것는가
나는 우습이 제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제워서 우습이 됩니다

용서(容恕)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論介)여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님의 침묵(沈默)』(1926)에서>

논개(論介)

盧天命*

論介 치마에 불이 붙어
論介 치맛자락에 불이 붙어
論介는 南江 비탈 위에 서서
火神처럼 무서웠더란다.
「우짜고 오매야! 축석루가 탄다 축석루가」
마지막 지붕이 무너질 제는
기왓장 내려앉는 소리
온 晋州가 진동을 했더란다

* 盧天命(1912~1957) 황해도 장연군 생. 신문기자·잡지 편집장. 저서 시집 『산호림』 외 수필집 『산딸기』, 『나의 생활백서』 등.

꺼지지 않는 등불

모운숙*

오오! 이 마지막 밤이여!
어서 나를 몰아가다오
나의 성, 나의 사람, 시민 장군이시여!
異邦의 사나이를 껴안은 채
두 몸이 한 몸 되어
최후의 길에 올랐습니다.

……〈중략〉……

서투른 기교로
때로는 분노를 억제하며
지체 높은 이들의 시중을 들지만
그것은 참다운 내가 아니어라
뚫을 수 없는 그물에 걸려
우리 안에 갇힌 수인(囚人) 같은 것
그것은 참다운 나는 아니어라.(제4장)

* 毛允淑(1910~1990) 함경남도 원산 生. 아호 嶺雲. 교직 역임. 문예사. 방송사 기자. 국제펜클럽 위원장. 저서 시집 『빛나는 지역』 외 다수. 산문집 『련의 애가』 외 다수. 기타 모운숙 시선집 등.

……〈중략〉……

밤과 밤을 잇는 몽롱한 순간들이
하나 하나 항거의 아픔으로 꽃이 되어
그의 가슴 안에 피어나게 하리니
이 몸 미천한 女人일지나
근심 안에 도사린 그 등불을
어느 바람에도 꺼지지 않도록
이 머리카락들을 바람에 배앗길지어나
저 외람된 왜병의 무리를 향하여
마디 마디 맺힌 恨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풀어가라니.(제6장)

논개

임종성*

깊어가는 겨울 강을
홀로 건넜지
풀어져 내리는 설움 단단히 부여매고
가슴에 꽃 한 송이 묻고
시퍼렇게 날선 눈발 길을 갔지
저무는 12월 돌 풍경에 묻히듯
불리도 불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속으로만 갈대같이
결코 울지 않으면서 갔지
그대 발자국 소리는 깊어져
산에 들에 잊처럼 어둡게 그대는
쌓이고 쌓였지
누구나 적당히 타오르고 애써
연기 피우고저 할 때
그대는 온몸으로 불탔지
타는 눈시울로
정든 우리를 깨우고 있는 누이여
봄마다 붉은 진달래로 와서
우리 빈 가슴을 적시어 주고 있지

* 林鍾成 : 1950 전북 진안 生.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1976 시문학으로 등단. 현 부산여대 교수. 저서 『땅뺏기』 외 3권.

그대 죽음은 사랑의 대답

정동주*

진주 기생 논개의
절개가 높다드니 곧세다느니
장수 노비 논개의
충절이 푸르다느니 붉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들로
달콤하고 매끄러운 그러나 독 문은 말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차라리 오늘을
나는 읊니다.
……〈중략〉……
사랑의 사람 그대여, 그대 죽음은
사랑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군색하고 어슬픈 20세기의 숨결,
녕마처럼 까발리고 군침 흘리며
색감 고운 비단 속에 숨어 낄낄거리는 프리 섹스,
낮도깨비 수작만 같은 이력서 위에
높이 앉은 높은 콧대,

* 鄭東柱 : 1949년 경남 진양 生. 1980년 《농투산의 노래》 발행으로 시작 활동. 저서 시집 『
농투산의 노래』 외 6권.

콧대 하나로 지워버리는 性의 이름,
돈 놓고 돈 따먹는 시집가기 장가들기,
이런 저런, 또 어떤 오늘날 수작으로는
가늠할 길 도무지 없는

그대 그 사랑은,
죽음의 손으로 쟁기질하여
매운 혼으로 씨를 물어
한 잎 한 잎 울창한 그리움으로
질게 서 있는
늘 푸른 사랑의 숲입니다.

……〈중략〉……

그 사랑의 숲은
제 앞가림의 나날로 깊어져 가는,
심장은 식어가고 피는 얼어붙은
이 시대 냉병의 한가운데서
다시금 더운 피 용솨음치게 하고,
머리만 남고 가슴은 퇴화된
이 날의 얼음장 밑에서
불씨를 다스리고 있습니다.(제11장)

……〈하략〉……

의암(義岩)

李熙昇*

南江이 다 마른다
論介 魂이 씻길리야

義巖이 떠나간들
임의 節概 흔들리랴

그 냇이 붉은 탓으로
물은 저리 푸른가.

* 李熙昇(1896~1989) 경기도 개풍 生. 국문학자. 시조시인. 수필가. 시인. 이화여대, 서울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 문학박사. 저서 시집 『박꽃』 외. 수필집 『병어리 냉가슴』 등. 기타 국문학 다수. 국어대사전 간행.

논개의 나라사랑

고 은*

살 보살에게도 나라 있거니
나라 앞에서
나라 보살 되었나니
의병 삼천의 일 해내었나니
남강은 흘러

* 고은 : 1933 군산 生. 범명 일초. 11년 간 승려. 1958 현대문학으로 등단. 경기대 대학원 교수. 저서 시, 소설, 평론, 평전 등 120여 권 간행.

그 이름 의낭(義娘)

- 논개

고두영*

죽음에서 태어난 그 이름이여!

흔적없이

소리없이 임 가신 긴 여울목

고향집 부모 생애 그 모두를

슬픈 물결에 묻어두고

수모와 모멸과 천시를 넘나들던

서러운 이름이여!

햇빛에 떠오르면 正史가 되고

달빛에 잠기면 野史가 되거늘

햇빛 달빛도 비켜서버린

외로운 이름이여!

이젠

꽃빛 불빛으로

* 高斗永 : 雅號 曉山. 1929년 장수 生. 교직 역임 40년. '89년 월간 <장르> 시 2회 천료. 한국 문인협회 회원. 전북문협 및 시인협회 이사 역임. 현 장수문협 명예회장. 전 장수문화원장. 저서 시집 『들풀의 향기』 외 5권. 문집 『이애미 주논개』 외 6권.

民衆의 가슴속 化石으로 새겨진

義娘樓에 不死鳥로 살아난

久遠의 女神

거룩한 이름이여

그 이름이여!

이애미 사랑

고두영

회오리바람 솟구치어
남 가람 이애미
허공 휘감고
장대비 몰아치는 갈대밭 진탕

푸른 하늘, 마른번개 번쩍
천둥은 서럽게 통곡한다.

열아홉 꽃다운, 임의 사랑
사 갑술이 점지하신
백두대간의 튼튼한 줄기
남 가람의 이름 천만년에 흐르고

서럽게 버리고 돌아서, 웃음 짓는
무궁화로 피어난 그 사랑.

가사(歌辭)

논개(論介) 충렬가(忠烈歌)*

전라도	장수(長水)고을	주진사택(朱進士宅)	외동따님
삼천리	우리강토	왜적에게	짓밟힐때
오장모곡촌(毛谷村)	거짓안고	남강(南江)투신	논개열사(烈士)
우뚝선	축석루(矗石樓)에	의암충혼(義巖忠魂)	서러있네
아버지	주달문(朱達文)공	어머니	밀양박씨
덕유산(德裕山)	정기받아	충신열사(忠臣烈士)	태어날제
신기할사	생년월일	생시까지	갑술(甲戌)이라
사갑술에	맞추어서	그이름	논개로다
아버지를	여인후에	삼촌달무(三寸達武)	황포보소
김풍헌의	바보아들	논개배필	삼췌다네
돋받고	사성(四星)받아	투전하고	청누가니
박씨부인	기절초풍	모녀가	피신했네
김풍헌의	거동보소	동헌(東軒)에	송사할제
붙잡혀온	논개를	장수헌감	최경회(崔慶會)님

* 소고당(紹古堂) 고단(高端)의 작품으로 《소고당가사집(紹古堂歌辭集)》(삼성출판사, 1991, 全州)에 실려 있다. 고단은 1922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평화리 죽심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자는 효덕(孝德)이고, 소고당(紹古堂)은 그녀의 호이다. 그녀는 55세의 늦은 나이에 규방가사(閨房歌詞)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그녀가 논개의 생가를 방문한 뒤 지은 것으로, 논개가 모곡촌육조의 허리를 안고서 진주 남강에 투신하면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이룬 충렬을 기린 가사이다. '거룩할사 순국열사 살신성인 단장추모' 등의 주제를 보아 이 가사의 충효의식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무죄판결	내린후에	병든부인	간청으로
그부인이	세상뜨니	후실로	마지했네
임진왜라	당시에	진주싸움	처절할제
순국하신	부군(夫君)원수	나라원수	값으려고
열손가락	마디마디	옥가락지	긴손으로
적장안고	투신하여	살신성인	하였구나
열아홉살	꽃봉오리	피다말고	낙하로다
푸른남강	붉은마음	단장추모(斷腸追慕)	겹겹쌓여
계내면(溪內面)	주촌(朱村)마을	아씨생가(生家)	복원하니
충(忠)과열(烈)	꽃피운얼	거기고이	머무소서
어허!	님가신지	사백년이	심쿠려
거룩할사	순국열사	어이퍼서	칭송하리
고운님	애국단심	온겨레의	자랑일레
햇불되신	님의녘	길이길이	빛나리라

병인(丙寅, 1986) 지월(至月)

민요(民謠)

1.

순창 기생(淳昌 妓生) 의암(義巖)이는
우리 나라 건지려고
왜장(倭將) 청정(清正) 목을 안고
진주(晋州) 남강(南江) 떨어졌네¹⁾

2.

네 놈이 왜장(倭將) 청정(清正)이 아니냐?
내 놈이 안동(安東) 삼십리(三十里) 안에
들어오면 들어만 오면
내 칼에 맞아 죽으리라.²⁾

3.

네 놈이 왜장 대장 가등청정(加藤清正) 아니더냐?
네 놈이 진주 삼십리 성 틀밖에 들어오면
끔짝없이 내 칼에 목을 날려 죽으리라.³⁾

1) 고정옥(高晶玉), 《조선민요연구(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p.231.

2) 김소운(金素雲), 《언문조선구전민요집(諺文朝鮮口傳民謠集)》(第一書房, 東京, 1933), p.618

3) 리명길.

4.

진주 기생 이애미가
만백성을 살릴려고
왜놈 천지 목을 안고
진주 남강 떨어졌네.⁴⁾

5.

진주이라 축석루
지애미란 기생이
왜장 청정의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빠져 죽었네.⁵⁾

6.

진주 기생 의암이가
진주 기생 의암이가
만인간을 섬기라고
꽃과 같은 저 시절에
왜장 청장 목을 안고
진주 남강 떨어질 때
어찌 아니 한심한가
우리 나라 충신동이⁶⁾

4) 임동권(任東權).

5) 임동권(任東權). 정읍 지방에서 채록된 것으로 되어 있음.

6) 박순호(朴順浩), 《한국구비무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5-5, 전라북도 정주시·정읍군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1987), p.684. 정읍군 감곡면 민요 20, 진주 기생.

7.

네 놈이 왜놈 대장 가등청정 아니더냐
네 놈이 진주 삼십리 성틀밖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내 칼에 목을 날려 죽으리라

진주 기생 이애미는 왜놈 청정 몸을 안고
남강 물에 떨어졌네 우리 집에 서방님은
나를 하나 못성겨서 자는 듯이 누웠구나.

꽤지나 칭칭나네
살랑수 어-이 수레받게 어-이
꽤지나 칭칭나네 꽤지나 칭칭나네

죽여주자 죽여주자 왜놈들을 죽여주자
목을 쳐라 목을 쳐라 가등청정 목을 쳐라.⁷⁾

7) 리명길.

【참고문헌】

1. 정동주 「논개」 한길사. 2000
2. 「논개의 생애와 충절」 장수문화원. 1997
3.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사적연구」 신지서원. 1996
4. 고두영 「주논개」 장수문화원. 1997
5. 오병무 「논개실기」 장수문화원. 2001
6. 「장수문화」 제4호 장수문화원. 2006
7. 성계옥 「의암별제지」 진주민속예술보존회. 2006
8. 「의암주논개 사적 조사 보고서」 장수번영회. 1985
9. 「장수지역과 임진. 정유왜란」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2001
10. 「해주최씨(일휴당집. 육의록전)」 1987
11. 「장수군지」 2011

**길 따라 찾아가는
익암 주논개의 발자취 <중보재판>**

초판발행 : 2011년 7월 10일
재판발행 : 2014년 9월 20일

편저 : 양해도
발행처 : (사)익암주논개정신선양회
주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41
전화 : (063) 351-6400

인쇄처 : **인문사 artcom**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12
☎ (063) 288~3002 / 3004

※ 이 책의 제작비는 장수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의암주논개정선양회